

안전보건분야 국제협력 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업 및 조직 진단

OSHRI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보고서

안전보건분야 국제협력 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업 및 조직진단

최우재·양재완·류성민·이정원·김영준

제 출 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안전보건분야 국제협력 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업 및 조직진단”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1월

연구진

연구기관 :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최우재 (교수, 청주대학교)
연구원 : 양재완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원 : 류성민 (교수, 경기대학교)
연구원 : 이정원 (교수, 경기대학교)
연구보조원 : 김영준 (박사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요약문

- 연구기간 2021년 8월 ~ 2021년 11월
- 핵심단어 안전보건분야, 국제협력, 사업진단, 조직진단
- 연구과제명 안전보건분야 국제협력 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업 및 조직 진단

1. 연구배경

최근 산재사망 감소를 위한 국정과제 수행, 지속적인 안전사고 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및 시행 등은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이와 함께 국제 안전보건 교류·협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국제협력사업 추진 방향과 우선순위가 부재하여 체계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산업안전보건 분야 국내 유일의 ODA사업 수행 기관으로 담당 부서인 국제협력센터는 최근 10여 년 동안 산업안전보건 관련 국제컨퍼런스 개최, 안전보건 ODA 수행기관 지속선정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국제협력분야 예산의 증가와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해 기술자문·초청연수, 기술협력협정 체결, 공적개발원조사업(베트남, 라오스, 몽골 등의 협력국 중심의 개발 사업 실행) 확대 및 신사업 분야 발굴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주요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축적된 지식을 공유함과 동시에 저개발 또는 개발도상국가의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개선을 통해 국제 협력네트워크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공단의 사회적 가치 달성의 중점 과제인 개도국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국내외 예방문화 확산, 국외 지식과 정보를 이용한 사고사망 감소추진, 한국형 OSH(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모델의 전파 등을 효과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고도의 국제협력이 필요함. 또한, 공단 사업추진 전략 체계상의 경영목표에 부합하는 국제협력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사업방향설정, 조직재설계를 위한 국제협력 로드맵 수립이 필요함.

2. 주요 연구내용

○ 국제교류협력 사업 분석을 통한 시사점

- 최근 4년간 시행된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만족도 조사와 디자인 개선 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종합만족도 89.3점으로 나타남.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만족도와 자료의 신뢰성은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자료의 전문성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음.

- 국외 기관과의 기술협력협정은 안전인증 규격·상호인정 사업은 전문성을 이유로 인증원 주관으로 협정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으나, 기술·지식·정보교류 사업은 기관 간 업무의 중복 및 효율화를 위해서 국제협력센터가 주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도국 안전보건협력 체결현황의 경우, 주로 아시아에 편중되어 있어서 타 대륙으로의 다변화가 필요함. 특히, 베트남과 몽골 이외의 국가들은 1개씩 협정되어 있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정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유관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KDI, KOTRA, KOICA 등)들의 사업내용과 비교할 때, 공단의 국제협력사업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음. KOICA 등과 같이 위탁사업을 활성화하여 자체예산과 고용노동부 예산 이외의 재원을 발굴하여 국제협력사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또한, KOTRA 등과 같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CSR과 ESG를 통한 국제협력사업 활성화를 추구할 수 있음.

○ 국제협력센터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시사점

- 국제협력센터의 업무는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되고, 각각의 영역에서 강화되거나 추가될 업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의 1센터 1팀 구조에서 개편이 필요함. 단기적으로는 업무영역 구분에 따라서 국내사업팀(협력사업팀)과 국외사업팀으로 구분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음. 장기적으로는 현재 조직도 상 경영지원이사 산하에 있는 것에서 벗어나 국제협력사업을 총괄하는 독립적인 위치로 변화를 고려할 수 있음.

-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센터의 인원 중 2명 이상이 지원업무에 배정될 필요성이 제기되어 있으며, 국제협력업무에 인원 부족이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지원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거나 관리지원업무 담당을 추가로 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가장 시급하게 인원충원이 필요한 영역은 ODA사업으로 2022년부터 3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최소 1명에서 2명의 충원이 필요함. 다음으로 신규사업이 추가되는 영역에 신규인력의 배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국외안전보건 정보 제공을 전담하는 인력의 충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제교류협력사업 발전방향

- 일본의 경우, 다수의 기관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공단이 유일한 기관임. 따라서 공단은 우선적으로 국가 차원의 국제협력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적절한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을 갖추고 있어야 함.

- 국제적 논의를 통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국가별 취약성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음. 따라서 향후 개도국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에 있어서 취약성이나 지원 필요성을 분석하여 지역 및 사업 방향을 구상해 볼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 관련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국제

협력의 한 방법으로 해당 국가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데이터 관리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국제협력 수행 국가에서 우리 기업들의 산업안전보건 영역을 지원하여 산재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공단의 경영 목표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사업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연구 활용방안

- 국제교류협력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 도출
- 코로나 19 이후 예상되는 국제협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전략적인 교류협력 방향 설정
- 국내 유관기관 국제교류협력 업무 조직 및 인력 비교를 통해 공단 국제교류협력사업의 방향 설정
- 공단 국제협력센터 조직 및 인력 구성에 대한 의견 제시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청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최우재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연구기획부 차장 김정섭
 - ☎ 052) 703. 0812
 - E-mail jsky2001@kosha.or.kr

목 차

I. 연구 개요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1) 안전보건의 중요성	1
2) 공단 국제협력센터 사업의 고도화 요구	2
3) 연구의 목적	3
2. 연구범위 및 내용	3
1) 국제교류협력사업 현황분석 및 시사점 도출	3
2) 국제적 위상 제고에 맞는 조직 및 직무설계	4
II. 공단 및 유관기관의 국제교류협력 현황분석	7
1.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만족도 조사	7
1) 조사개요	7
2) 조사결과	10
2. 국제협력 대상국 및 안전보건 전문기관 등과 체결한 기술협력협정 조사	25
1) 국외기관과의 기술협력협정 개요	25
2) 개발도상국 안전보건협력	28

3) 기술·지식·정보교류	32
4) 안전인증 및 공동규격 상호 인정	36
3. 유관기관 사업내용 분석	41
1) 유관기관 사업내용 분석 배경	41
2)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교류협력사업	41
3)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50
4) KOTRA 국제개발협력	58
5) KOICA(한국국제협력단)	64
Ⅲ. 사업 및 조직진단	72
1. 국제협력센터 사업영역 진단	72
1) 공단 국제협력사업 연혁	72
2) 국제협력센터 조직 및 업무분장	78
3) 국제협력센터 업무진단	85
2. 국제협력센터 조직 및 직무 진단	90
1) 국제협력센터 예산 및 업무량 적정성 분석	91
2) 국제협력센터 담당자 인식 조사	95
3) 업무량을 고려한 국제협력센터 적정 인원 방향	112

목 차

IV. 국제협력 해외사례 조사 118

1. 코로나19 이후 안전보건 관련 국제협력 이슈 탐색 118
2. ILO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논의 119
 - 1) ILO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119
 - 2) ILO의 산업안전보건 주요 이슈들 120
3. 일본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국제협력 조사 126
 - 1) 국제협력 중심기관 126
 - 2) 일본 산업안전보건 주요 국제협력유형 127
 - 3) 주요 관리 및 실행 조직 128

V. 국제교류협력 사업 및 조직을 위한 시사점 ... 139

1.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시사점 139
 - 1)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시사점 139
 - 2) 국외기관과의 기술협력협정 분석을 통한 시사점 140
 - 3) 유관기관 사업내용 분석을 통한 시사점 142
2. 국제협력센터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시사점 148

1) 국제협력센터 조직구조 개편 필요성	148
2) 업무량 고려한 조직 인원 및 업무 분석 시사점	148
3. 국제교류협력사업 발전방향	150
1) 국내 산업안전보건 관련 유일한 국제협력 기간으로서 센터의 역할 강화	150
2)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취약계층 초점, 특화된 수요 발굴	151
3)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반영된 산업안전보건 연수 및 제도지원 제공	151
4) KOICA 협력 및 특화 프로그램 개발로 외연 확장 및 공단 비전과 연계	152
참고문헌	163
Abstract	167

표 목차

〈표 Ⅰ-1〉 국제협력센터 담당업무	5
〈표 Ⅱ-2〉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만족도 조사 연도별 응답인원	8
〈표 Ⅱ-3〉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만족도 조사 항목	9
〈표 Ⅱ-4〉 기술협력협정 체결분야 및 주관기관 현황	26
〈표 Ⅱ-5〉 국외 기술협력 협정현황	27
〈표 Ⅱ-6〉 개발도상국 안전보건 상생협력 추진절차	28
〈표 Ⅱ-7〉 협정체결 방법·절차	33
〈표 Ⅱ-8〉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HRD 협력부 조직구성 및 업무	43
〈표 Ⅱ-9〉 외국인 초청연수 세부사항	45
〈표 Ⅱ-10〉 2020년도 외국인 초청연수 실적	46
〈표 Ⅱ-11〉 국가간 교류협력 추진실적	46
〈표 Ⅱ-12〉 국가간 교류협력 추진실적	47
〈표 Ⅱ-13〉 국제기구와의 협력추진 현황	48
〈표 Ⅱ-14〉 IT자격상호인정 체결현황	49
〈표 Ⅱ-15〉 한·일 IT분야 상호인정 자격종목	50
〈표 Ⅱ-16〉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조직구성 및 업무	52
〈표 Ⅱ-17〉 KSP 협력방식	53
〈표 Ⅱ-18〉 KSP 분야별 사업현황	54
〈표 Ⅱ-19〉 KSP 연도별 사업현황	55
〈표 Ⅱ-20〉 국제개발협력 연구 주요실적	56
〈표 Ⅱ-21〉 글로벌 파트너십 주요사업 실적	57

〈표 II-22〉 KOTRA 개발협력실 조직구성 및 업무	59
〈표 II-23〉 KSP 사업의 협력방식 유형	60
〈표 II-24〉 2020/2021 국가별 KSP 정책자문 수행현황	61
〈표 II-25〉 한-베 통상연계경제협력사업 추진현황	62
〈표 II-26〉 글로벌 CSR+ESG 사업의 유형별 사업내용	63
〈표 II-27〉 KOICA 사업의 전략목표와 주요 프로그램 예시	67
〈표 II-28〉 KOICA 사업추진실적	68
〈표 II-29〉 KOICA 사업 세부추진내역	69
〈표 II-30〉 ABC 프로그램 추진개요	70
〈표 III-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사업의 변천과정	73
〈표 III-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외국기관과 주요협정체결 현황	74
〈표 III-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개발도상국기관과 주요협정체결 현황	76
〈표 III-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수혜국 훈장	78
〈표 III-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원	80
〈표 III-6〉 기술자료 및 장비지원 현황	82
〈표 III-7〉 국제협력센터 업무분장	85
〈표 III-8〉 안전보건 ODA 현황 및 추진계획(2022~2029년)	93
〈표 III-9〉 타 기관 ODA 전담 인원 및 예산 평균	94
〈표 III-10〉 국제협력센터 조직 진단을 위한 내부 의견 조사 경과	95
〈표 III-11〉 Six Boxes 모델 영역별 개념 및 하위 요소 예시	98
〈표 III-12〉 주요 진단 내용 종합 요약	109

표 목차

〈표 III-13〉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HRD협력부 인원 및 업무	113
〈표 IV-1〉 일본의 산업안전보건 국제협력 영역	126
〈표 IV-2〉 일본 산업안전보건 ODA 주요 형태	127
〈표 IV-3〉 최근 10년간 JICA의 산업안전보건 부문 주요 국제협력 사례	128
〈표 IV-4〉 산업안전보건 관련 해외 정보 제공	130
〈표 IV-5〉 해외 진출 일본 기업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	131
〈표 IV-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국어 문서/영상 교육 자료	133
〈표 IV-7〉 일본산업안전보건기구 하부 기관별 주요 국제협력 사례	136
〈표 V-1〉 유관기관 국제협력사업 비교표	144
〈표 V-2〉 국제협력센터 인원충원 필요성	150

[그림 II-1]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고객 만족도 항목별 종합만족도	11
[그림 II-2] 한국산업인력공단 조직도	42
[그림 II-3] KDI 조직구성	51
[그림 II-4] KSP 사업구성	53
[그림 II-5] 국제개발협력센터 컨퍼런스 사례	58
[그림 II-6] 코트라 조직구성	59
[그림 II-7] KOICA 조직도	65
[그림 III-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조직도	79
[그림 III-2] 공단 국제협력센터 환경분석	88
[그림 III-3] 공단 장기전략방향	89
[그림 III-4] 국제협력센터의 업무조정 방향	90
[그림 III-5] 공단 국제협력사업 실적 및 예산 현황	91
[그림 III-6] 조직 내 성과 사슬 및 Six Boxes 모델 개념도	97
[그림 III-7] 영역별 진단 점수	99
[그림 III-8] 업무 필요도구/자원에 대한 인식	103
[그림 III-9] 업무 결과/보상에 대한 인식	104
[그림 III-10] 업무 동기/선호태도에 대한 인식	109
[그림 IV-1] 주요 정책에 대한 지침과 법률 지원 현황	121

I. 연구 개요



I. 연구 개요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안전보건의 중요성

최근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으며, 산재사망 감소를 위한 국정과제 수행, 지속적인 안전보건 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및 시행 등은 본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시사함.

2018년 1월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은 교통사고, 자살사고 등과 함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포함되었고, 2019년 100명 이상의 사망자 수 감소를 가져왔으나, 2020년에는 다시 증가함. 2018년 계획 수립 당시 2022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감축하는 목표에 비해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2021년 3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12명(2.1%)증가한 것을 볼 때, 달성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

지속적인 안전보건 사고 발생하고 있음. 지난 4월 29일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38명이 숨지고 10명이 사상을 입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여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소방청 등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하였음. 과거와는 달리 비용 절감보다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건설공사의 단계별 위험요인을 파악해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음.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예방 및 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으며, 고용노동부의 소관하에 시행될 예정임. 2022년 1월부터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사건은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며, 전문성이 부족한 산업안전보건 집행조직은 많은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조직의 확대 개편 등이 검토되어야 함.

2) 공단 국제협력센터 사업의 고도화 요구

국제 안전보건 교류·협력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장기적인 국제협력 사업 추진방향과 우선순위가 부재하여 체계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산업안전보건 분야 국내 유일의 ODA사업 수행기관으로 담당 부서인 국제협력센터는 최근 10여 년 동안 산업안전보건 관련 국제컨퍼런스 개최, 안전보건 ODA 수행기관 지속선정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통한 업무 고도화를 진행중임.

국제협력분야 예산의 증가와 다양한 사업의 추진에 의해 기술자문, 초청연수, 기술협력협정 체결, 공적개발원조사업(베트남, 라오스, 몽골 등의 협력국 중심의 개발 사업 실행) 확장 및 새로운 사업 분야의 발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주요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축적된 지식을 공유함과 동시에 저개발 또는 개발도상국가의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개선을 통해 국제 협력네트워크를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공단의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해서도 중점 과제인 개도국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국내외 예방문화 확산, 국외 지식과 정보를 이용한 사고사망 감소추진, 한국형 OSH(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모델의 전파 등을 효과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고도의 국제협력이 필요함.

또한, 공단 사업추진 전략체계상의 경영목표에 부합하는 국제협력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사업방향설정, 사업우선순위, 조직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로드맵 수립이 필요함. 국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와 국회 산업안전보건 청문회의 정기적 개최 등은 공단의 사업방향에 부합하는 국제협력업무의 방향성을 재점검하게 하고 있음.

국제협력분야는 코로나 19 등 글로벌 감염병 대유행 및 기후변화와 같은 쏠지구적 도전과제 발생으로 인해 중요성 부각이 되고 있으며(제3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1), 국제협력분야는 국익 우선주의 및 국내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투명성과 책무성이 중요함. 이와 같은 사업 수행

을 위해서는 공단 국제협력센터의 조직구조 및 인원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연구의 목적

- 국제교류협력사업 만족도 결과 분석 및 기술협력협정 내용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국제협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전략적인 교류협력 접근 방향 설정
- 국내 유관기관 국제교류협력 업무 조직 및 인력 등을 비교하여 국제교류협력사업의 발전방향 제시
- 국제교류협력사업의 발전에 따른 공단 국제협력센터 조직·인력 구성에 대한 의견 제시

2. 연구범위 및 내용

1) 국제교류협력사업 현황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기술자문, 초청연수 대상국(대상자)의 사업만족도 조사 결과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및 협력분야 발굴
- 최근 수행된 사업만족도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정량적 및 정성적 차원의 결과 분석을 통해 사업별 개선사항 및 향후 협력분야를 발굴함.
- 기술협력협정 내용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 전략적 관점에서 기술협력협정의 내용이 공단의 현재 및 향후 미션/비전 달성에 기여하는지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함.
- 공단의 국제협력사업 성과(실적)와 유관기관의 사업실적 비교 및 분석
 - 국내 유일의 안전보건분야 ODA 수행기관의 특성 등 현 국제협력사업

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유관기관에 대해 체계적인 비교 및 분석을 수행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2) 국제적 위상 제고에 맞는 조직 및 직무설계

- 디지털화 및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새로운 이슈 검토
 - 4차산업혁명을 대표하는 디지털화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다 가속화 되어 산업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음. 가속화된 디지털화는 경제·고용 환경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정부도 여러 업종에 대해 일터 스마트화를 통한 혁신과 근로자 산업안전 관련 디지털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이러한 디지털화 및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나타난 산업안전보건에서의 새로운 이슈는 특정 국가에서만 나타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변화를 반영한 국제적인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기존 사업영역에 대한 진단 및 발전방안 제시
 - 환경변화 및 공단의 경영목표와 유관기관 비교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4가지 사업영역을 진단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강화시켜야 하는 사업영역과 새롭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영역을 제시함.
- 국제협력센터 조직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공단의 국제협력사업을 위한 조직 운영에 대해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안전보건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대, 디지털화의 가속 및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새로운 이슈 출현, 공단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및 벤치마킹을 통한 새로운 업무분야 탐색 등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업무 내용을 도출함.

〈표 I-1〉 국제협력센터 담당업무

직위	담당자	담당업무
소장	000	국제협력센터 업무 총괄
팀장	000	국제개발협력팀 업무 총괄
차장	000	글로벌 예방문화 확산, OSH 및 이슈 솔루션 운영 등
차장	000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차장	000	국제협력 사업계획, 대내외 평가, 회의, 보고 등
과장	000	개발도상국 안전보건 협력사업, 국외유관기관 협정관리, 국제협력사업 통역/번역 등
과장	000	국내안전보건 정보자료 발간/보급, 글로벌 예방문화 확산, 국외 유관기관 관계장 방문지원, 국제협력사업 통역/번역 등
과장	000	국제협력센터 예산 및 사무, 임직원 국외출장 관리, 웹사이트 운영 등

출처: 공단 홈페이지에서 발췌

- 공단 국제협력센터를 진단하고 기존사업의 후속 협력수요 및 잠재적 협력사업 수요에 대응하도록 함. 기존 업무 대비 새롭게 늘어난(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분석하고 업무량 증대에 대한 직원 인식 조사,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타 기관의 정원과의 비교 등을 토대로 적정인원을 산정함.

Ⅱ. 공단 및 유관기관의 국제교류협력 현황분석



II. 공단 및 유관기관의 국제교류협력 현황분석

1.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만족도 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본 만족도 조사는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을 통해 보급된 국외 안전보건 지식·정보자료에 대해 주제의 적절성, 시의성, 내용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안전보건 동향 제작 시 반영 및 평가 등에 활용함.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019년 제외) 매년 시행된 만족도 조사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분석을 시행함.

(2) 조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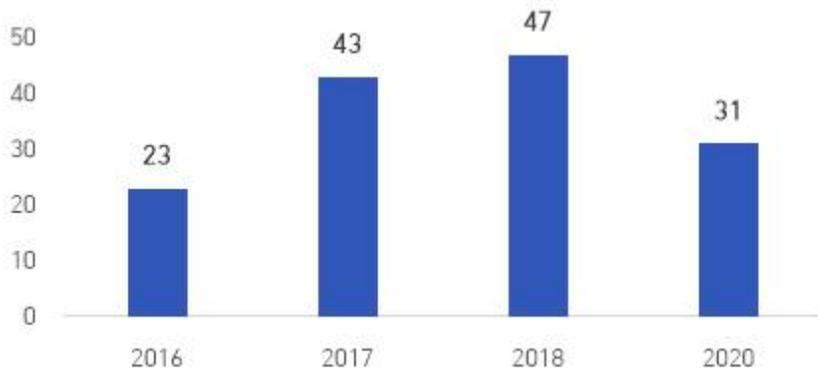
구분	내용	
조사대상	•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구독자	
조사방법	• 설문지를 활용한 Web-Survey	
표본추출	• 리스트에 의한 전수조사	
조사기간	• 2016년부터 2020년 총 4년(2019년 제외)	
조사기관	외부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6년)
		• (주)유니온리서치 (2017년)
		• 한국정책능력진흥원 (2018년)
	내부기관	•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한 내부진행 (2020년)

(3) 응답자 특성

본 조사의 응답자는 국제안전산업보건동향을 구독하는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음. 4년간의 총 응답자는 144명으로 연도별 응답자 수는 다음의 <표>과 같음.

〈표 II-2〉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만족도 조사 연도별 응답인원

(단위 : 명)



(4) 조사 내용

2016년~2018년, 2020년 시행된 만족도 조사의 설문 조사 방식이 선택형(단수 및 복수 선택)과 서술형이 혼재되어 있어서 종합분석을 위한 공통 문항별 재분류를 시행하였으며, 문항 분류는 만족도 조사와 디자인 개선 및 의견 조사 등 11개 세부 문항으로 구성됨.

〈표 II-3〉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만족도 조사 항목

구분	No	설문 문항	유형	2016년 ~ 2018년	2020년
만족도	1	• 해외산업안전보건 동향 파악 도움 정도	선택형	○	○

구분	No	설문 문항	유형	2016년 ~ 2018년	2020년
조사	2	•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자료의 최신성 유지	선택형	○	○
	3	•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신뢰성	선택형	○	
	4	• 원문정보 접근 편의성	선택형	○	
	5	•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루는 정도	선택형		○
		•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시의 적절하게 제공	선택형		○
	6	• 산재예방 및 안전보건 전문성 향상에 도움	선택형		○
		• 코로나19의 이해에 도움	선택형		○
7	• 전반적인 만족도	선택형	○		
디자인 개선 및 의견 조사	8	•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에 대한 개선의견	선택형	○	
	9	•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의 디자인 또는 구성에 대한 개선의견	선택형	○	
		• 디자인 구성은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	선택형		○
		•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디자인 및 색상 구성이 가독성을 높여주는 정도	선택형		○
	10	•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주제분야	선택형	○	
11	•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에 대한 기타 건의사항	서술형	○		

(5) 만족도 산출방식

본 조사의 지수산출에 활용되는 척도는 5점 척도이며,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만족도 지수를 산출함. 만족도(5점 척도)는 매우 부정, 대체로 부

정, 보통, 대체로 긍정, 매우 긍정의 5가지로 나뉘며, 다음과 같이 척도별 20점의 점수를 부여하여 100점으로 환산함.

(단위 : 점)

구분	매우 부정	대체로 부정	보통	대체로 긍정	매우 긍정
5점 척도	1점	2점	3점	4점	5점
100점 환산	20점	40점	60점	80점	100점

2) 조사결과

(1) 종합 만족도

고객만족도 조사의 종합만족도는 평균 88.9점으로 나타남. 각 항목별로 ‘계재자료의 신뢰성’이 92.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반적인 만족도’(92.2점), ‘계재자료의 최신성’과 ‘원문 출처의 신뢰성’ (90.9점), ‘해외 동향 파악의 도움’(90.8점), ‘자료의 시의성’(87.1점), ‘자료의 전문성’(80.6점)의 순서로 나타남.

[Base : 전체 응답자(n = 144), 단위 : 100점 만점 환산, 단수응답]



[그림 II-1]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고객 만족도 항목별 종합만족도

(단위 : 명, 점)

년도	응답자 (명)	해외 동향 파악에 도움	게재 자료 최신성	게재 자료 신뢰성	원문 출처 신뢰성	자료의 시의성	자료의 전문성	전반적 만족도
2016	23	86.1	85.2	87.8	81.7	-	-	87.0
2017	43	94.4	94.0	94.4	94.0	-	-	94.0
2018	47	97.0	94.5	96.6	97.0	-	-	95.7
2020	31	85.8	89.7	-	-	87.1	80.6	-
평균	36	90.8	90.9	92.9	90.9	87.1	80.6	92.2

(2) 항목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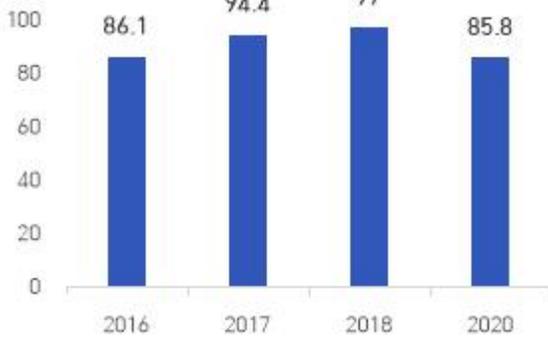
▪ 해외산업안전보건 동향 파악 도움 정도

- 자료가 해외산업 안전보건 동향 파악에 도움이 되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3%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86.1점에서 2018년 97점 까지 점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2020년 에는 85.8점으로 하향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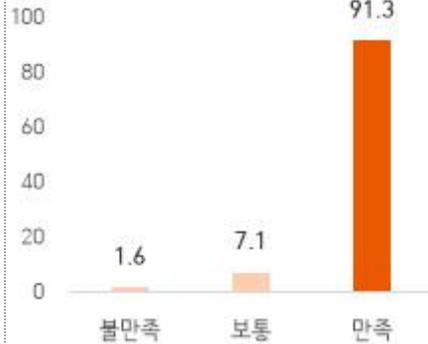
문항 1 본 자료가 해외산업안전보건 동향 파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Base : 전체 응답자(n = 144), 단위 : 점, 단수응답]

[해외 산업안전보건 동향 파악 만족도 평가]



[전반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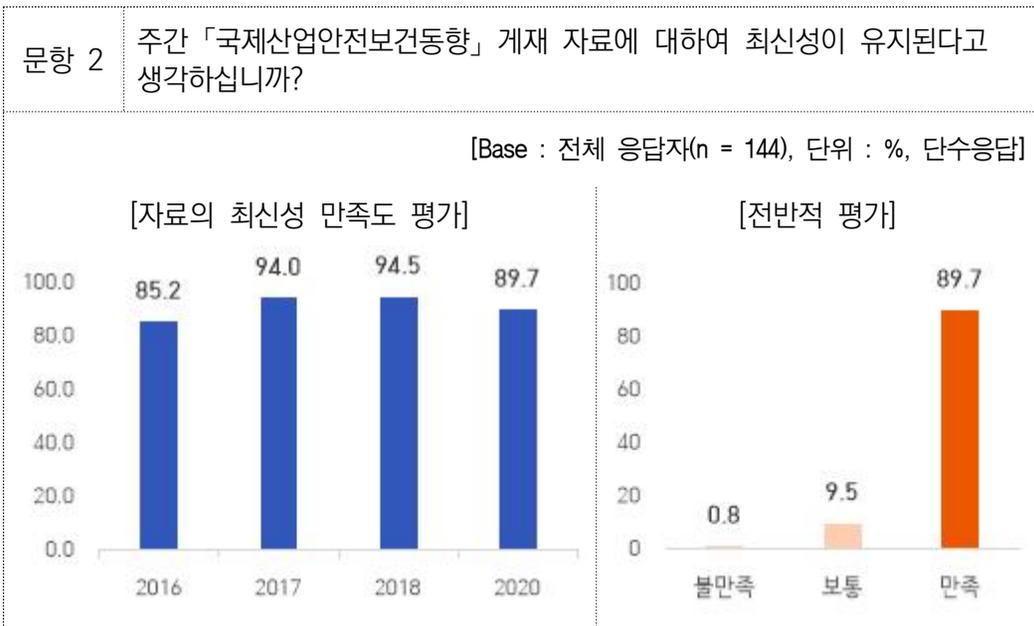


(단위 : 점, %)

년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되는 편	매우 도움 됨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도 점수
2016	0.0	0.0	13.0	43.5	43.5	0.0	13.0	87.0	86.1
2017	0.0	0.0	2.3	23.3	74.4	0.0	2.3	97.7	94.4
2018	0.0	0.0	0.0	14.9	85.1	0.0	0.0	100.0	97.0
2020	0.0	6.5	12.9	25.8	54.8	6.5	12.9	80.7	85.8

▪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자료의 최신성

- 자료의 최신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7%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85.2점에서 2018년 94.5점 까지 점수가 상승한 반면, 해외 동향파악 도움 정도와 마찬가지로 2020년 89.점으로 하향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점, %)

년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되는 편	매우 도움 됨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도 점수
2016	0.0	0.0	21.7	30.4	47.8	0.0	21.7	78.3	85.2
2017	0.0	0.0	2.3	25.6	72.1	0.0	2.3	97.7	94.0
2018	0.0	0.0	4.3	19.1	76.6	0.0	4.3	95.7	94.5
2020	0.0	3.2	9.7	22.6	64.5	3.2	9.7	87.1	89.7

▪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게재 자료 신뢰성

- 제공되는 자료의 신뢰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의 97.1%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87.8점에서 2018년 96.6점까지 지속적으로 만족도가 증가함.

문항 3

주간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게재 자료에 대한 신뢰성은 어떠하십니까?

[Base : 전체 응답자(n = 113), 단위 : %, 단수응답]



(단위 : 점, %)

년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되는 편	매우 도움 됨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도 점수
2016	0.0	0.0	8.7	43.5	47.8	0.0	8.7	91.3	87.8
2017	0.0	0.0	0.0	27.9	72.1	0.0	0.0	100.0	94.4
2018	0.0	0.0	0.0	17.0	83.0	0.0	0.0	100.0	96.6

▪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원문출처의 신뢰성

- 원문출처의 신뢰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81.7점에서 2018년 97.0점까지 지속적으로 만족도가 증가함.



(단위 : 점, %)

년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되는 편	매우 도움 됨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도 점수
2016	0.0	4.4	17.4	43.5	34.8	4.4	17.4	78.3	81.7
2017	0.0	0.0	2.3	25.6	72.1	0.0	2.3	97.7	94.0
2018	0.0	0.0	4.3	6.4	89.4	0.0	4.3	95.7	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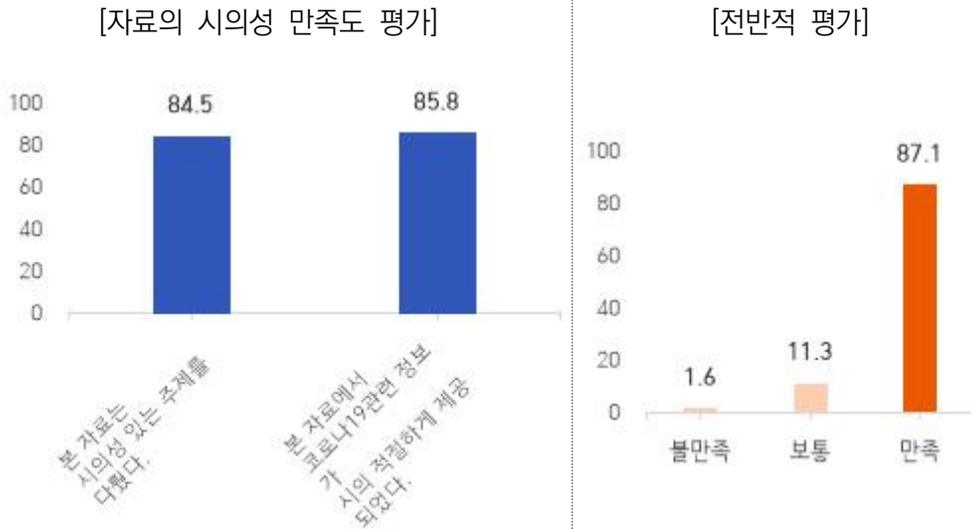
▪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계재 자료의 시의성

- 자료의 시의성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응답자의 87.1%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료의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뤘다는 평가는 84.5점으로 나타난 반면, 코로나19관련 정보 제공의 만족도는 85.5점으로 보다 높게 나타남.

문항 5

본 자료는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뤘다.
본 자료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시의 적절하게 제공되었다.

[Base : 전체 응답자(n = 31), 단위 : %, 단수응답]



(단위 : 점, %)

년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되는 편	매우 도움 됨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도 점수
2020	0.0	6.5	6.5	45.2	41.9	0.0	12.9	87.1	84.5
2020	0.0	3.2	9.7	41.9	45.2	3.2	9.7	87.1	8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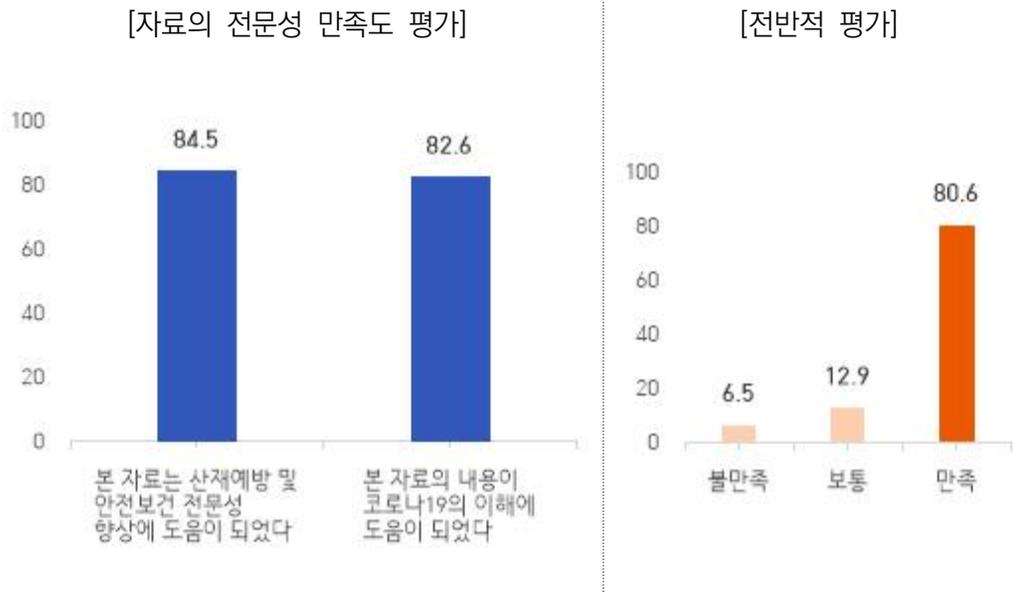
▪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게재 자료 전문성

- 자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응답자의 80.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료의 내용이 코로나19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는 82.6점인 반면, 산재예방 및 안전보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는 84.5점으로 높게 나타남.

문항 6

본 자료는 산재예방 및 안전보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본 자료의 내용이 코로나19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Base : 전체 응답자(n = 31), 단위 : %, 단수응답]



(단위 : 점, %)

년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되는 편	매우 도움 됨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도 점수
2020	0.0	3.2	16.1	35.5	45.2	3.2	16.1	80.6	84.5
2020	0.0	9.7	9.7	38.7	41.9	9.7	9.7	80.7	82.6

▪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의 전반적 만족도

- 자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응답자의 97.8%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87.0점에서 2018년 95.7점까지 지속적으로 만족도가 증가함.

문항 7 본 자료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Base : 전체 응답자(n = 113), 단위 : %, 단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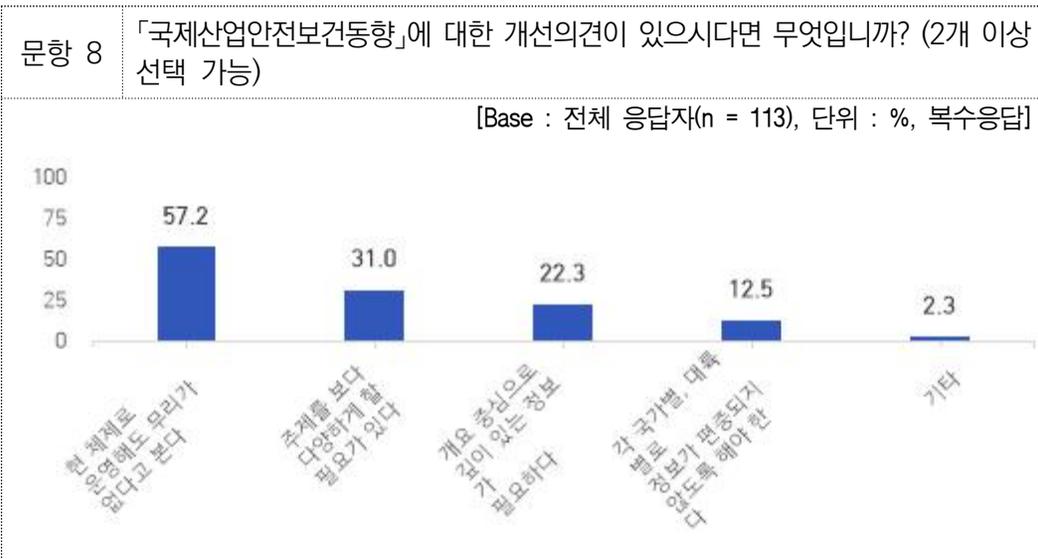
(단위 : 점, %)

년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되는 편	매우 도움 됨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도 점수
2016	0.0	0.0	4.4	56.5	39.1	0.0	4.4	95.7	87.0
2017	0.0	0.0	0.0	30.2	69.8	0.0	0.0	100.0	94.0
2018	0.0	0.0	2.1	17.0	80.9	0.0	2.1	97.9	95.7

(3) 향후 개선 및 의견 조사 결과

▪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개선 의견

-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에 대한 개선의견으로는 ‘현 체제로 운영해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가 평균 57.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주제를 보다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31.0%), ‘개요 중심으로 깊이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22.3%), ‘각 국가별, 대륙별로 정보가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한다’(12.5%) 순서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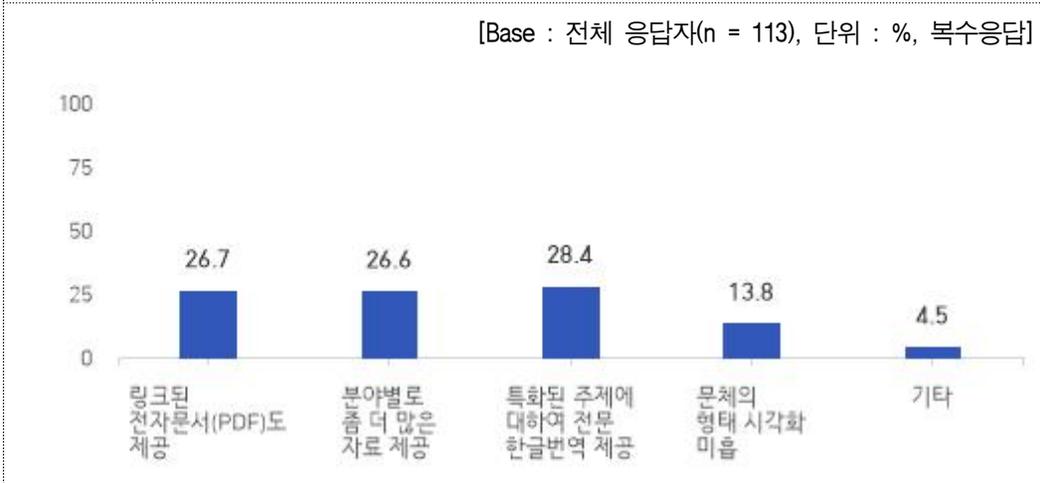
(단위 : %)

년도	현 체제로 운영해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주제를 보다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은 개요 중심이므로 깊이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각 국가별, 대륙별로 정보가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타
2016	56.5	26.1	26.1	8.7	0.0
2017	51.2	34.9	30.2	11.6	4.7
2018	63.8	31.9	10.6	17.0	2.1

▪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디자인 및 구성 개선의견

-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의 디자인 및 구성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특화된 주제에 대하여 전문 한글번역 제공’이 28.4%로 가장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링크된 전자문서(PDF)로 제공’(26.7%), ‘분야별로 좀더 많은 자료제공’(26.6%), ‘문체의 형태 시각화 미흡’(13.8%), ‘기타’(4.5%)의 순서로 응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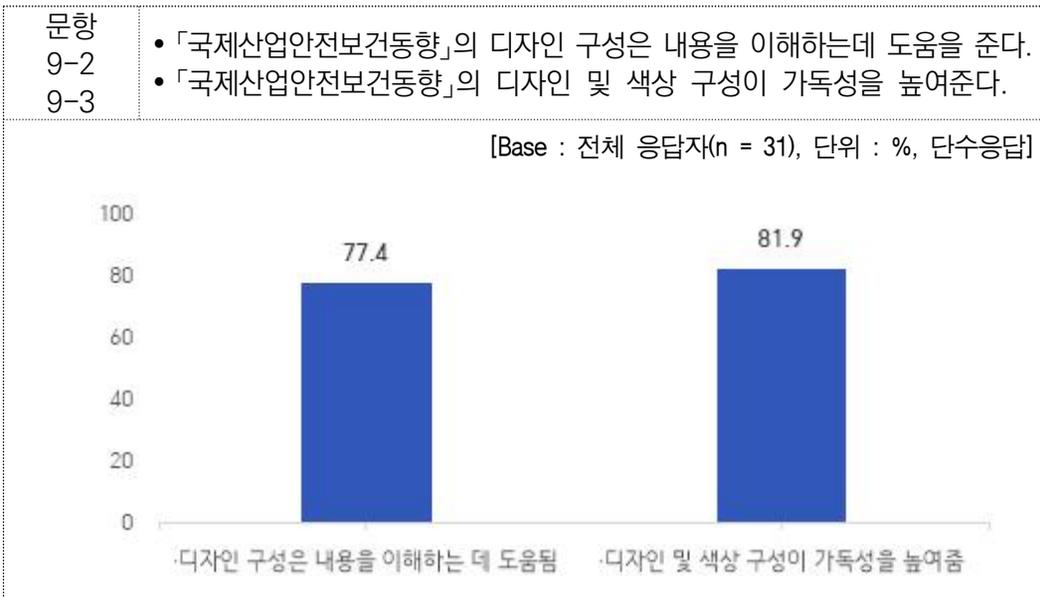
문항 9-1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의 디자인 또는 구성에 대하여 개선하여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2개이상 선택 가능)



(단위 : %)

년도	링크된 전자문서(PDF)도 같이 제공	분야별로 좀 더 많은 자료 제공	특화된 주제에 대하여 전문 한글 번역제공	문체의 형태 시각화 미흡	기타
2016	47.8	26.1	26.1	0.0	0.0
2017	30.2	30.2	18.6	11.6	9.3
2018	2.1	23.4	40.4	29.8	4.3

- 2020년 조사된 디자인 및 구성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디자인 구성은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77.4%), '디자인 및 색상 구성이 가독성을 높여준다'(81.0%)로 나타남.
- 구성이 색상보나 낮은 점수로 나타나는 바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카테고리 분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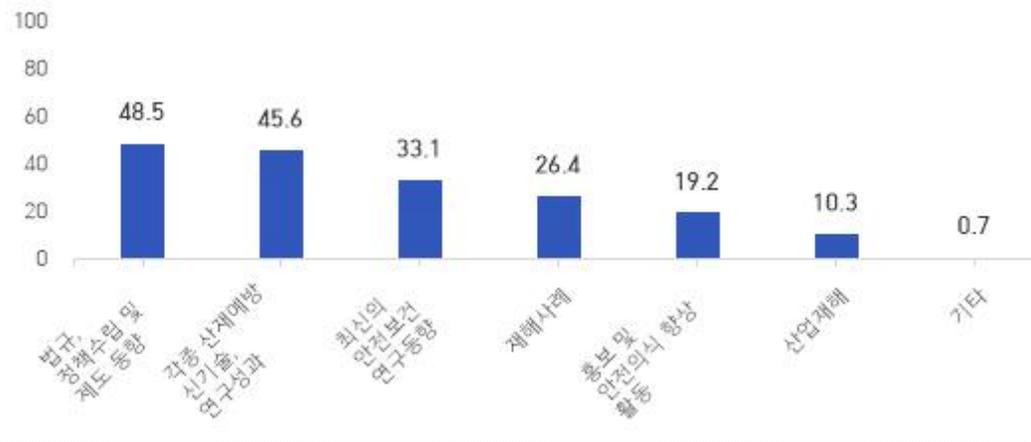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도 점수
디자인 구성은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됨	6.5	6.5	12.9	41.9	32.3	12.9	12.9	74.2	77.4
디자인 및 색상 구성이 가독성을 높여줌	0.0	3.2	9.7	41.9	45.2	3.2	9.7	87.1	81.9

▪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관심 주제

-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이 있는 주제 분야로는 '법규, 정책수립 및 제도 동향'(48.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각종 산재예방 신기술, 연구성과'(45.6%), '최신의 안전보건 연구동향'(33.1%), '재해사례'(26.4%), '홍보 및 안전의식 향상활동'(19.2%), '산업재해'(10.3%), '기타'(0.7%)의 순서로 응답됨.

문항 10 향후,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과 관련하여 귀하가 가장 관심이 있는 주제분야는 무엇입니까? (2개 이상 선택 가능)

[Base : 전체 응답자(n = 113), 단위 : %, 복수응답]



(단위 : %)

년도	법규, 정책수립 및 제도 동향	최신 안전보건 연구동향	각종 산재예방 신기술, 연구성과	홍보 및 안전의식 향상활동	재해 사례	산업재해통계
2016	39.1	39.1	30.4	26.1	26.1	13.0
2017	51.2	48.8	34.9	25.6	20.9	9.3
2018	55.3	48.9	34.0	27.7	10.6	8.5

▪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에 대한 기타 건의사항

-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의 연도별 건의사항은 대부분 검토하여 개선 또는 내용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안전보건 동향 및 기술, 재해사례, 안전보건 교육 등과 같이 관련 사업부서들과 협업이 필요한 건의사항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문항11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과 관련하여 귀하가 가장 관심이 있는 주제분야는 무엇입니까?

구분	년도	건의내용	개선 유무 및 내용
1	2016	국가별 법, 제도 변경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관련 법령의 경우 OECD 국가 등 선진국 및 아시아지역 중진국 이외에는 제정되어 있지 않아 동 법 및 제도의 변경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움. • 산업안전보건 법제도가 구축된 국가의 경우는 법제정 이후 개정 주기 및 속도가 국가별로 상이함.
2	2016	국가별 안전관련 트렌드 변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 안전 관련 동향은 2005년부터 국제협력센터에서 매월 파악하여 발간하고 있으며, 국가별 안전 관련 정책은 특집호의 주제로 다루고 있음.
3	2016	업종별로 하나의 주제를 추가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 주요 산업, 업종의 분포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활동의 영역이 상이함. 업종 외 국가별 주요 산업 등을 고려한 홍보전략이 필요함에 따라 설문내용 등을 수정
4	2017	주요국의 중장기 정책 동향에 대한 요약 및 번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안전보건동향지를 통해 미국, 영국 등의 안전보건정책 요약본 제공
5	2017	산재예방 관련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연구공모가 필요
6	2017	재해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서에 의견 전달
7	2017	최신의 안전보건 동향 및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안전보건동향지를 통해 수요부서에 최신 안전보건 동향 전파

구분	년도	건의내용	개선 유무 및 내용
8	2017	동향을 분야별로 검색 가능하게 요청	• 국제 안전보건동향 모음집 제공(목차 등에 분야별 분류)
9	2017	국내 재해사례와 유사한 해외 사례 및 대처	• 국제 안전보건동향지를 통해 수요부서에 해외 사례 등을 보급
10	2018	선진국 안전보건동향 지속 및 최신 안전보건법령 및 가이드	• 국제 안전보건동향 최신화 및 고도화
11	2018	재해사례에 대한 다양한 대책 및 방안	• 사업부서와 협업하여 재해사례 예방대책 공유
12	2020	해외 체류 중인 전문가들의 현장성 있는 정보제공	• 국외 공무파견자 및 유관기관 발간 자료를 통해 정보 수집
13	2020	각 국가별 안전보건 담당 홈페이지 사이트 안내	• 홈페이지 담당부서에 의견 전달
14	2020	제조업관련 내용 및 산재예방 활동 등을 추가	• 국제 안전보건동향지에 제조업 관련 주제 선정
15	2020	안전리더십,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ISRS 등의 정보	• 국제 안전보건동향지에 주제 선정에 활용
16	2020	안전보건교육 관련, 최신 교육 방식(VR), 트렌드 등을 제공	• 교육사업 담당부서와 협업하여 안전보건교육관련 최신 트렌드 주제 선정
17	2020	보건 분야, 개인 건강에 대한 지식제공 요청	• 사업부서에 의견 전달
18	2020	공단 월간지와의 통합하는 것이 필요	• 공단 월간지와 발간목적 및 성격이 상이함. •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통합 검토

2. 국제협력 대상국 및 안전보건 전문기관 등과 체결한 기술협력협정

1) 국외기관과의 기술협력협정 개요

(1) 사업의 정의

국외기관 기술협력협정은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단의 전문기술력 및 국가 위상 제고와 유관기관 간 협정 체결을 통한 벤치마킹 등 조직 역량과 전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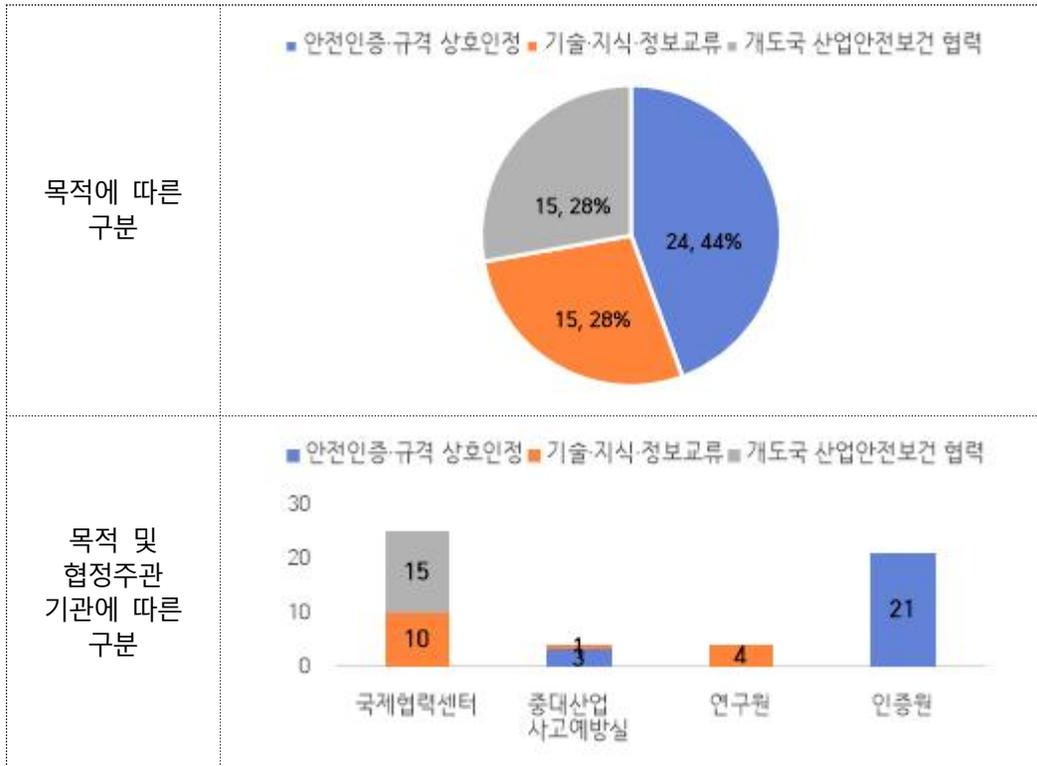
(2) 체결 분야 및 주관기관 현황

국외기관과의 기술협력협정은 개발도상국 안전보건협력, 기술·지식·정보교류, 안전인증·안전규격 상호인증으로 구분함.

'20년 체결기관을 목적별로 분류한 결과, 인증·규격 상호인정(24개, 44.4%), 기술·지식·정보교류(15개, 27.8%), 개도국 산업안전보건 협력(15개, 27.8%)으로 분포되어 있음. 공단 전체 54개 중에서 국제협력센터는 개도국 산업안전보건 협력(15개), 기술·지식·정보교류(10개) 등 25개 기술협력협정을 주관하고 있음.

〈표 II-4〉 기술협력협정 체결분야 및 주관기관 현황

(기준년도 : 2021년)



출처 : 2021년도 국외협정 운영계획, 안전보건공단, 2021

주관기관	계	안전인증·규격 상호인정	기술·지식·정보 교류	개도국 산업안전보건 협력
국제협력센터	25개	-	10개	15개
중대산업사고예방실	4개	3개	1개	-
연구원	4개	-	4개	-
인증원	21개	21개	-	-

(3) 국외 기술협력협정 현황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 또는 기관과 안전인증 및 규격 상호인정(13개국 24개 기관), 기술·지식·정보교류(10개국 15개 기관), 개도국 안전보건협력(10개국 15개 기관)을 체결중임.

- 안전 인증 및 규격 상호인정 체결의 경우, 영국(6건), 독일(4건), 네덜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각 2건 등을 체결중임. 기술지식정보교류 체결 현황의 경우, 미국(3건), 영국, 프랑스, 일본과 각 2건 등을 체결중임. 개도국 안전보건 협력 체결현황의 경우, 베트남이 4건으로 가장 많으며, 몽골(3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등의 국가와 각 1건씩 체결중임.

〈표 II-5〉 국외 기술협력 협정현황



출처 : 2021년도 국외협정 운영계획, 안전보건공단, 2021, 재구성

2) 개발도상국 안전보건협력

(1) 사업목적

아시아 산업안전보건 중심기관으로서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개도국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해예방 지원을 목적으로 함.

(2) 주요사업 및 절차

ILO-KOREA사업 지원을 위한 아·태사무소 지원인력 파견 및 안전보건 협력사업과 개발도상국 안전보건 기술자문 및 대상국 안전보건 전문가 초청연수 등을 시행함.

대상국(기관)의 수요에 따라 현지 방문 및 기술지원 실시, 심화과정 운영 등 요청에 따라 국내로 초청하여 안전보건연수 실시

〈표 II-6〉 개발도상국 안전보건 상생협력 추진절차



출처 : 2021년도 국외협정 운영계획, 안전보건공단, 2021, 재구성

(3) 추진현황 및 추진사례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개도국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활동

- 영상 제작 및 회의 등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기술자문은 개도국 정부 한 국사무소에 대한 교육 지원 등으로 대체(건설안전, 화학물질 안전 과정 등을 영어 및 대상국 언어로 자막제작). 영상을 통해서 국내 이주근로자

안전보건 증진 홍보 및 협업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15개 개발도상국과 안전보건협력을 추진중임.

▪ 개발도상국 안전보건협력 : 협정사례1 몽골

협정주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과 몽골의 전문검사총국(GASI) 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협정국가	몽골(general agency for specialized inspection, GASI)
협정기간	2010.9.3~2019.11.11
협정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양국의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몽골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양국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협력범위 : 훈련을 위한 전문가 교환, 컨설팅, 세미나 및 연구와 기술·정보자료의 교환 등 • 이행 : 양 기관은 적극적 협력을 바탕으로 협력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협력은 상호 협의하며, 간행물 및 자료를 교환할 수 있으며, 상호 합의에 의해 연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함. • 재원 : 본 계약에 따른 상호 협력에 필요한 비용은 양 당사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례별로 논의 및 배분하며,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공식 방문할 경우, 방문 당사자는 자신의 항공료를 부담하고 개최자는 숙박비, 교통비, 식비를 부담하며, 방문 횟수와 기간은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함. • 연락 : KOSHA와 GASI는 본 약정으로 실행 전반에 걸친 커뮤니케이션과 조정을 위한 접촉 지점을 지정함. • 이행기간 : 본 약정은 서명시 효력이 발생하며 3년간의 유효기간을 갖게 되며, 이행기간은 상호 합의에 따라 갱신할 수 있음.

▪ 개발도상국 안전보건협력 : 협정사례2 베트남

협정주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과 베트남 노동부(MOLISA) 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협정국가	베트남(The Ministry of Labo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of Vietnam, MOLISA)
협정기간	2018.10.4~2021.10.4

협정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베트남(MOLISA)의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MOLISA와 KOSHA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양국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협력범위 : 상호 관심 주제에 대한 훈련 및 자문을 위한 전문가 교환, 베트남의 산업안전 및 보건에 대한 훈련 활동, 훈련 장비 제공 및 기술·정보자료의 교환 등 • 이행 : 양 기관은 협정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은 시행전 상호 협의를 통해 수립 • 자원 : 본 계약에 따른 상호협력 비용은 건별로 고려하여 배분하며, 본 합의서의 어떤 내용도 양 당사자의 재정적 범위나 약속을 정하지 않음. • 수정 : 본 계약은 양 기관의 사전 승인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가능 • 연락 : 본 계약의 효과적인 협력을 이행하기 위하여 베트남 노동안전부, 노동부, 사회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각 접촉 지점으로 지정함 • 이행기간 : 협력의 이행기간은 2018년 10월 4일부터 2021년 10월 4일까지 이며 상호 동의하에 연장할 수 있음.
-------------	---

▪ 개발도상국 안전보건협력 : 협정사례3 베트남

협정주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과 베트남 국가산업안전보건연구원(VNNIOS) 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협정국가	베트남(Viet Nam 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협정기간	2015.4.13~2018.4.12
협정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한국산업안전공단과 VNNIOSH의 협업을 촉진하고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연구를 개선하고 정보를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락 : 합의의 범위 내에서 연구 계획 및 기타 협력 논의를 위해 연락 담당자를 지정 • 협업의 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교환(보호장비 및 PPE 그리고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계획된 연구 프로젝트) b: 과학적 심포지엄 및 학술회의 구성, 활동지원 및 출판물 c: 연구인력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인력의 상호교류 d: 간행물을 출판하거나 교환 e. 양기관이 합의한 다른 형태의 협력 f. 양기관은 단계를 위한 협력 계획을 세우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 : 양 기관은 출장 및 인건비뿐만 아니라 기타 부수적인 비용도 책임지며, 공동사업이 발생함에 따라 이들 사업에 대한 재무적 총당부채는 별도로 규정함. • 종료 : 본 협정은 반대한 기관에 대한 서면 통지 2개월 이내 어느 한 조직이든 해지할 수 있으며, 종료시 상대방측 공인 서명인에게 종료 통지를 발송함. • 수정 및 논쟁 : 본 계약은 양 기관의 사전 승인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분쟁이나 질문은 조직 간의 상호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함. • 이행기간 : 본 협정은 2021년까지 양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함.
--	---

▪ 개발도상국 안전보건협력 : 15개 기관(2021년 기준)

번호	주관부서	국가	기관명	체결내용	체결기간
1	국제센터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MoLVT)	•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	2010.3.17~ 2022.12.9
2	국제센터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MLSW)	•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	2010.7.5~ 2021.2.21
3	국제센터	말련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IOSH)	•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	2019.8.26~ 2024.8.25
4	국제센터	몽골	노동사회복지부(MLSP)	•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	2003.9.~ 2024.5.21
5	국제센터	몽골	국가전문감독원(GASI)	•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	2010.9.3~ 2022.5.20
6	국제센터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	•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	2012.10.21~ 2021.10.4
7	국제센터	베트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VNNIOSH)	•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	2012.11.7~ 2021.12.5
8	국제센터	베트남	보건부(MOH)	• 산업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	2016.7.13~ 2019.7.12
9	국제센터	베트남	산업안전보건원(SOSHI)	•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	2019.12.12~ 2021.12.11

번호	주관부서	국가	기관명	체결내용	체결기간
10	국제센터	인도	안전협의회(NSCI)	•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	2012.9.20~ 2022.9.7
11	국제센터	인니	인력부(MOM)	•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	2010.10.14~ 2020.12.27
12	국제센터	미얀마	노동이주인구부(MLIP)	•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	2014.2.7~ 2021.2.21
13	국제센터	태국	노동복지보호청(DLPW)	•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	2013.1.22~ 2023.6.25
14	국제센터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	•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	2010.8.30~ 2019.8.29
15	국제센터	몽골	노동사회복지부(MLSP) 한국지사	•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	2020.9.25~ 2022.9.24

3) 기술·지식·정보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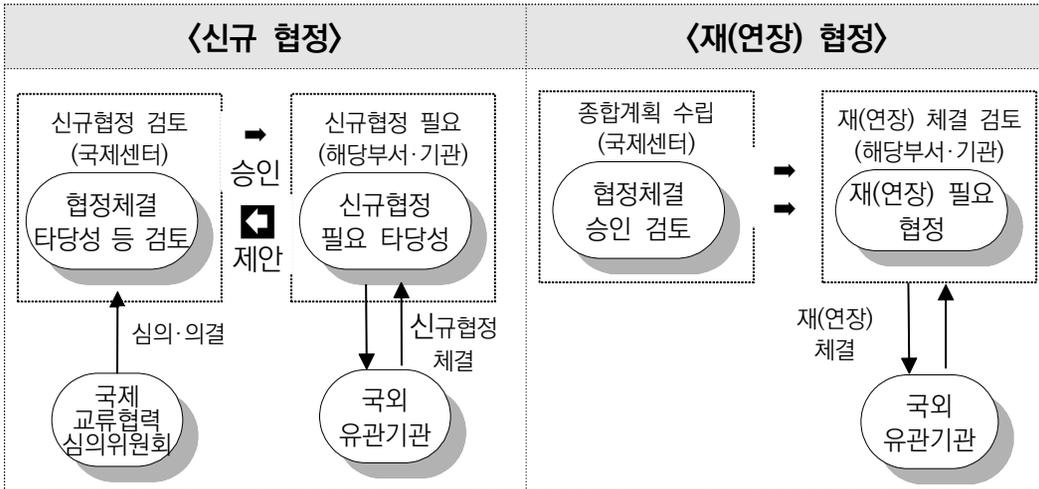
(1) 사업목적

국외 안전보건 유관기관과 기술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 협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사업 및 절차

국외 유관기관의 요청 또는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이 있을 경우 국제교류협력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추진됨. 국제협력센터는 협정체결 승인 및 실적관리 등 전반적인 협정관리를 하며, 해당부서는 체결된 협정을 바탕으로 협력사업 추진 등 협정 운영을 담당함.

〈표 II-7〉 협정체결 방법·절차



출처 : 2021년도 국외협정 운영계획, 안전보건공단, 2021

(3) 추진현황 및 사례

국제협력센터와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연구원, 교육원 3개 산하기관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개도국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활동.

- 영상 제작 및 회의 등 비대면 전환, 기술자문은 개도국 정부 한국사무소에 대한 교육 지원 등으로 대체(건설안전, 화학물질 안전 과정 등을 영어 및 대상국 언어로 자막제작)
- 국내 이주근로자 안전보건 증진 홍보 및 협업 추진

2021년 기준 15개 개발도상국과 안전보건협력을 추진중

- 기술·지식·정보교류 : 협정사례1 독일

협정주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과 독일의 법정재해보험기구(DGUV) 간의 기술협력 협정
협정국가	독일(the Deutsch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DGUVI)

협정기간	2021.6.24~2024.6.24
협정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본 협약은 KOSHA와 DGUV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양국의 산업안전보건 역량을 제고하고 양국 사업장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협력범위 : 본 약정은 상호 협력을 촉진하며, i)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교류 ii)상호 관심주제에 대한 공동 연구 활동, iii)교육훈련의 공동 개발 및 조직, iv)기술정보 및 자료교환과 상호합의에 따라 협력하는 범위의 변경 가능 • 이행 : 양 기관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본 문서에 규정되지 않은 분야는 상호 합의에 의해 논의되고 이행되며, 정기적으로 시행 계획을 수립함. • 재원 :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발생한 작업이나 비용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의무나 약속은 간주되지 않으며, 본 약정의 틀 안에서 취한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개시 당사자가 부담함. • 연락 : KOSHA와 DGUV는 범위 내에서 협력의 연락과 조정을 위한 접점을 지정함. • 이행기간 : 본 약정의 서명일부터 3년간이며, 상호 동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음.

▪ 기술·지식·정보교류 : 협정사례2 프랑스

협정주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과 프랑스 산업안전보건연구원(INRS) 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협정국가	프랑스(the 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 et de Sécurité pour la prévention des accidents du travail et des maladies professionnelles, MOLISA)
협정기간	2018.8.30~2021.8.30
협정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본 협약은 KOSHA와 INRS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양국의 산업안전보건 역량을 제고하고 양국 사업장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협력범위 : 본 약정은 상호협력을 촉진하며, i)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교류 ii)상호 관심 주제에 대한 공동 연구 활동, iii)교육훈련의 공동 개발 및 조직, iv)기술정보 및 자료교환, v)산업안전 및 보건관련 회의 및 주요 이벤트 참여 • 이행 : 양 기관은 협정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은 시행전 상호 협의를 통해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 :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발생한 작업이나 비용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의무나 약속은 간주되지 않음. • 수정 : 본 계약은 양 기관의 사전 승인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가능 • 연락 : 본 계약의 효과적인 협력을 이행하기 위하여 각 접점을 지정함 • 이행기간 : 본 협정은 3년간 지속되며,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통지하여 중단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수정될 수 있음.
--	---

▪ 기술·지식·정보교류 : 협정사례3 말레이시아

협정주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과 말레이시아 국가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협정국가	말레이시아(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
협정기간	2015.4.13~2018.4.12
협정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한국산업안전공단과 NIOSH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산업안전보건 위상을 제고하고 양국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것 • 연락 : 합의의 범위 내에서 연구 계획 및 기타 협력 논의를 위해 연락 지점을 지정 • 협력범위 : 교육 및 컨설팅, 세미나/워크숍 등의 전문가 교류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정보 및 자료의 교환 등 • 재원 : 상호협력 비용은 건별로 고려 및 배분되며, KOSHA의 예산 내에서 사용 가능한 비용을 제공할 수 있음. • 수정 및 논쟁 : 본 계약은 양 기관의 사전 승인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분쟁이나 질문은 조직 간의 상호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함. • 이행기간 : 협력의 이행기간은 약정 서명일로부터 5년간이며, 상호 인정시 연장할 수 있음.

▪ 기술·지식·정보교류 : 15개 기관(2021년 기준)

번호	주관부서	국가	기관명	체 결 내 용	체결기간
1	중대사고 예방실	미국	화학사고조사위원회 (CSB)	• 화학물질 누출사고 원인조사 예방 및 연구	2006.11.15. ~계속
2	연구원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 산업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MRA)	2002.10.23. ~계속
3	연구원	일본	노동위생총합연구원 (JNIOH)	• 산업안전보건연구에 관한 정보교류,공동연구 추진	2006.11.10. ~2021.4.3
4	연구원	싱가포르	산업안전보건연구원 (WSHI)	•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	2011.4.29 ~2021.9.1
5	연구원	아일랜드	유럽재단 (Eurofound)	• 제6차 유럽근로환경 조사 상호 협력	2015.4.1 ~2020.3.31
6	국제센터	독일	재해보험조합 (DGUV)	•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	2011.5.2 ~2021.6.15
7	국제센터	미국	산업안전기술자협회 (ASSP)	• 산업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MRA)	2015.3.12 ~2024.4.1
8	국제센터	스페인	과학예방문화체험관 (CPC)	• 체험관 건립·운영에 관한 업무협력 협정	2017.11.2 ~2024.10.27
9	국제센터	영국	산업안전보건협회 (IOSH)	•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	2019.4.1 ~2024.3.31
10	국제센터	일본	중앙노동재해방지 협회(JISHA)	• 산업안전교육분야 기술협력 협정	1998.5.25 ~계속
11	국제센터	영국	국제 위험 및 안전 관리협회(IIRSM)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협력협정	2013.4.30 ~2025.7.30
12	국제센터	홍콩	직업안전건강국 (OSHC)	•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	2013.5.23 ~2022.3.20
13	국제센터	프랑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INRS)	•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	2015.6.3 ~2021.8.30
14	국제센터	프랑스	산재보험기관 (EUROGIP)	•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	2020.9.2 ~2025.9.1
15	국제센터	오스트리아	근로자보상위원회 (AUVA)	•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	2021.2.10 ~2026.2.9

4) 안전인증 및 공동규격 상호인정

(1) 사업목적

중복심사 시험방지를 통한 심사효율성 향상과 국제동향파악 및 국외 안전인증 확인심사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2) 주요사업

안전인증 확인심사 등 연간 320회 내외 실시 및 전문가 그룹 기술토론회 실시, 시험성적서 인정을 통한 국내 안전인증서 발급

(3) 추진현황 및 사례

안전인증·공동규격 상호인정을 확대중이며, 유럽과의 협정이 83.3%를 차지하고 있음.

- KCs 및 S마크와 유럽규격에 따른 심사 상호 인정
- 방폭방호장치, 보호구 등에 대한 상호 인정

2021년 기준 13개국, 24개 기관과 안전인증 및 공동규격 상호인정을 협약중.

- 안전인증 및 공동규격 상호 인정 : 협정사례1 SGS

협정주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과 SGS Baseefa, Ltd. 간의 제품인증 협력
협정기관	영국회사(SGS Baseefa, Ltd. 전세계 2,600개 이상의 사무실과 93,000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
협정기간	2019.4.26~2022.4.26
협정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위, 권한과 책임 : 본 협약은 폭발하기 쉬운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제품 인증에 대하여 IECEx Scheme범위에서 인정된 EXTL-EXCB임. Baseefa는 European Union Directive 94/9/EC에 따라 영국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인증기관이고, KOSHA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p>KCs mark 인증 수행에 대하여 한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인증기관임. 양기관은 방폭기기 판매를 위한 법적 요구사항을 만족하여 해당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범위 : 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할 수 있는 모든 서류는 유지되며, 누설되지 않도록 함. • 분쟁해결 : 협정의 적용, 해석 또는 시행과 관련된 분쟁은 우호적인 해결방법으로 해결하며,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에 적용되는 법률은 해당 당사기관의 국가 법률로 함. • 유효기관과 종료 : 양기관은 상대기관에 30일 전에 정당한 종료 사유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공지하여 협정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본 양해각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적용하며, 상호 동의하에 3년 후 재검토와 갱신을 함.
--	---

▪ 안전인증 및 공동규격 상호 인정 : 협정사례2 DEKRA

협정주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과 DEKRA 간의 제품인증 협력
협정기관	독일회사(DEKRA. 60개국에 44,000명의 직원으로 구성)
협정기간	2019.7.15~2022.7.15
협정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원칙 : 본 협정은 방폭안전을 위한 협력 및 경험을 교환하기 위해 방폭분야의 인증 및 시험에 대해 공식적인 협력관계를 설립 및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적용범위 : 양 기관은 상대 기관에서 발생한 품질관리 시스템 평가 및 상호 공인된 사양과 기술기준에 따라 시험한 시험 성적서를 인정함. • 비밀유지 : 양 기관은 업무수행 중 취득한 시험데이터, 시험결과, 다른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함. • 제한 및 예외 : 양 기관은 독립된 계약자이며, 본 협정서에 의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양기관은 상대기관을 대신할 어떠한 책임, 의무 또는 권한을 갖지 않음. • 협정종료 : 만약 상대기관에서 30일 이내에 교정할 수 없는 위반을 하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하여 종료할 수 있음. • 협정유효기간 : 본 협정서는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적용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서면합의에 의해 추가로 3년 연장이 가능함.

▪ 안전인증 및 공동규격 상호 인정 : 협정사례3 APAVE

협정주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과 CETE APAVE SUDEUROPE,(APAVE)간의 제품인증 협력
협정기관	프랑스 기업(APAVE, 전세계 130개 지사에 12,400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
협정기간	2008.6.6~2010.6.6
협정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원칙 :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산 제품의 평가 및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APAVE(고시기관)와 협력하여 테스트 및 감사를 KOSHA에 의해 사전 검증됨.관계를 설립 및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범위 : PPE에 정의된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개인보호장비, 산업용 덮개 높이에서 추락하는 것에 대비한 개인 보호장비, EU 의 PPE 지침의 호흡기 보호장비, PPE 산업안전보건법의 호흡기 보호장비, 안전장치 등 • 기밀유지 : 양 기관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cnlerm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함. • 종료: 어느 한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하고 30일 이내에 이러한 위반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어느 당사자는 30일 서면 통지로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음 • 분쟁해결 : 적용, 해석 또는 시행과 관련하여 양기관 사이에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은 우선 우호적인 해결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며, 본 협정에 적용되는 법률은 분쟁이 발생한 국가의 법률에 따름. • 유효기간 : 본 MOU는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날부터 발효되며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만료 30일 전에 상대방에서 서면 통지로 해지하지 않는 한 미확정 기간으로 연장됨.

▪ 안전인증 및 공동규격 상호 인정 : 24개 기관(2021년 기준)

번호	주관부서	국가	기관명	체 결 내 용	체결기간
1	중대사고 예방실	노르웨이	DNV사	• KOSHA 18001 프로그램과 OHSAS 18001 규격 기준 공동인정 협정(MRA)	1999.12.2 ~계속
2	중대사고 예방실	영국	표준협회(BSI)		1999.6.28 ~계속
3	중대사고 예방실	영국	BVQI재단		2000.11.17 ~계속

번호	주관부서	국가	기관명	체 결 내 용	체결기간
4	인증원	노르웨이	전기·전자기계기구 검정원 (NEMKO)	• 방폭검정시험 성적서 상호인정	1994.5.24 ~계속
5	인증원	네덜란드	전기시험소 (DEKRA)	• 방폭분야 상호인정	2010.2.25 ~2022.6.12
6	인증원	네덜란드	KIWA사	• S마크, 압력용기분야에 상호업무협력	2011.5.23 ~2021.11.30
7	인증원	독일	Tuv Rhienland	• KCs 및 S마크와 유럽규격에 따른 심사 상호인정	1997.9.19 ~2022.9.12
8	인증원	독일	연방물리연구원 (PTB)	• 방폭전기기기 및 인증분야 상호기술협력(MRA)	2002.5.13 ~2021.11.30
9	인증원	독일	Tuv Nord	• 방폭분야 상호인정	2009.6.24 ~계속
10	인증원	독일	Tuv Sud	• KCs 및 S마크와 유럽규격에 따른 심사 상호인정	2010.5.10 ~2022.4.29
11	인증원	러시아	방폭인증기관 (CCVE)	• 방폭안전인증분야 상호인정	2006.6.8 ~계속
12	인증원	스웨덴	전기전자제품 시험인증기관 (SEMKO AB)	• S마크 분야 상호인정	2007.9.14 ~계속
13	인증원	스위스	종합검사인증기관 (SGS)	• KCs, S마크 및 SEMI 평가 업무협력 양해각서	2002.12.4 ~2021.11.30
14	인증원	영국	Amtri-Veritas사	• S마크와 CE마크 업무협력양해각서, 인정	1997.5.12 ~2021.11.30
15	인증원	영국	SGS Baseefa사	• 방폭분야 상호인정	2009.6.22 ~2022.4.26
16	인증원	영국	Sira사	• 방폭분야 상호인정	2009.6.22 ~계속
17	인증원	영국	Lloyd Register	• 압력용기분야 상호인정	2011.11.11 ~계속
18	인증원	일본	산업안전기술협회 (TIIS)	• 방폭구조기기, 보호구 및 S마크인증협력	2003.9.23 ~2021.11.30
19	인증원	중국	상해자동화 계측기기 시험검사소 (SITIIAS)	• 방폭안전인증분야 협력	2004.2.5 ~계속

번호	주관부서	국가	기관명	체 결 내 용	체결기간
20	인증원	체코	공학시험연구원 (SZU)	• S마크, 인보호구(안전모)분야 상호인정	2012.7.27 ~2022.6.7
21	인증원	프랑스	국립산업환경평가연구원(INERIS)	• IEC 한국 및 유럽규격에 따른 시험능력 인정	2007.10.17. ~계속
22	인증원	프랑스	압력용기및전기장 치검사협회 (APAVE)	• 개인보호구(안전대, 호흡용보호구) 상호 인정협정	2008.6.6. ~계속
23	인증원	캐나다	QPS 서비스	• 방폭분야 상호인정	2010.5.6. ~2022.4.26
24	인증원	호주	안전기술시험소 (TestSafe Australia)	• IEC 한국 및 호주규격에 따른 시험능력 인정	2007.4.26. ~계속

3. 유관기관 사업내용 분석

1) 유관기관 사업내용 분석 배경

공단 국제협력사업과 유사한 유관기관의 사업내용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영역의 활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함. 국내 국제협력사업의 대표적인 4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담당자 FGI를 통해서 다양한 분석을 수행함.

- 분석대상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KDI, KOTRA, KOICA의 국제협력사업단이며, 각 기관의 사업배경, 조직구성,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의 분석을 진행함.
- 또한, 국제협력사업 담당자 FGI를 수행하여 유관기관의 인력현황, 사업추진방향, 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의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함.

2)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교류협력사업

(1) 사업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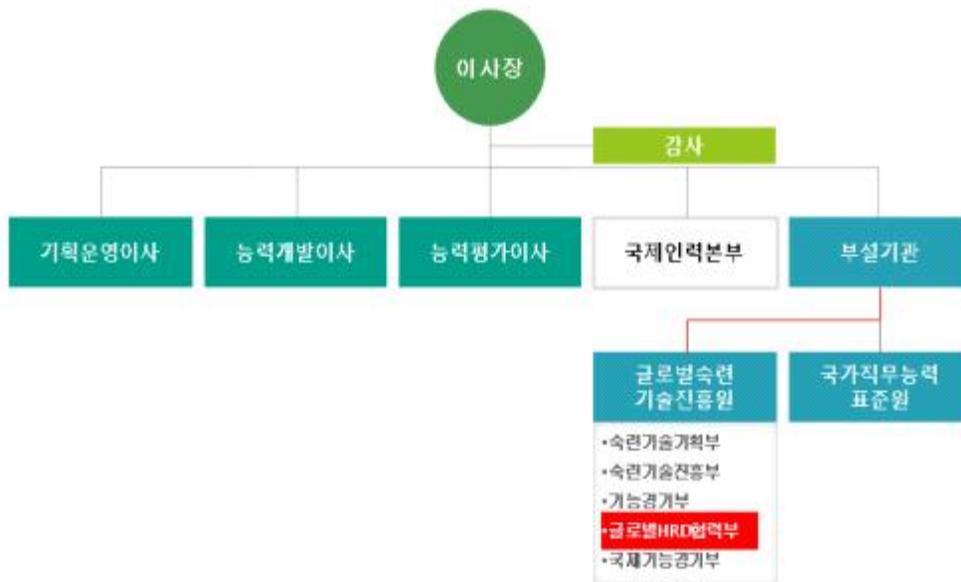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제교류 협력사업은 HRD 분야의 국가간 협력을 통해 선진국의 우수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우리의 우수한 제도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함을 목적으로 함.

- 국제 HRD분야 우수 제도 및 정보 교류를 통한 우리나라 인적자원 개발분야 발전 도모, 국제 교류협력을 통한 국가 간 우호 증진 및 공단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제고함.
- 또한,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분야 정보 교류 및 우리나라의 인적자원개발 분야 발전 경험 및 노하우의 개발도상국 전수

(2) 조직구성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이사/ 1감사/ 1본부 13실·국/56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로벌 HRD협력부는 독자적인 부설기관의 형태로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 부속되어 있음.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그림 II-2] 한국산업인력공단 조직도

글로벌HRD협력부의 구성원은 총 9명(부장1, 차장2, 과장3, 대리2, 주임1)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주요업무 및 직급은 다음의 <표 II-8>과 같음.

〈표 II-8〉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HRD 협력부 조직구성 및 업무

부서	직급	인원	주요업무
글로벌HRD 협력부	부장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HRD정책책임자 초청 워크숍 등 국제행사 주관 • 국제교류협력사업 제도 개선 • 국가 간 자격상호인정사업 •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ILO, APEC 등) • 국가 간 교류협력사업 • 직원 해외출장 관련 통계, 제도개선 업무 총괄 • 국제 HRD 용역 사업 및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 사업 수행 • 해외 숙련기술전수 및 전수프로그램 개발
	차장	2	
	과장	3	
	대리	2	
	주임	1	

(3) 주요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글로벌HRD협력부의 사업은 국제교류협력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구분되며, 5개의 세부 사업이 추진중.

- 국제HRD위탁사업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이념에 한국의 기본 정신을 반영하여 우리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국 수요 맞춤형 인적자원개발 콘텐츠를 지원함.
- 외국인 초청연수는 외국의 직업훈련교사 및 관리자, 고용노동교육관련 공무원 등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관련분야 이론 실기 전문가들의 강의 및 실습을 통해 해당국에 필요한 한국의 직업훈련분야 전문성 및 노하우 등을 전수함.
- 국가 간 교류협력은 중국, 베트남, 독일, UAE 등 주요 협력국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과의 전문가 파견 및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함.
-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이를 통해서 공동의 프로그램 수행 및 국제회의 참가 등을 통하여 인적자원개발 분야 발전을 도모
- 국가 간 자격상호인정은 이를 통해서 자격의 구체적 통용성 확보 및 우수 기술 인력의 해외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함.

▪ 국제 HRD 위탁사업

본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산업화 과정에서 축적한 직업훈련, 자격검정 등 인적자원개발(K-HRD)분야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의 신흥개발도상국들이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ADB 등 차관자금에 의한 직업교육 훈련 개편사업을 추진함.
- 개발도상국들의 HRD를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개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간 우호를 증진하고 공단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제고함.

본 사업은 KOICA, EDCF, 고용노동부의 발주사업을 위탁하여 진행하는 위탁사업형태의 성격을 가짐.

- KOICA의 공적자금원조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지원하며 보통 중소기업 프로젝트 5백만 불 미만으로 제공되며, 우간다 직업훈련센터건립 PMC용역사업 등이 있음.
- 수출입은행의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인프라 건설 등에 장기 저리차관을 제공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니카라과 직업훈련원 리모델링 사업들을 예로 들 수 있음.
- 기타 베트남 고용법 정책제언 용역사업 등 고용노동부 발주사업과 오만 인적자원개발 초청연수사업 등 자체 개발 사업을 진행함.

현재 KOICA와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위탁사업이 진행중에 있음.

- KOICA의 위탁사업으로 ‘한-이라크 직업훈련원 2차 지원사업’이 14억 원 규모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중이며, ‘우즈베키스탄 직업훈련 제도역량 공고화 지원사업’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억원(총 49억원) 규모로 진행중에 있음.
- 고용 노동부 위탁사업으로는 ‘페루의 개도국 정책자문사업’이 9천만원 규모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중에 있음.

▪ 외국인 초청연수

개발도상국의 직업훈련교사 및 교육 관련 공무원 등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관련 분야 이론·실기 전문가들의 강의, 실습 등을 통해서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것을 의미함.

- 연수대상은 직업훈련교사 및 관리자, 공무원, 기능경기 선수 및 심사위원 등 인적자원개발 분야 관계자로 함.
- 연수분야는 직업훈련제도 및 관리, 정책자문, 자격검정, 기능경기, 기계, 자동차 등의 30개 직종을 대상으로 함.
- 연수기간은 교육에 따라서 평균 1주~1년의 기간으로 함.

초청 연수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II-9〉 외국인 초청연수 세부사항

구분	기술분야	행정·정책분야
연구과정	자동차, 산업설비, 건축, 기계, 전자 등	직업훈련제도, 국가기술자격제도, 교과과정개발 등
연수기간	2주~12개월	1주~12개월
연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이론·실기 • 훈련장비 사용법 • 신기술 연수 • 현장실습(OJT) • 산업체 시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제도 및 정책 개발 • 직업훈련기관 운영 •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및 정책 수립 • 자격검정 시행 절차 및 방법 • 직업훈련기준 개발 • 노동시장 분석 • 교과과정 개발 등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외국인 초청연수는 최근 3년간 평균 150명의 개발도상국 HRD분야 관계자를 초청 및 교육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총4개 과정, 159명), 2019년(총9개 과정, 195명), 2018년(총8개 과정, 97명)의 초청연수를 시행함.

〈표 II-10〉 2020년도 외국인 초청연수 실적

연번	교과명	기간	인원(명)
1	개도국 기능경기 온라인 멘토링(시범)	20.6.8.~7.3.	9
2	개도국 기능경기 온라인 멘토링	20.7.21~12.18	45
3	과제해결형 기능전수 프로그램	20.9.1~11.30	6
4	기능올림픽 관리자 역량강화 온라인 세미나	20.11.24~25	135

▪ 국가간 교류협력

국가 간 교류협력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우수 제도와 정보교류 및 인적자위개발의 경험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

- 중국, 베트남, 독일 등의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자격검정, 직업훈련, 기능 경기 등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파견 및 상호 교환 방문

〈표 II-11〉 국가간 교류협력 추진실적

협력 국가	추진실적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취업서비스, 능력개발사업 및 기능경기 지식공유 워크숍('18, 2회) • 기능경기 지식공유 워크숍 및 한-중 교류협력 20주년 기념행사 개최('19, 2회)) • 한-중 원격훈련 온라인 지식공유 워크숍('20.12)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평가 및 자격검정 지식공유 워크숍('19.5) • 베트남 기능경기 역량강화 초청연수('19.4-6)) • 베트남 국가기술자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사전 워크숍('20.10)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GIZ 공동 주최 ASEAN국가 대상 마스터 훈련교사 초청연수('17-'19) • 유네스코 TVET 전략 공유 및 UNEVOC 회원국 간 네트워크 구축('18) • 공단-GIZ 합동 워크숍 및 GIZ개최 국제전문가회의 참가·주제발표('19.1)

협력 국가	추진실적
UA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E, 오만 등 GCC 기능경기 협력사업 활성화 워크숍('19.3) • UAE 국가자격청(NQA) 대상 한국 국가자격체계·NCS공유('19.5) • UAE 국가자격청(NQA) 대상 NCS-KECO(한국고용직업분류) 공유('20.12)
몽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 기능훈련지원 전문가 파견('19.6) • 한-몽 기능경기전문가 합동 워크숍 개최('19.12) • 개도국 직업훈련분야(기능경기) 역량강화 사업 온라인 멘토링('20.6~12)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EAN+3 HRD포럼 인사 초청('17-'19) • 국가자격서비스, NCS개발개선사업 온라인 지식공유 워크숍('20.12)

또한, 다양한 국가 및 기관들과 MOU를 체결을 통한 협력강화를 진행함.

〈표 II-12〉 국가간 교류협력 추진실적

협력 국가	기관	협력분야	활용현황
중국	취업훈련기술지도센터(CE TTIC)(99.10.12/19.11.2 갱신)	국제협력	• 한-중 교류협력 정례 워크숍 개최
베트남	직업훈련총국(DVET) (19.11.6)	국제협력	• 베트남 자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추진
독일	국제협력원(GIZ) (14.3.27)	국제협력	• 한-독 개도국 공동지원사업
UAE	직업기술청 ACTVET (12.12.10)	국제협력	• 자격, 기능경기 분야 한-UAE협력
브라질	브라질국가산업훈련서비스 (SENAI)(15.8.14) 리우산업연맹(FIRJAN) (19.4.25)	국제협력	• 중남미 직업훈련관계자 역량강화 세미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선수 합동연수 지원 등
국제기능 올림픽	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WSI) (18.1.29)	기능경기	• 개도국 국제기능올림픽 관리자 초청연수 등

▪ 국제기구와의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프로그램 수행 및 국제회의 참가 등을 통해서 개발 도상국의 경제발전에 기여

- World Bank(세계은행)와는 신탁기금 설립에 관한 MOU체결(2012.10)에 따라 아태지역 인적자원개발 경험 창출 및 전수를 위한 ASEAN+3HRD포럼(연 1회), 웨비나(월 1회)를 개최하여 역내 능력개발 분야 플랫폼을 구축함
- ASEAN과는 한·아세안 정상회의(2017.11)성과사업으로 아세안 연계성 지원 TVET신규사업 추진 및 아세안 이동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프로젝트에 공동수행기관으로 참여
- APEC의 회원국 대상 공단 자체예산사업을 수행중이며,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회의에 참가하여 사업 경과보고 및 CBN(능력개발분과)회의 참가, 신규사업 제안 등을 수행
- ILO와는 '03.10 특별기술협력사업 MOU를 체결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연간 15억원을 분담금 형식으로 지원하며, 직업훈련, 산업안전, 노동이주, 정책자문 등을 수행
- 기타 유네스코 국제직업훈련센터(UNESCO/UNEVOC)의 한국센터로 지정('07.11) 및 세계 최초 '18.1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WSI) 역량강화센터로 지정됨.

〈표 II-13〉 국제기구와의 협력추진 현황

기간 : 2019~2020년

사업	연도	추진실적	실적
WB	2019	공단-WB 제5회 아세안+3 HRD포럼 공동개최	123명
	2020	공단-WB 제6회 아세안+3 HRD포럼 공동개최	183명
ASEAN	2019	유관기관간 실무협의를 통해 사업 담당 기관 조정	-

	2019	제17차 ASEAN+3 고용노동분야 고위관리회의(SLOM+3) 참석	-
	2020	아세안 이동성을 위한 한-아세안 직업기술교육훈련 협력사업 참여 -CLMV 국가의 TVET 분야 국가자격체계(NQF) 및 훈련품질(QA) 역량 강화	-
APEC	2019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회의 참가	12개국 64명
	2020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회의 참가	12개국 64명
ILO	2019	한-ILO협력사업 점검·평가회의/자격평가 워크숍 참가	4개국 18명

▪ 국가간 자격상호인정

국가간 자격상호인정은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통해서 우수 기술 인력의 해외진출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일본, 중국, 베트남 등 IT분야 자격 국제통용성 확보를 통한 국가간 인적교류 추진
- 자격상호인정은 양국간 자격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것이지 한국의 자격증을 타국가의 자격증으로 발급해 주는 것은 아님.

〈표 II-14〉 IT자격상호인정 체결현황

구분	기관명(체결일자)	종목
일본	정보기술추진기구(IPA),('11.1.11 갱신)	정보처리(산업),기사 (2개)
중국	정보산업부 전자교육센터(CEIAEC),('06.1.19)	상동
베트남	정보기술센터(VITEC),('0808.29)	상동

한·일 IT자격 상호 인정은 2000년 10월 「한중일+ASEAN경제장관회의」에서 일본 통산성장관의 제의에 따라 한·일 양국간의 MOU가 체결됨.

- 양해각서는 양국의 시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JITEC(일본 정보처리시험센터)에서 주관하였으며, 이후 상호인정자격 취득자에 대한 입국 규제 완화조치로 이어짐.
- 공단에서 시행하는 일본 취업전제 IT연수생 모집 시 협약된 자격취득자를 우대함.

한국과 중국은 '05.12월에 정보통신부 결정을 통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중국의 정보산업부 전자교육센터와 실무합의를 추진하였으며, '06.1.19일 상호인정 자격협정을 체결함.

한국과 베트남은 '08.8월에 IT자격 상호인정 협약을 양국의 시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VITEC(베트남훈련시험센터)주관으로 체결함.

〈표 II-15〉 한·일 IT분야 상호인정 자격종목

구분	국가	상호인정 자격내용	비고
상호인정 종목	한국-일본	정보처리기사 - 응용정보기술자	명칭면경
		정보처리산업기사 - 기본정보기술자	-
		정보기기운용사 - 초급시스템 어디미니스트레이터	폐지
	한국-중국	정보처리기사 - 소프트웨어 설계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프로그래머	-
	한국-베트남	정보처리기사 - 소프트웨어개발기사(SW)	-
		정보처리산업기사 - 기본정보기술자(FE)	-

3)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1) 사업의 목적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국제개발협력센터(CID)는 개발도상국, 체제전환국 등 각국과 경제발전경험을 공유하고 이들에 대해 정책 설계 및 집행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고자 설립됨.

- 이를 위해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동시에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 및 민간부문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개발협력을 추진
- 더불어 각 지역과 분야별 정책에 대한 심층연구를 실시하고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구부원장의 3부와 경영부원장의 3센터로 이원화된 조직구성을 갖춤.

출처 : KDI 홈페이지



[그림 II-3] KDI 조직구성

(2) 조직구성

국제개발협력센터는 소장 이하 3실 7팀의 62명으로 구성되며 실별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음.

- 정책자문실은 KSP기획, 정책자문사업 기획 및 관리와 후속·연계사업 발굴을 주요 업무로 하며, 총괄운영팀과 성과관리팀으로 구성됨.
- 기획평가실은 국제개발협력센터 제반 업무 기획 및 총괄업무를 담당하며, KSP기획 및 성과평가·모니터링을 주요 업무로 하고 정책자문 1, 2, 3팀으로 구성됨.
- 개발연구실은 국제개발협력 분야 주요 연구과제 기획·수행과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개발협력사업 기획·수행을 주요 업무로하며, 정책연구팀과 글로벌파트너십팀으로 구성됨.

〈표 II-16〉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조직구성 및 업무

실(3)	팀(7)	인원	주요업무
기획평가실	실장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개발협력센터 제반업무 기획 및 총괄 • KSP 기획 및 성과평가·모니터링
	총괄운영팀	4	
	성과관리팀	6	
정책자문실	실장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P 기획, 정책자문사업 기획 및 관리 • 후속·연계사업 발굴
	정책자문1팀	6	
	정책자문2팀	6	
	정책자문3팀	5	
개발연구실	실장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개발협력 분야 주요 연구과제 기획·수행 •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개발협력사업 기획·수행
	정책연구팀	6	
	글로벌파트너십팀	4	

(3) 주요사업

KDI 국제개발협력센터는 개발도상국, 체제전환국 등 각국과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이들에 대해 정책 설계 및 집행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함.

이를 위해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기획 수행하며, 국제기구 및 민간 부문과 파트너십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각 지역과 분야별 정책에 대한 심층연구와 정기적인 컨퍼런스 및 세미나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함.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KSP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맞춤형 정책 제언을 제공하는 지식기반 개발협력사업으로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기회를 모색하여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에 기여함.

- 2004년 출범 이후 전세계 70개 이상의 국가와 KSP를 통해 협력하고 있으며, 2010년 G20 서울정상회담 개최, 2011년 부산개발원조총회 개최 등을 추진함.
- KSP 주관부서인 기획재정부는 부문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사업 총괄 기관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수출입은행(K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현재 이를 수행하고 있음.

출처 : KDI 홈페이지



[그림 II-4] KSP 사업구성

KSP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3가지 협력방식과 5개의 사업유형으로 추진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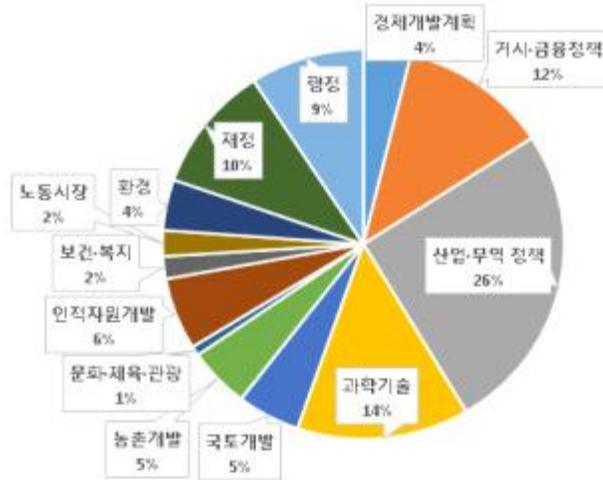
〈표 II-17〉 KSP 협력방식

협력방식	사업유형(수행기간)	내용
정책자문 사업	정책자문(1년)	• 현지조사 및 공동연구를 통해 실천적인 정책대안 도출
	역량강화연수(1주·2주)	• 협력국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정책 기획·실행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기회 제공
	정책자문관 파견(6~12개월)	• 한국 전문가를 협력국에 파견하여 정책 개선 및 이행 지원
공동컨설팅 사업	정책자문(1년)	• 정책대안의 효용성을 제고하고자 국제기구의 지역전문성과 KSP의 정책전문성을 연계
사례연구	사례연구	• 발전경험을 체계화함으로써, 지식공유를 위한 실증적인 지식콘텐츠 창출

KSP는 협력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분야(경제정책, 사회정책, 공공부문 개발)의 공동연구 수행 및 정책자문을 제공

- 경제정책분야는 경제개발계획, 거시·금융정책, 산업·무역정책, 과학기술, 국토개발, 농촌개발, 문화·체육·관광으로 구분됨.
- 사회정책분야는 인적자원개발, 보건·복지, 노동시장, 환경, 기타 사회정책으로 구분됨.
- 공공부문개발은 재정과 행정분야로 구분됨. 분야별 사업 현황의 경우, 산업·무역정책(25.6%), 과학기술(13.9%), 거시금융정책(12%), 재정(10.5%), 행정(9.2%) 등의 순서로 추진되고 있음.

〈표 II-18〉 KSP 분야별 사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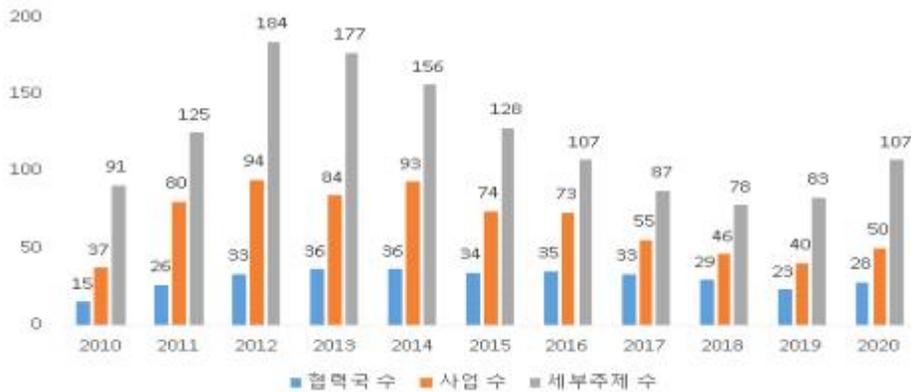


출처 : KSP(경제발전공유경험) 홈페이지

- KSP는 2012년을 기점으로 2019년까지 하향추세에 있지만 이후 협력국, 사업, 세부과제 등의 모든 영역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19〉 KSP 연도별 사업현황

(단위: 건)



출처 : KSP(경제발전공유경험) 홈페이지

▪ 국제개발협력연구

국제개발협력 연구는 수월성 높은 연구로 실천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KDI의 연구방향성에 맞춰 개발협력 정책의 질적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수행됨.

- 국제사회의 경제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한국 개발협력의 정책개선을 지원하고, 나아가 주요 분야와 지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함. 초기 조건이 상이한 협력국의 개발환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개발협력사업의 추진을 지원하는 지역·국가의 심층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과정에서 축적된 정책적 지식을 체계화하고, 협력국의 특수한 환경에 활용 가능한 지식자산으로 가공하여 협력국의 개발과제 해결을 지원함. 이상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국제학술회의 및 전문가 포럼 등 관련 분야의 국내외 연구자 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개발협력 분야의 학문적·경험적 지식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

〈표 II-20〉 국제개발협력 연구 주요실적

주요연구실적
• 한국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제도의 20년 평가 및 개발협력과 연계방안
•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 Sharing Knowledge Sharing the Future 2018
•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한 한국과 개발도상국 간 개발협력 방안, 2018
• 민간-공공 개발협력 파트너십의 현황과 과제, 2018
• 개발협력 전략연구: 미얀마 인프라 사업을 중심으로, 2017
• 지역별 발전현황 진단 및 KSP 추진전략 연구, 2017

▪ 글로벌 파트너십

글로벌 파트너십은 협력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세계은행과의 ‘지식협력사업’, 한국국제협력단과의 ‘미얀마개발연구원(MDI) 설립사업’, 유엔개발계획과의 ‘에티오피아 개발계획수립 사전연구’ 등 지식기반의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함. 그 외에도 아프리카 개발은행, 아시아재단,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등 주요 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해왔으며, 국제학술회의 등을 통해 글로벌 개발협력의 논의와 실천을 선도하고 있음.

〈표 II-21〉 글로벌 파트너십 주요사업 실적

사업명	협력기관	주요내용
라틴아메리카와의 한국 인프라서비스 지식공용 및 연구사업(2019)	미주개발은행(I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IDB Flagship보고서의 일환으로 한국의 스마트 인프라 사례 공동연구 수행 • 폐기물·교통에너지·수자원 인프라 관련 ICT기술 우수사례 및 주요성과 시사점 공유
UAE 수출금융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2017)	UAE정부(ADF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석유 부문 수출금융제도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 • 아부다비개발기금(ADFD) 이사회의결을 통해 수출금융부서 설립 추진
에티오피아 개발계획 수립 사전연구(2017)	유엔개발계획(UN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티오피아 국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정책분야에 대한 사전연구수행

▪ 컨퍼런스 및 세미나

KDI가 주관하는 국제회의로 전문가들의 공청회 및 토론회를 기획하고 진행을 꾸준히 추진

- 2020년의 경우 5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2~3개의 컨퍼런스 및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수행함. 기획재정부 또는 KDI주관으로 수행되며, 프로그램, 영상자료 및 발표자료 등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됨.



[그림 II-5] 국제개발협력센터 컨퍼런스 사례

4) KOTRA 국제개발협력

(1) 사업의 배경

KOTRA의 국제개발협력의 목적은 협력국의 경제·사회 개발지원과 협력국과 상생발전 및 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서 우리기업 및 제품의 해외진출 확대를 목적으로 함.

(2) 조직구성

2015년 UN총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채택을 계기로 사회개발, 경제개발, 환경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KOTRA는 6본부 32실 5센터 4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개발협력사업은 경제통상협력본부 산하의 개발협력실에서 추진됨.

출처 : KOTRA 홈페이지



[그림 II-6] 코트라 조직구성

KOTRA의 국제개발협력업무는 경제통상협력본부의 개발협력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총 구성 인원은 12명으로 구성되며 주요 업무는 다음 <표 1-1>과 같음.

<표 II-22> KOTRA 개발협력실 조직구성 및 업무

부서	직급	인원	주요업무
개발협력실	실장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협력실 업무 총괄 • 기획예산 및 KSP/EIPP 기획 • EIPP 사업총괄 및 수행 KSP, 미래전략수립 전담반 • 통상연계형, 경험사업, CSR, KSP • 실 서무 및 통상연계경험, CSR 사업지원 • 해외 CSR/ 다문화무역인 육성사업 • KSP, EIPP 예정산 관리 및 KSP 자문 등
	외	11	

(3) 주요사업

KOTRA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한-베 통상연계경제협력사업, 글로벌CSR+ESG사업의 세가지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은 한국의 개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에 맞춤형 정책제언을 제공하는 지식기반 개발협력사업으로 협력국과 국제사회의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함.

- KSP사업은 KOTRA 등 총괄·수행기관이 발주하는 정책자문 사업에 전문 연구진 또는 컨설턴트로 참여하거나 KOTRA가 수행하는 KSP연계사업(기업간담회, CSR, 기술학교) 등에 참여함. KSP사업의 협력방식은 정책자문사업과 공동컨설팅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됨.

〈표 II-23〉 KSP 사업의 협력방식 유형

협력방식	사업유형(수행기간)	내용
정책자문사업	정책자문(1년)	• 현지조사 및 공동연구를 통해 실천적인 정책대안 도출
	역량강화연수(1주~2주)	• 협력국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정책 기획·실행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기회 제공
공동컨설팅사업	정책자문(1년)	• 정책대안의 효용성을 제고하고자 국제기구의 지역전문성과 KSP의 정책전문성을 연계

KSP의 사업절차 및 수행현황은 다음과 같음.

- 1단계 : 추진전략 수립 - 지역/국별 연구 타당성 조사
- 2단계 : 사업계획 - 사전협의, 사업기획서작성 및 연구진 구성
- 3단계 : 사업수행 -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 현지세미나 및 최종보고
- 4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 자문평가위원회 및 보고서 발간위원회 운영 등
- 5단계 : 성과확산 - 홍보 및 성과 확산

〈표 II-24〉 2020/2021 국가별 KSP 정책자문 수행현황

국가	내용
몽골	• 한국의 스마트 물류 및 운송 부문 정책 경험공유
베트남	•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제도 운영개선 방안 수립
파키스탄	• 중소기업 발전 및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방안
케냐	•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관리방안
브라질	• 니테로이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
쿠바	•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방안
벨라루스	• 관세청 업무효율화 증진방안
모잠비크	•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시스템 구축 지원
에콰도르	•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시스템 구축 지원

▪ 한국-베트남 통상연계경제협력사업

한국-베트남 통상연계경제협력사업은 베트남의 경제발전, 시장개발 등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상생협력 사업으로, 발전전략 컨설팅, 인력양성, 네트워크 구축 등 경제·통상 이익 증진을 위한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함.

- 2015년 발효된 한국-베트남 FTA 이행약정에 의거해 추진되며,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서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 시작됨.
- 주된 사업유형으로는 정보교환, 기술지원, 제도 및 시스템 구축지원 및 공동사업을 수행함.
- 제조, 산업기술, 농업, 수산업, 임업 등의 산업협력 확대와 원산지, 통관절차, 지식재산권, 표준/기술 규정 등의 무역규칙 합리화 및 공정경쟁, 투자, 중소기업 육성 등의 경제 운영시스템 합리화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수행함.

발굴 사업 선정기준은 사업의 합목적성 및 분야의 적합성, 현안의 시급성 및 정책적 중요성과 통상애로 해소 기여 기능성 및 교육 증대 기여 가능성 등을 우선순위로 검토하여 진행됨.

〈표 II-25〉 한-베 통상연계경제협력사업 추진현황

년도	과제명	주요내용	베트남 협력부처
2020	베트남 에너지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통합적 가스·전기안전 관리시스템 개선 로드맵 마련 및 선진 에너지관리 시스템의 현지 이전을 위한 역량강화 실시	산업 무역부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 확산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종합 가이드북 발간, 국내·현지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과학 기술부
	베트남 농수산물 국내시장 진출 활성화 전략수립	베트남 주력 수출 농수산품의 한국 유통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전략 제시	산업 무역부
	베트남 무역구제 예보시스템 구축	무역구제 예보시스템 설계안·모형에 맞추어 PC기반 시스템 구축 및 관리자 매뉴얼 교육	산업 무역부

▪ 글로벌 CSR+ESG 사업

글로벌 CSR+ESG사업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진행하는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나아가 친환경, 코로나 19 등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과 협력국의 수요를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사업임.

- 또한, 기업이 현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기업의 인지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유관기관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사업의 유형은 동반성장형 CSR사업과 상생지원형 ESG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유형별 사업을 추진중.

〈표 II-26〉 글로벌 CSR+ESG 사업의 유형별 사업내용

사업 유형	서비스 유형	주요내용
동반 성장형 CSR	A형: 자사 제품·서비스 체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자사제품 또는 서비스를 현지 사회에 기부 • (S사는 치약 기증 및 치아관리 교육을 통해 중국시장의 신뢰 구축)
	B형: 해외 기술·경영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기업·기관이 보유한 기술 노하우를 신흥국과 공유 • (N사는 의료 관계자를 대상으로 주사바늘 처리기의 기능과 활용법을 소개하며 시장입지제고 및 수출기반을 확보)
	C형: 상생가치 창출형 CS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현지 사회에 지속적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돕는 상생가치 창출 사업 • (K사는 잠재적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기업가정신, 브랜딩 디자인 교육을 진행하며, 현지의 청년 사업가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창출)
상생 상생 지원형 ESG	D형: 유휴장비 신흥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기관·기업이 '시험·인증', '연구개발', '공공서비스', '제품생산' 등을 위해 사용했던 유휴장비를 수리하여 신흥국에 기증하고 산업 표준 및 운영 경험을 공유(K사는 콜롬비아에 전기전자시험장비 12종을 제공하며 운영 및 유지관리 노하우도 함께 전수함으로써 콜롬비아 인증 취득이 가능)
	E형 : Green Initia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 절감 제품, 친환경 제품 및 관련 기술, 인증제도, 친환경 서비스 등을 현지 수요가 있는 기업 또는 기관에 제품 기부 및 기술전수 지원
	S-C형 : 국내 다문화 무역인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인(결혼 이주민, 유학생 등) 중에서 어학 능력 및 자격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여 무역 전문가로 육성
	S-H형 : 의료·보건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의 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구호 물품 및 의료용품을 지정 국가에 기부 및 구호 활동 지원, 의료기술 전수, 의료장비 이전 등
	G형: 기업윤리경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기업·기관 대상 ESG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CSR 동향 및 정보 확산 온라인 세미나 개최, 해외 CSR Best Practice 성과 공유 보고서 제작배포, 국내외에서 CSR 활동이 우수한 우리기업 포상

- 신청대상 및 접수시기
 - A형, B형, C형, E형, S-H형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신청제한이 있으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신청가능 기업들과 공동 추진 시에만 사업비를 지원함.
 - D형 사업은 우리기관·기업의 해외 자회사 또는 현지 법인도 참가가능
 - 고용창출 우수기업, 사회적 기업/소상공인, 지방소재기업 등에는 각 5점씩 가산점이 부여됨.
 - 동반성장형 CSR은 상·하반기 각 1회(단, 사업 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시행되며, 상생지원형 ESG는 지역본부 및 무역관 발굴 사업으로 수시로 모집이 진행됨.
- 지원내용
 - 기부 제품 운반보관비 및 소요 기자재 구입비, 외부 강사 항공료/체재비/강의료, 콘텐츠 제작비 등의 비용과 제품 기부 행사 개최 등 지원
 - A형, B형 최대한도 1,500만원, C형 2,000만원, D형 5,000만원
 - E형, S-H형 최대한도 운반보관비 일반 의약품, 환경 관련 물품 500만원
 - 의료기기 및 환경 관련 장비 1,000만원
 - 콘텐츠 제작비 500만원 등이 지원됨

5) KOICA(한국국제협력단)

(1) 사업의 배경

우리나라는 여러 부처에서 추진해오던 대외무상원조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1991년 4월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설립되었으며, 한국국제협력단법(법률 제4313호)을 따름.

- KOICA는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기술환경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국별협력사업, 글로벌 프로그램 해외긴급구호 등의 다양한 개발협력사업

을 시행하고 있으며, 설립 이래 2018년 기준 177개국에 약 7조 2,897억 원의 ODA자금을 투여함.

(2) 조직구성

KOICA는 6본부 2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사무소(1개소)와 해외사무소(44국, 44사무소, 1분 사무소)로 조직되어 있으며, 515명(2021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음.

출처 : KOICA 홈페이지



[그림 II-7] KOICA 조직도

(3) 주요사업

'21년도 KOICA의 사업 예산규모는 8,536억원의 양자간사업으로 총 699개 사업을 추진예정임 있음.

- 5대 중점분야와 3대 범분야

KOICA는 5대 영역 사업분야와 3개 범분야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ODA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교육 사업은 개도국 교육분야의 주요 도전과제인 기초학력부진, 성별격차, 직업역량 부족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양질의 기초교육과 직업기술 교육관련 사업을 추진함.
- 보건의료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개발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서 다각적 노력을 기울임.
- 공공행정 사업은 협력대상국의 공공행정 분야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KOICA 5대 중점지원 분야로 선정하여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위해 추진함.
- 농림수산 사업은 세계 경제 불안정과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량 감소로 식량과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경제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바 농업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추진중.
- 에너지 사업은 협력국가들의 전력현황과 에너지 목표 수립을 위해 SDGs 등의 '에너지 추진전략(2016년~2020년)'을 수립하여 국가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교통 사업은 한 국가의 경제활동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혈관 역할을 하며 경제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교통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협력국의 체계적인 교통발전과 포괄적인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중.
- 과학은 SDGs의 모든 목표에 걸쳐서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바 개도국 내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ODA사업에서의 과학기술혁신을 추진함.
- 에너지 사업은 협력국가들의 전력현황과 에너지 목표 수립을 위해 SDGs 등의 '에너지 추진전략(2016년~2020년)'을 수립하여 국가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환경 사업은 신기후 체제에서는 개도국도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해야하므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최빈국 및 군소도서국에 대한 적극적 지

원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함.

- 성평등 사업 등 단순히 여성의 지위 향상뿐 아니라, 개발협력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새로운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고 개도국의 성평등 달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함.
- 인권·평화 사업은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분쟁 및 폭력에 대응뿐 아니라 배제와 불평등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원인 제거를 목표로 지속적 평화 실현요소를 반영하고 평화 관점에 기반한 협력사업을 추진함. 특히, 5대 영역중 안전보건과 관련된 분야는 다음의<표 1-1> 같음.
-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은 안전보건공단의 사업영역과 유사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보건공단의 국제협력업무를 위해 참고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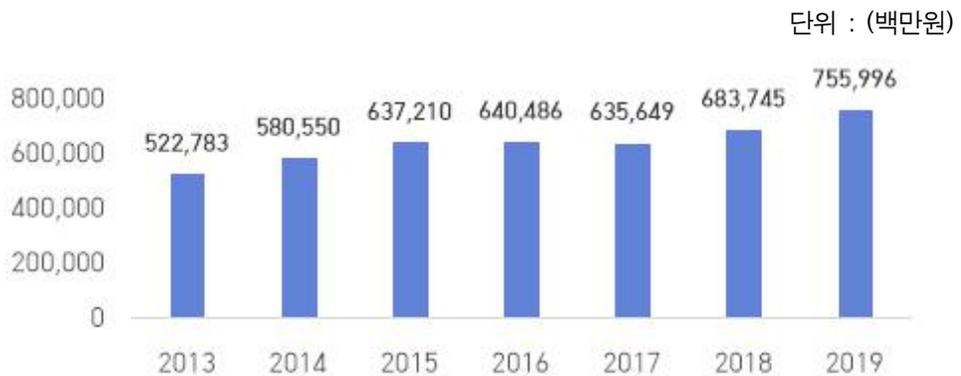
〈표 II-27〉 KOICA 사업의 전략목표와 주요 프로그램 예시

분야	전략목표	주요프로그램
교육	양질의 교육	• 기초학력증진 및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최약계층의 포용적 교육	• 여성, 장애인, 재난 및 분쟁지역 교육접근성 제고
	직업기술교육	• 직업기술교육 시스템강화 및 기술교육 모델 구축
보건의료	식수위생 개선 및 포괄적 영양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 안정적인 식수공급, 위생적인 화장실 보급, 주민주도 통합위생사업 등
	청소년 및 보건서비스 제공	• 가족계획 상담 및 산전/출산/산후관리 서비스 등
	질병예방 및 치료서비스 제공	• 감염병역학조사, 예방, 진단 및 재활 프로그램 등
공공행정	행정서비스의 효과성 향상	• 공무원 교육훈련 제도개선, 전자정부를 통한 행정 서비스 효과성 제고
	정치·행정 체제의 책임성 향상	• 지방행정 역량강화 및 감사역량 강화를 통한 부패 방지 및 부명성 향상

분야	전략목표	주요프로그램
	법·제도의 포용성 향상	• 사업 부문의 역량강화를 통한 법치주의 증진, 시민권·사회권 보장

- 우리나라는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 매년 2차례의 ODA통계보고 및 확정치를 발표함.

〈표 II-28〉 KOICA 사업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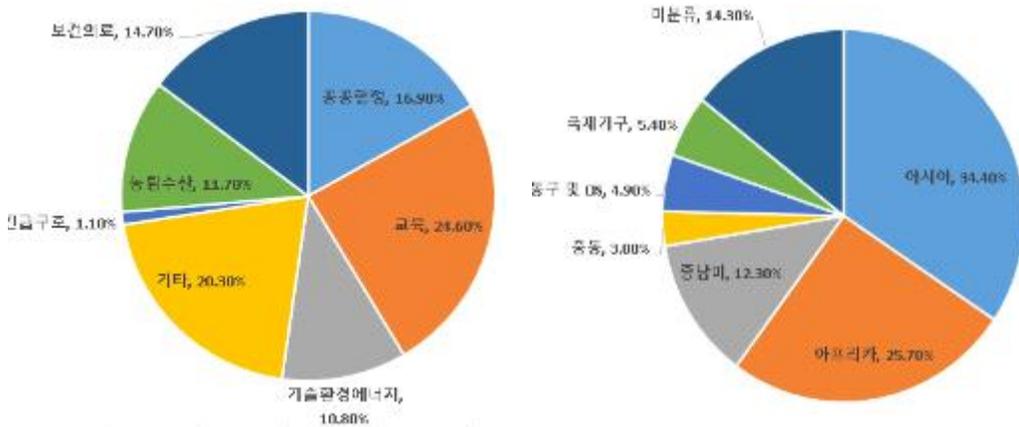
출처 : KOICA 홈페이지

국제협력사업의 분야별 지원 내역은 교육(24.6%), 공공행정(16.9%), 보건 의료(14.7%)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국제협력사업의 지역별 추진 현황은 아시아가 34.4%로 가장 높으며, 아프리카(25.75), 중남미 (12.3%), 국제기구 (5.4%)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

▪

〈표 II-29〉 KOICA 사업 세부추진내역

단위 : (2019년 기준, %)



출처 : KOICA 홈페이지

▪ ABC프로그램

ABC프로그램은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 코로나 19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협력 전략인 ‘Building Trust’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는 개발협력을 통한 코로나 19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임.

- G20 정상회의 코로나 19 공동선언문 이행에 따른 한국의 경험·기술과 개도국 수요를 연계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개발협력 전문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됨.
- Agenda for Building resilience against COVID-19-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의 개발협력을 통한 코로나19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임.

〈표 II-30〉 ABC 프로그램 추진개요

프로그램	Response (2020~2021)	Resilience (2022~2024)
보건의료 취약국 지원 (Action on Frag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 진단키트 지원 - 국산 진단키트 지원 •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 글로벌 보건기구 협업 기반 치료제·백신개발 촉진 • 취약계층 인도적 수요 긴급지원 - 긴급대응 및 취약계층 생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기술 자체역량 확보지원 - 개도국 감염병 진단 역량강화 • 치료제·백신 공급 지원 - 글로벌 보건기구 협업 통한 치료제·백신공급 지원 • 취약계층 포괄적 복원력 강화 - 보건·경제·사회 회복 지원
개도국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Building Capac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기술 자체역량 확보지원 - 개도국 감염병 진단 역량강화 • 치료제·백신 공급 지원 - 글로벌 보건기구 협업 통한 치료제·백신공급 지원 • 취약계층 포괄적 복원력 강화 - 보건·경제·사회 회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예방사업 형성·기획 및 추진 - 개도국 거버넌스·정책 역량강화 • 감염병 탐지사업 형성·기획 및 추진 - 인력개발·실험실 및 감시체계 역량강화 • 감염병 대응사업 형성·기획 및 추진 - 다분야 합동대응 및 위기관리 역량강화
한국 경험 활용 글로벌 연대 강화 (Comprehensive Coope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감염병 대응 경험 연구 - 코로나 대응 한국사례 연구 및 공유 • 코로나 극복 세계시민연대 강화 - 온라인 기반 세계시민교육 및 애드보커시 • 국내 혁신기술 발굴 및 확산 - 국내외 청년 및 소셜벤처 혁신기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융합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 한국 경험 프로그램 내재화 도모 • 세계시민연대 글로벌 플랫폼 활성화 - 감염병 대응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 국내 혁신기술 활용 개도국 지원 - 국내 혁신기술기반 감염병 대응 사업 추진

Ⅲ. 사업 및 조직진단



Ⅲ. 사업 및 조직진단

1. 국제협력센터 사업영역 진단

1) 공단 국제협력사업 연혁

(1) 공단의 설립

1980년대까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나,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국가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던 산업현장의 많은 근로자들이 사고를 당하고 직업병을 앓는 등의 문제 발생함.

국가차원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부족과 기업의 이윤 극대화 전략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분야에 대한 투자 미흡, 열악한 작업환경과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보건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을 1987년 12월 고용노동부 산하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설립, 산업현장에 산업안전보건기술을 지원하여 재해예방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공단 설립 초기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제도와 체계가 미약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였음. 선진외국의 산업재해예방 기술을 습득하여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사업장에 효율적으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2) 공단 국제협력사업의 변천 과정

공단은 창립 이후 외국 안전보건 전문기관과 기술 및 정보교류 증진을 통하여 재해예방 기술력 향상과 산업안전보건 국제화에 기여하여 왔음. 공단의 국제협력사업의 변천 과정은 5개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음. 공단은 2017년에 ‘공단 30년사’를 발간하였는데, 해당 자료에 국제협력사업의 변천을 5개 시기로 구분하고 있음.

〈표 Ⅲ-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사업의 변천과정

구분	연도	내용
기술 수혜기	1988~1995년	• 외국으로부터 수혜받은 선진기술 활용
기술 도입기	1996~2000년	• 협정에 의한 기술도입 기반 마련
호혜 협력기	2001~2005년	• 아시아 개발도상국 안전보건 기술지원 • 국제유관기관과 공동연구 및 장기연수
외연 확장기	2006~2012년	• 2008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개최 • 개발도상국 협력사업 본격 실시 •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및 활성화
협력 고도화	2013년~현재	• ISSA 예방문화위원회 설립 및 의장기관 역할 수행 • 2015 국제산업보건대회 개최 • KOICA 협력사업 대규모 프로젝트 실시

출처: 안전보건공단 30년사

공단의 첫 번째 국제협력사업 시기는 ‘기술 수혜기’임. 공단은 창립 초기, 산업안전보건의 기술력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선진 외국과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했으며, 독일 및 일본과 국가 간 협력사업을 통해 짧은 기간에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발전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음.

공단의 두 번째 국제협력사업 시기는 ‘기술 도입기’임. 공단은 초기부터 독일 및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 재해예방 선진국과 각종 협정을 맺어 협력사업을 추진함.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독일재해보험조합, 영국안전보건연구원, 일본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등 세계적인 재해예방 전문기관 및 단체, 국제노동기구, 국제사회보장협회, 세계보건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표준화기구, 아시아태평양산업안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영국 안전보건청, 독일 연방노동사회성 등 정부기관과도 활발한 재해예방 기술교류사업을 추진하였음. 많은 국외 유관기관과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인적교류 및 정보교류를 강화함으로써 공단의 기술력 향상 및 산재예방사업의 효율화에 기여함.

〈표 III-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외국기관과 주요협정체결 현황

기준년도 : 2017년

안전보건 및 공동규격 상호인정 : 24개 기관

번호	기관명	체결내용	체결기간
1	노르웨이 DNV		1999년 12월 2일~계속
2	영국 표준협회(BSI)	KOSHA 18001과 OHSAS 18001 규격 공동인증 협정(MRA)	1999년 6월 28일~계속
3	영국 BSI계단		2000년 11월 17일~계속
4	영국 BSI계단	방폭분야 상호인정 협정	2009년 6월 22일~2019년 4월 25일
5	영국 BSI	방폭분야 상호인정 협정	2009년 6월 22일~계속
6	영국 Lloyd Register	방폭분야 상호인정 협정	2011년 11월 10일~2018년 4월 7일
7	스웨덴 전기전자제품 시험인증기관 (SEMKO AB)	안전보건분야 상호인정 협정	2007년 9월 14일~계속
8	스위스 국제반도체 제조협회(SIG)	S-Mark 및 SEME 평가 업무협력 양해각서	2002년 12월 4일~2018년 11월 7일
9	노르웨이 전기 - 전자기기평가 규격협회(NEMKO)	방폭인증시험 형식서 상호인정 협정	1994년 4월 22일~계속
10	영국 Amtec-Veritas	S-Mark과 CE마크 업무협력 양해각서, 인정 협정	1997년 5월 12일~2018년 11월 7일
11	네덜란드 전기시험소(DEBRA)	방폭분야 상호인정 협정	2013년 2월 25일~2019년 6월 5일
12	체코 공학시험연구소(CTI)	방폭분야 상호인정 협정	2009년 4월 21일~2019년 6월 8일
13	이탈리아 KWA CERMET	압력장치 및 산업용 기계류에 상호업무협력 협정	2011년 5월 23일~2018년 11월 7일
14	러시아 방폭인증기관(KCCEB)	방폭인증분야 상호인정 협정	2016년 6월 8일~계속
15	독일 TÜV Rheinland	방폭분야 상호인정 협정	2016년 10월 12일~2018년 10월 11일
16	독일 뮌헨물리연구소(MIB)	방폭전기기기 및 오존분야 상호기술협력 협정(MRA)	2002년 5월 13일~2018년 11월 7일
17	독일 TÜV Nord	방폭분야 상호인정 협정	2009년 6월 24일~계속
18	독일 TÜV Süd	방폭분야 상호인정 협정	2010년 9월 10일~2019년 5월 9일
19	프랑스 국립산업환경평가연구소(INEP)	EC 한국 및 유럽규격에 따른 시험능력 인정	2007년 10월 17일~계속
20	프랑스 압력용기및전기장치검사협회(APAVE)	개인보호구 상호인정 협정	2008년 6월 8일~계속
21	중국 상하이동작 제어기기 시험연구소(SH IPE)	산업안전보건분야 양해각서	2004년 2월 5일~계속
22	일본 산업안전기술협회(TSE)	방폭구조전기기기평가 및 S-Mark 인증 기술협력 협정(MRA)	1999년 11월 25일~2018년 11월 7일
23	호주 안전기술시험소(TecSelo Australia)	방폭인증분야 상호인정 협정	2007년 4월 26일~계속
24	캐나다 QPS ABLS	방폭분야 상호인정 협정	2013년 5월 6일~2019년 4월 29일

기술·자식·정보교류 : 14개 기관

번호	기관명	체결내용	체결기간
1	독일 재해보험조합중앙회(DGLV)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	2011년 5월 2일~2018년 10월 28일
2	프랑스 직업의료보험공단(CNAMTS)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	2013년 9월 30일~2019년 11월 28일
3	국제 위험발안전문협회(RISM)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한 협력 협정	2013년 4월 30일~2020년 3월 20일
4	총공 직업안전보건국(OCH)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	2013년 5월 23일~2019년 5월 22일
5	프랑스 산업안전보건연구원(FRQ)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	2015년 6월 3일~2018년 6월 2일
6	미국 산업안전기술자협회(ASSE)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MRA)	2015년 3월 12일~2018년 3월 11일
7	유럽재단(Eurofoundation)	재난사 유럽근로환경조사 상호협력	2015년 4월 2일~종료 시까지
8	영국 안전보건연구원(HL)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한 협정(MRA)	2000년 6월 12일~2014년 2월 27일
9	이탈리아 산업재해보상연구원(INAIL)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한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증진	2015년 2월 27일~2018년 2월 26일
10	일본 노동위생총합연구소(INOSH)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한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증진	2000년 11월 10일~2018년 3월 24일
11	싱가포르 산업안전보건연구원(WSH)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	2011년 4월 29일~2019년 5월 31일
12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MRA)	2012년 10월 23일~2018년 10월 22일
13	미국 화학사고조사위원회(CCHA)	화학물질 누출사고 원인조사 예방 및 연구	2000년 11월 15일~계속
14	일본 중앙노동재해보상협회(CCHA)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	1998년 5월 25일~2017년 8월 27일

출처: 안전보건공단 30년사

공단의 세 번째 국제협력사업 시기는 ‘호혜 협력기’임. 공단은 지난 시기 동안 빠른 속도로 안전보건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축적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인정한 글로벌 안전보건 전문기관으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수준에 이룸. 2001년부터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하여 초청 연수, 공동연구, 기술자문, 현지 안전보건 인프라 구축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공단의 네 번째 국제협력사업 시기는 ‘외연 확장기’임. 공단은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들의 기관들과 협정을 체결하고 개발도상국 재해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 2003년 ILO(국제노동기구)와 특별기술 협력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매년 ILO 아태지역사무와 협력사업에 대한 의향서를 체결하여 초청연수 및 현지 기술자문 진행(2005년 14개국 14명의 관계자, 2006년 13개국 13명의 공무원 초청 연수 진행)함.

2011년부터는 ILO 아태지역 사무소에 공단 직원 파견하여 개발도상국의 안전보건 수준 개선사업 수행. 2008년 ILO 및 국제사회보장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를 유치하여 개최. 아시아·태평양 산업안전보건기구(APOSHO), 세계보건기구, 유엔환경계획 등과 협력함.

〈표 III-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개발도상국기관과 주요협정체결 현황

기준년도 : 2017년

개발도상국 안전보건 협력: 13개 기관

번호	기관명	체결내용	체결기간
1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MoLVT)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	2010년 3월 17일~2019년 12월 22일
2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	2010년 8월 30일~2019년 8월 29일
3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MLSW)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	2010년 7월 5일~2017년 11월 10일
4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MOMI)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	2010년 10월 14일~2017년 2월 4일
5	인도 안전협의회의(NCO)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2012년 9월 20일~2019년 4월 3일
6	몽골 노동사회복지부(MLSF)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	2003년 9월 1일~2018년 11월 28일
7	몽골 국가전문감독원(GAS)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	2010년 9월 30일~2019년 11월 11일
8	중국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SAWS)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체결	2010년 8월 30일~2019년 5월 22일
9	베트남 노동보호사회부(MOLISA)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체결	2012년 10월 21일~2018년 10월 20일
10	베트남 노동보호연구원(NLP)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2012년 11월 7일~2018년 4월 12일
11	베트남 보건부(MOH)	산업보건분야 기술협력	2016년 7월 13일~2019년 7월 12일
12	태국 노동복지보호청(DLFW)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	2013년 1월 22일~2019년 1월 21일
13	미얀마 노동이주연구부(MIIF)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협력 협정	2014년 2월 7일~2017년 2월 6일

※ MRA :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상호인정협정)

출처: 안전보건공단 30년사

공단의 다섯 번째 국제협력사업 시기는 ‘협력고도화 시기’임. 2015년 제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 개최, ILO 산업안전보건 국제자문기관, 국제사회보장협회 재해예방특별위원회 부의장기관, 예방문화위원회 의장기관, 아시아태평양 산업안전보건기구 기술위원회 의장기관으로 활동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재해 예방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역할 수행함.

2009년 한국정부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가입을 계기로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의 경제력에 부합하는 개발도상국 재해예방 인프라 구축 및 기술지원 요청이 증대되었고, 정부도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자금(ODA)을 2015년 0.14%(2조 3,782억 원)에서 2020년 0.20%까지 향상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공단은 이에 따라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초청연수, 기술지원, 정책자문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전

개했을뿐만 아니라, 2013~2016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베트남 노동사회보훈부와 산업안전보건훈련센터(OSHTC) 개발역량 강화사업에 참여하는 등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에서 적극적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표 Ⅲ-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수혜국 훈장

기준년도 : 2017년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수혜국 훈장 수훈
• 베트남 노동보훈복지부 수훈 (2012.11.08.)
• 몽골 정부 감독우수 훈장 수훈(2012.11.29.)
• 캄보디아 정부 훈장 수훈(2013.06.11.)
• 베트남 노동보훈복지부 장관 감사훈장 수훈 (2013.06.11.)
• 태국 노동부장관 감사패 수상 (2016.04.24.)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장관 감사패 수상 (2016.07.14.)

출처: 안전보건공단 30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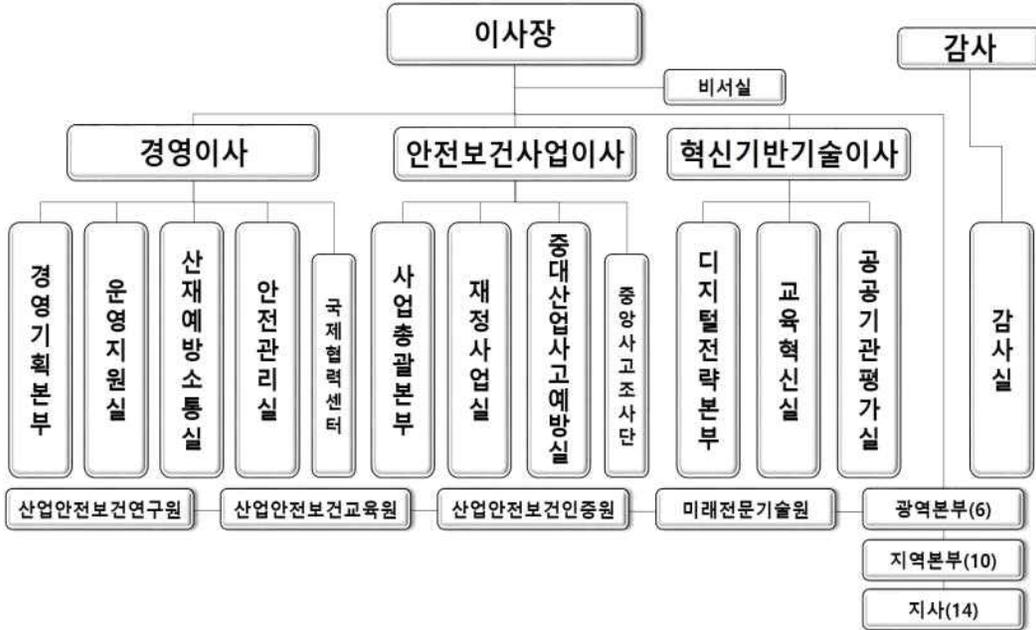
2) 국제협력센터 조직 및 업무분장

(1) 공단의 조직 및 정원

공단은 본부조직(3본부, 8실, 1단, 1센터), 연구원, 교육원, 인증원, 미래전문기술원, 광역본부(6개소), 지역본부(10개소) 및 지사(14개소)로 구성되어져 있음.

공단의 국제협력업무는 국제협력센터에서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음. 국제협력센터는 경영이사 산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 산하에 국제개발협력팀 1개로 구성되어져 있음.

출처: 업무보고자료



[그림 III-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조직도

공단의 현원은 2,094명으로 본부에 371명, 산하기관 1,723명이 근무하고 있음. 기술사 312명, 기사 1,082명, 박사 76명, 석사 445명, 전문의 5명 등 전문인력 보유하고 있으며, 공무원직은 전산, 청소, 경비, 콜센터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156명이 근무하고 있음.

국제협력센터는 소장을 포함하여 7명이 근무하고 있음. 소장 1명, 팀장 1명(국제개발협력팀), 차장 3명, 과장 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Ⅲ-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원

(단위 : 명)

구 분	계	임원	별정 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업무 직*
계	2,094	5	5	64	200	444	576	485	159	156
본부	371	5	-	14	40	97	108	13	15	79
산하기관	1,723	-	5	50	160	347	468	472	144	77

출처: 2021년 업무보고자료

(2) 국제협력센터의 업무 구성

국제협력센터에서 담당하는 국제협력사업은 4가지 주요 분야와 국외출장으로 이루어짐.

첫째, 안전보건 정보 보급 및 교류 사업의 사업목적은 국외 안전보건 지식과 정보의 국내보급을 통한 산재예방활동에 기여하고, 국내 산업안전보건 정보와 활동사례를 국외에 전파하는 것임. 최신 국제 안전보건 지식 및 정보를 '산업안전보건 동향'으로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타 사업부 및 고용노동부의 요청이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국외 산업안전보건 기술규정·제도 및 국가별 산업안전보건 제도집 발간. 안전보건 국제 교류 및 국내활동 국외전파를 위한 공단 영문연보 및 국내 주요 안전보건 정보에 대한 영문 뉴스레터 발간 및 보급함.

둘째, 국제기구·유관기관 협력강화 사업의 목적은 국외 선진재해 예방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기술·정보를 교류하고,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과의 협정체결을 통한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것임. 국외 안전보건 유관기관 28개국 51개와 협정 체결하였으며, 국내 기업의 국외 수출지원을 위한 방호장치 및 보호구 상호인증 협정체결함. 협정체결 기관과 인적·물적교류를 통한 전문역량을 강화함. 또한,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재해예방특별위원회

부의장기관,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예방문화위원회 의장기관,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재해예방특별위원회 건설분과 부의장기관, 아시아 태평양 산업안전보건기구(APOSHO) 기술위원회 의장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

셋째, 개발도상국 안전보건 기술지원 사업의 목적은 아시아 산업안전보건 중심기관(Focal Point)으로서 국제기구(ILO, WHO, ASEAN 등)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개발도상국 정부기관과 체결한 산업안전보건 기술협력협정을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중임. 공단 전문가를 개발도상국에 파견하여 정책자문 및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산업안전보건 발전을 위한 기술자료 및 장비를 지원하고 국내 공적원조자금(ODA)를 활용한 지원 프로그램 수행함.

넷째, 글로벌 예방문화 확산 사업의 목적은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예방문화위원회 의장기관으로서 국제기구 및 재해예방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예방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예방문화 증진 방안 및 우수사례 등을 국내·외 공유하는 것임. 글로벌 안전보건 전문기관으로서의 리더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의 예방문화위원회의 의장기관으로서 예방문화위원회 사무국 운영 및 이사회를 주관하고 있고, ILO, ISSA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예방문화 포럼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예방문화를 전파하고 있음. 또한, 독일 재해보험조합(DGUV)과 글로벌 예방문화 평가지표(PCI)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선진 전문기관과 교류협력을 통하여 재해예방에 기여하고 있음. 제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에서 채택한 산업보건 증진 서울성명서 확산을 위한 국제세미나 등을 개최하였음.

이와 함께 센터는 공단의 국외 출장을 지원하고 있음. 2020년 4월 이후에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국외 출장은 진행하지 않음.

〈표 Ⅲ-6〉 기술자료 및 장비지원 현황

번호	지원내용	기관명
2005년	안전보건기자재(안전모 등) 8종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2006년	기계 검사 장비(만능회로 시험기 등) 10종	몽골노동부
2009년	안전보건 기자재 4종 및 안전보건 정보자료9종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2010년	개인보호구(8종)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
2011년	이동안전교육버스	몽골 노동부
2012년	안전보건 기술자료(제도집)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안전보건 기술자료(5종)	중앙아시아
2013년	이동안전교육버스	몽골 국가전문감독원
	작업환경 측정장비(5종) 및 개인보호구(2종)	미얀마 노동이주인구부
2015년	안전보건 기술자료(5종)	미얀마 노동이주인구부
		몽골 국가전문감독원
2015년	이동안전교육버스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2016년	안전보건기술자료(10종)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2017년	이동안전교육버스	미얀마 노동이주인구부
	안전보건기술자료(10종)	미얀마 노동이주인구부
	작업환경 측정장비(5종)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출처: 공단 홈페이지

(3) 국제협력센터의 업무 분장

국제협력센터 직원 7명의 업무분장은 다음 〈표 XX-4〉와 같음.

- 소장은 국제협력센터 업무를 총괄
- 팀장은 국제개발협력팀 업무를 총괄

- 차장 중 1명은 글로벌 예방문화 확산, OSH 및 이슈 솔루션 운영을 담당
- 차장 중 1명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담당
- 차장 중 1명은 국제협력 사업계획, 대내외 평가, 회의 및 보고 등 관리 및 운영 담당
- 과장 중 1명은 국내안전보건 정보자료 발간 및 보급, 국외 유관기관 관계자 방문 지원, 국제협력사업 통/번역 담당
- 과장 중 1명은 개발도상국 안전보건 협력사업, 국외유관기관 협정관리, 국제협력사업 통/번역 담당(육아단축근무 사용 중)

〈표 Ⅲ-7〉 국제협력센터 업무분장

직위 (직급)	성 명	담 당 업 무
국제개발 협력팀장 (전문직 2급)	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개발협력 업무 총괄
전문직 3급 (차장급)	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 사업계획 등 수립·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예산 수립 및 관리 • 경영기획본부 관련업무(예산 및 국회요구자료 등) • 대내·외 평가, 회의 및 보고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평가, 성과계약, 감사, 재정사업자율평가 등 • 국제협력 규정·지침 관리 및 심의위원회 운영 • 국외 유관기관 기술협력사업 추진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국외 출장에 관한 사항(아시아지역 외) - 본부 및 산하기관 국외출장 업무관리 지원 • 국제안전보건 전문가 초청 • 사고사망재해예방 국제세미나 개최 • 이동안전보건교육버스 공여
전문직	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센터 서무 및 타부서 협조사항

직위 (직급)	성 명	담 당 업 무
4급 (과장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유관기관 기술협력사업 추진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및 산하기관 국외출장 업무관리 지원 • 임직원 국외 출장·연수 계획 및 실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관리, 웹 게시 - 직원 국외출장 지원(아시아지역 외) • 직원 장·단기 국외 연수추진 및 실적관리 • 개발도상국 안전보건 동반성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도상국 관계자 방문 지원 • 아시아·태평양 산업안전보건기구(APOSHO) 협력사업 • 국외 유관기관 협정 관리 • 사고사망재해예방 전문 인력 양성 •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지원 • 국제협력사업 통역·번역
전문직 3급 (차장급)	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도상국 안전보건 협력사업 추진 총괄 • 글로벌 예방문화 확산(이사회 및 심포지엄 개최) •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 기술 및 정보교류 국외출장 • 국제기구 및 국외유관기관과의 기술정보 교류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국외 출장업무 관리 및 지원(아시아지역) • 국외 안전보건 지식·정보 개발·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향·제도집 발간, OSH 및 이슈 솔루션 운영 • 기술규정, 자료 번역보급 / 용어사전 최신화(한영, 한베)
전문직 4급 (과장급)	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안전보건 정보자료 발간·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문홍보자료, ICOH·국문·영문뉴스레터 등 발간·보급 • 글로벌 예방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예방특별위원회 운영 및 예방문화측정지수 개발 • 국외 유관기관 네트워크 회원가입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유관기관 관계자 방문 지원(아시아지역 외) • 국제협력센터 정보·전산보안, 비상계획 업무 및 자산 • 국제협력 관련 웹사이트 관리·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영문 웹사이트, ERP 관리 •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지원 • 국제협력사업 통역·번역
전문직 3급	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부, ASEAN, KOICA, KDI 등 ODA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원조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고용부·외교부 회의 등

직위 (직급)	성 명	담 당 업 무
(차장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캄보디아 프놈펜 산업안전보건센터 건립 ODA사업 준비 - 캄보디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정책자문 • 호치민 산업안전보건교육훈련센터 역량강화 사업 - 고용노동부 출연금 교부 신청 및 집행, 관리 - 호치민 ODA사업 관련 통관 처리, 교재 인쇄 및 운송 - 베트남 현지 사업관리자 선발·운영 - 산업안전보건 인력양성(일반강사 양성, 석사과정 운영) - 베트남 전문가 공단 연수 - 건설안전체험교육장 제작·설치 - 위험기계·기구 실습장비 시설 및 기자재 제작·설치 - ODA사업 분야별 전문강사 지원 등 워크숍 실시 - 기타 사업 전반 수행

출처: 공단 내부자료

3) 국제협력센터 업무진단

(1) 국제협력센터의 현 업무 분류 및 문제점 도출

- 국제협력센터의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좀 더 분류해 보았음. 먼저, 국제협력센터의 업무를 지원업무와 사업업무로 구분해 볼 수 있음. 지원 업무는 차장 1명과 과장 1명이 주로 담당하고 있음.

- 지원업무로는 국제협력 사업계획 등 수립·운영, 경영기획본부 관련업무 대응, 대내·외 평가, 회의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담당, 국제협력 규정·지침 관리 및 심의위원회 운영, 국제협력센터 서무 및 타부서 협조, 임직원 국외 출장·연수 계획 및 실적 관리, 직원 장·단기 국외 연수추진 및 실적관리 등이 포함됨.

- 전반적으로 국제협력 관련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계획 및 지원을 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외부처 및 대내부서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역량이 집중되어 있음.

- 기타 지원업무로는 국제협력사업 통/번역, 영문 웹사이트 관리 등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과장급 2명의 인력이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음.

- 사업업무는 차장 2명, 과장 1명이 주로 담당하고 있음.

- 사업업무로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개발도상국 역량강화사업, 개발도상국 안전보건 협력사업, 글로벌 예방문화 확산, 국제기구 및 국외 유관기관과의 기술정보 교류협력, 개발도상국 관계자 방문지원, 국내외 안전보건 정보자료 보급 등이 포함됨.
- 아시아 태평양 개발도상국의 지원,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네트워킹 형성 등 국제협력 사업의 주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 기타 사업업무로는 국외 유관기관과의 협정 및 네트워크 관리 등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과장급 2명의 인력이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음.

- 지원업무에 다소 많은 업무량이 있어서 2명 이상이 꾸준히 담당해야 하므로, 실제 사업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초래되는 문제가 나타남.

- 지원업무의 부담을 줄이거나 타 부서와 통폐합하는 안과 현재 통·번역 전문가가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타 부서로부터 지원인력을 총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국제협력센터의 업무를 국외업무와 국내업무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국내업무에는 ‘개발도상국 안전보건 기술지원 사업’ 중 개발도상국 관계자 연수프로그램 운영, ‘안전보건 정보 보급 및 교류사업’ 등이 포함됨.
- 국외업무에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개발도상국 안전보건 기술지원 사업’, ‘글로벌 예방문화 확산 노력 사업’, ‘국제기구 및 국외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 사업’을 포함함.
-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는 연계성이 있으나 업무영역이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처럼 1팀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2개의 팀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2) 환경변화와 국제협력센터 업무에서의 변화 필요성 도출

다음으로 공단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한 환경변화 및 센터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른 센터 업무의 변화 필요성을 살펴보았음.

먼저 공단 차원에서 주요한 환경변화를 PEST 분석(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ical)을 통해 살펴보았음.

- 정치(Political context)
 - *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국정목표화
 - *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본부 승격, 역할 강화
 - * 공공기관 혁신 및 사회적 가치의 성과창출 유도
- 경제(Economic context)
 - *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 * 국내경제 성장세 둔화, 성장경로 불확실성 증대
 - *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 사회(Social context)
 - * ESG 등 사회적 문제 해결 요구 증가
 - * 중대안전재해처벌법 제정 등 안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 강조
 - * 노동시장 재편, 이중구조 심화에 따른 영향 확대
- 기술(Technical context)
 - * 혁신적 기술에 의한 산업성장 시대 도래
 - *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안전보건서비스 필요성 대두

다음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국제협력센터를 둘러싼 환경변화를 PEST 분석(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ical)을 통해 살펴보았음.

출처 : 내부자료

정치(Political)	경제(Econom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콘트롤 타워인 산업안전보건 본부의 출범으로 정책 수립을 위한 해외사례 수집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남방정책 등 정부의 주요 대외정책 참여를 통한 경제협력의 마중물 역할 요구
사회(Social)	기술(Technologic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적 가치와 연계한 국제협력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 우위 기술·지식의 전파로 안전보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그림 Ⅲ-2] 공단 국제협력센터 환경분석

이상의 환경분석을 토대로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미래에 좀 더 강화되어야 하는 업무 및 신규로 창출되어야 할 업무가 도출됨.

- 강화되어야 할 업무로는 ‘개발도상국 안전보건 상생 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기술 전수 및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산업안전보건 본부의 출범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중요성 증대에 대응하는 해외사례 정보 제공 및 교류 사업’임.
- 신규로 창출되어야 하는 업무로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망 확충’ 등 ESG 관점에서의 신규사업 영역임.

(3) 공단의 전략과 국제협력센터 업무에서의 변화 필요성 도출

다음으로 공단의 장기전략을 고려할 때 센터 업무에서의 변화 필요성을 살펴해보았음.

미션	<p>① 우리는 모든 국민이 항상 안심(安心)하고 살 수 있도록 안전보건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p> <p>② 우리는 모든 노동현장의 안전보건 문제에 항상 눈과 귀를 열고 국민과 함께 공정경제와 적극행정을 실현한다.</p> <p>③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도움을 요청조차 하지 못하는 안전보건 취약자에 대한 포용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다.</p> <p>④ 우리는 항상 최신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여 최고의 전문가 역량을 유지하고 혁신적 안전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p>			
비전	<p style="text-align: center;">일하는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누리는 대한민국</p>			
공유 가치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가치 안심(安心), 공정·포용, 혁신</p>		<p style="text-align: center;">경영방침 기본과 원칙, 화합과 협력, 현장 전문성</p>	
경영 목표	<p>사고사망만인율 0.24‰</p>	<p>일자리 창출 27천명 동반성장 우수등급</p>	<p>親안전 사업장 구축 (한국판 안전 뉴딜 지원)</p>	<p>미래 산재예방 플랫폼 구축 고객만족도 우수등급</p>
전략 목표	<p>사망감소 중심의 예방활동 강화</p>	<p>국민중심의 공공가치 성과 창출</p>	<p>포용적 산업 안전망 확대</p>	<p>대국민 혁신 서비스 기반 구축</p>
전략과제 (12개)	<p>① 사망사고 근절</p> <p>② 중상해 관리 및 자율안전체계 강화</p> <p>③ 안전보건 책임강화 및 인식개선</p>	<p>④ 좋은 일자리 창출</p> <p>⑤ 국민체감 사회적 가치 실현</p> <p>⑥ 동반·상생협력 활성화</p>	<p>⑦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p> <p>⑧ 필수 노동자 등 산재 취약분야 사각지대 해소</p> <p>⑨ 안전보건 협력 네트워크 강화</p>	<p>⑩ 빅데이터 활용 디지털화 촉진</p> <p>⑪ 안전보건 R&D 강화</p> <p>⑫ 전문역량 향상 및 일하는 방식의 혁신</p>
실행과제 (80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사업장 감시체계 • 안전보건지킴이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 (26개 사업 / 54개 세부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일자리 창출 • 신사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안전우수 중소기업 지원 확대 ∴ (16개 사업 / 23개 세부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투자혁신 사업 • 사이버안전보건교 육센터 건립 • 유해·위험작업 도급현황 관리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 (22개 사업 / 41개 세부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사망원인 분석·제공 시스템 구축 • 직업병 위험도 예측 시스템 구축 • 산업안전보건 연구 • 혁신인재 육성 로드맵 구축 ∴ (16개 사업 / 28개 세부과제)

[그림 Ⅲ-3] 공단 장기전략방향

출처 : 경영평가보고서

공단의 4개 전략목표 중 ‘포용적 산업안정망 확대’의 세부전략과제 ‘필수노동자 등 산재 취약분야 사각지대 해소’, ‘안전보건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과 국제협력사업이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음.

-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할 업무는 ‘개발도상국 안전보건 상생 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기술 전수 및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국제기구 및 국외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 사업’임.
- 신규로 창출되어야 하는 업무로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망 확충’임.

(4) 국제협력센터 업무조정 필요성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하여 국제협력센터 업무조정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Ⅲ-4]와 같음.

<p>업무 확대 및 신규 창출 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본부 설립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을 고려한 ‘안전보건 정보 보급 및 교류사업’ 강화 -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안전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DA 등 ‘개발도상국 안전보건 기술지원 사업’ 영역 확대 및 강화 - ‘국제기구 및 국외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 사업’ 증대
<p>업무 중복 및 조정 필요 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적인 뉴스레터 업무, 단순한 번역 등 홍보사업부와 중복되거나 외주 가능한 업무에 대한 조정 필요 - 지원업무에 대한 업무부담 감소 필요 	
	<p>국내 사업</p>	<p>국외 사업</p>

[그림 Ⅲ-4] 국제협력센터의 업무조정 방향

2. 국제협력센터 조직 및 직무 진단

1) 국제협력센터 예산 및 업무량 적정성 분석

(1) 국제협력센터 예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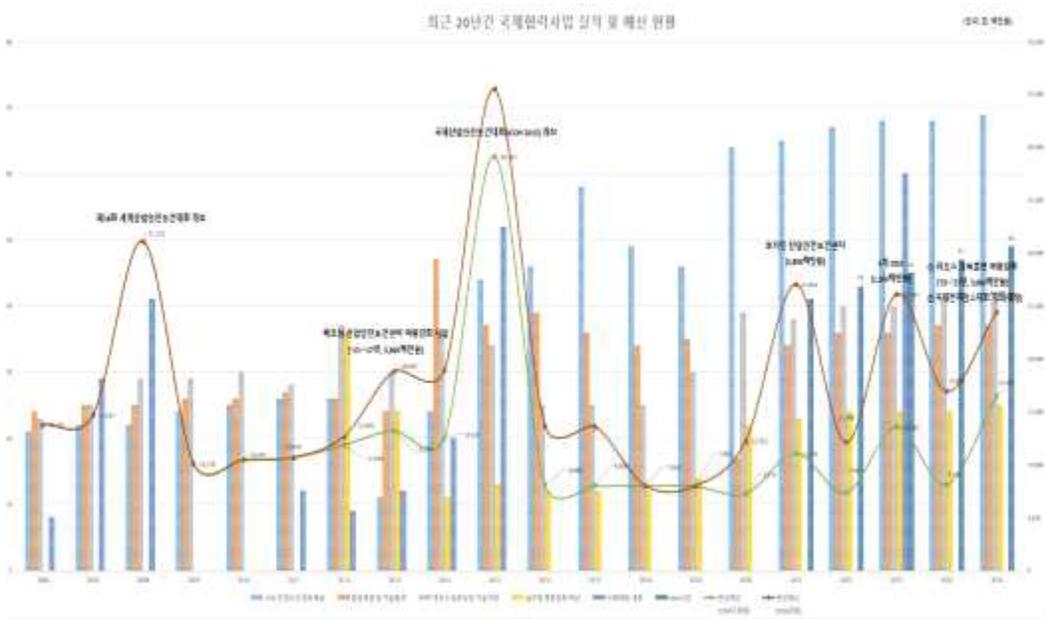
국제협력센터는 조직도상 경영지원이사 산하에 위치해 있고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센터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공단의 국제협력사업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

- 공단의 국제협력사업 예산은 자체적인 사업예산과 고용노동부 등에서 수주하는 ODA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난 20년 간의 공단 국제협력사업의 주요실적 및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음.

- 2012년부터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예산이 추가되었으며, ‘베트남 산업안전보건센터 역량강화사업’, ‘국제산업안전보건대회 개최’, ‘호치민 산업안전보건센터 사업’, ‘라오스 교육훈련 역량강화’ 등 주요한 성과가 있었던 해에 예산도 상승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음.
- 현재 수행하고 있는 ODA 사업과 예산은 다음과 같음.
- * 베트남 「호치민 산업안전보건센터 교육훈련 역량강화」 사업 계속 추진(3년차)
 - @ 기간·예산 : 2020년 ~ 2022년, 30억
 - @ 사업내용: 교육센터내 건설안전 체험·실습·교육 시설 및 장비 설치
- * 캄보디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정책자문사업 추진(2년차)
 - @ 기간·예산: 2021년 ~ 2023년, 4.1억
 - @ 사업내용: 캄보디아 산업안전보건법·하위규정 제정 및 시행 지원
- * 캄보디아 산업안전보건센터 교육훈련 역량강화 사업 추진(1년차)
 - @ 기간·예산: 2022년 ~ 2024년, 30억
 - @ 사업내용: 산업안전보건교육훈련센터 설립(교육과정개발, 강사 양성, 교육시설, 기자재 설치 등)

출처: 공단 내부자료



[그림 Ⅲ-5] 공단 국제협력사업 실적 및 예산 현황

미래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국제협력업무,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 등 지원사업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예산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측됨.

- 안전보건 ODA 수행기관으로 지속선정 등을 통해 베트남, 라오스, 몽골 등 중점 협력국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 총액 12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됨.
- 세부적인 안전보건 ODA 현황 및 추진계획은 다음의 <표 Ⅲ-8>과 같음.

〈표 III-8〉 안전보건 ODA 현황 및 추진계획(2022~2029년)

사업명	대상국	기간	규모(억원)
캄보디아 교육훈련 역량강화 산업안전보건	캄보디아	2022~2024년	30
라오스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지원 정책자문	라오스	2023~2025년	4
베트남 산업보건 연구 역량강화	베트남	2025~2027년	60
라오스 산업안전보건 교육훈련 역량강화	라오스	2025~2027년	30
몽골 산업안전보건 교육훈련 역량강화	몽골	2027~2029년	30

출처 : 공단 내부자료

전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증대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확대로 인하여 국제협력사업 및 국제협력센터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다만, ODA 사업의 경우에는 공단의 자체적인 예산이 아니고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수주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사업집행을 위하여 ODA 사업을 공단 및 센터의 정규사업화 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2) 국제협력센터 인원 적정성 분석

국제협력센터는 1개팀 7명으로 편제되어 있는데, 실제 소장 및 팀장을 제외한 5명의 실무자가 4개 사업분야에 연 약 260회 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5명의 실무자가 맡고 있는 업무를 종합하면 주요 업무를 영역으로 따졌을 때 약 35개임.

- 차장급 직원 2명은 각각 지원업무와 정보업무를 총괄하면서, 평균 7개 영역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차장급 직원 1명은 ODA사업을 전담하고 있는데, 2021년 7월까지 파견와서 ODA사업을 전담하던 인력이 파견 해제되고 타부서로 발령되어 현재 혼자서 2개의 사업(호치민 안전보건교육 인프라 ODA, 캄보디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정책자문 ODA)을 홀로 담당하고 있음.

- 과장급 직원 2명은 각각 지원업무와 정보업무를 담당하면서, 평균 8개 영역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일부 중복 업무 및 보조 업무).

FGI(Focal Group Interview)와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¹⁾.

특히, ODA사업의 경우 국가별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대응도 달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사업별로 담당자가 존재해야 하지만, 현재는 혼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2년에는 ODA 3개 사업(호치민 인프라 ODA, 캄보디아 정책자문 ODA, 캄보디아 인프라 ODA)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므로 1인으로서 는 담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평가됨.
- 유사하게 ODA를 수행하는 타 기관의 자원(예산·인력)은 평균 50억 원, 전담인원 3~5명 수준으로 센터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따라서 ODA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원에 대한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Ⅲ-9〉 타 기관 ODA 전담 인원 및 예산 평균

기관유형	기관	국제인력(평균)	ODA전담(평균)	ODA예산(구간)
준정부, 공기업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소	38명	5명	100~200억
진흥원, 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5개소	31명	3명	30억~50억

출처: 공단 내부자료

산업안전보건 국제협력 업무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업무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에 따른 적시 정보 제공 등 대응력

1) FGI 및 설문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파트를 참고

향상이 요구됨. 중대재해처벌법, 코로나 19 팬데믹,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환경변화 및 신재생 에너지, 서비스업 등 중심의 산업구조개편 등에 따른 공단 내 타 사업부서들의 국외안전보건정보 제공 요청 증가하고 있음.

- 2022년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2020~2021년 온라인 회의 등으로 대체되었던 국제협력을 위한 출장업무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 타 업무를 겸업으로 담당하는 인력으로는 증가된 국제협력 업무량을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악됨.

ESG 및 포스트 코로나를 고려하여 국내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망 지원, 외국 진출 기업에 대한 현지 산업안전 컨설팅 및 교육 등 신규사업을 도출하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필요함.

2) 국제협력센터 담당자 인식 조사

(1) 국제협력센터 담당자 의견 조사 개요

국제협력센터 조직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통해 담당자 의견 조사를 진행함.

- 국제협력센터의 비전 달성과 업무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조직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센터의 업무 과정 및 결과상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분석이 필요함. 국제협력센터의 조직 및 업무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센터 구성원을 대상으로 <표 III-10>와 같이 포커스그룹 인터뷰 및 개인별 설문 조사를 실시함.

〈표 Ⅲ-10〉 국제협력센터 조직 진단을 위한 내부 의견 조사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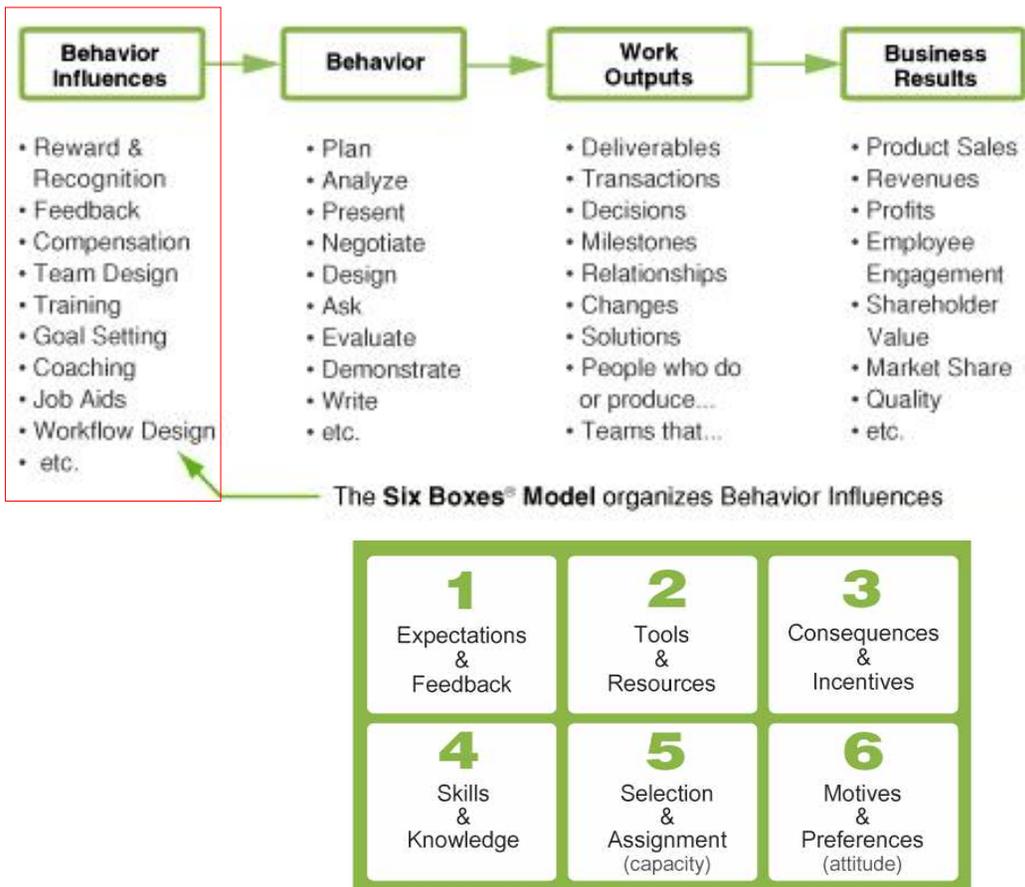
방식	주요 내용	대상	시기
포커스 그룹 인터뷰 (FGI)	센터 사업 전반, 국제협력, 사업 및 조직 진단 등	경영진 + 센터 실무진	2021. 10. 8
		센터 실무진	2021. 10. 15
		센터 실무진	2021. 10. 21
설문조사	조직 진단 및 개선안	센터 실무진	2021. 10. 21-28

조직 진단 조사 및 분석 틀(framework)로 Six Boxes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 진행.

- 조직 진단을 위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미국의 칼 바인더(Carl Binder) 박사에 의해 개발된 Six Boxes 모델(그림 Ⅲ-6) 참고)을 활용함. 이는 조직의 성과 진단 도구로 60년 넘게 진화해 온 행동 과학 연구를 기반으로, 조직 내 사람들의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와 이러한 변수 간의 상호 의존성 및 연관 관계를 다루는 연구 기반(research-based) 모델임.
- 구체적으로, Six Boxes 모델은 특정 조직이나 집단의 성과를 높이는 행동 영향 요소(behavior influences)를 이해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함. 조직의 성과는 구성원들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가정 하에, 개인과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해 분석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틀을 제공함.
- 이 모델에 따르면, 조직에서 개인의 성과(performance)란 곧 가치 있는 작업 결과(work outputs)를 생성하는 ‘행동(behavior)’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사업의 결과(business results)에 기여하게 됨. 따라서 작업 결과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개인의 행동과 결과 사이의 연결 고리라 할 수 있음. 개인의 행동과 조직의 결과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인이 조직의 사명과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이렇게 개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behavior influences)을 포괄적으로 분류한 결과를 기억하기 쉬운 6개의 "상자(boxes)"로 단순화한 것이 six boxes 모델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조직 내 개인이나 집단의 효과적인 행동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요소를 식별할 때,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할 때 더욱 체계적으로 사고하도록 도움.

출처: Performance Thinking Network(<https://www.sixboxes.com/Six-Boxes-Model.html>)



[그림 III-6] 조직 내 성과 사슬 및 Six Boxes 모델 개념도

- 또한 Six Boxes 모델은 조직 진단 시 성과 향상에 연관된 중요한 전략이나 개별 요소를 누락하지 않도록 도우며, 특히 조직 내 모든 직급의 직원, 부서, 조직 전체 등 다양한 분석 단위에 적용하기 쉬운 장점이 있어, 업무 수행 및 성과의 원인을 분석하고 목표하는 성과를 산출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다음 표는 Six Boxes 모델 각 영역별 개념 및 하위 요소의 주요 예시를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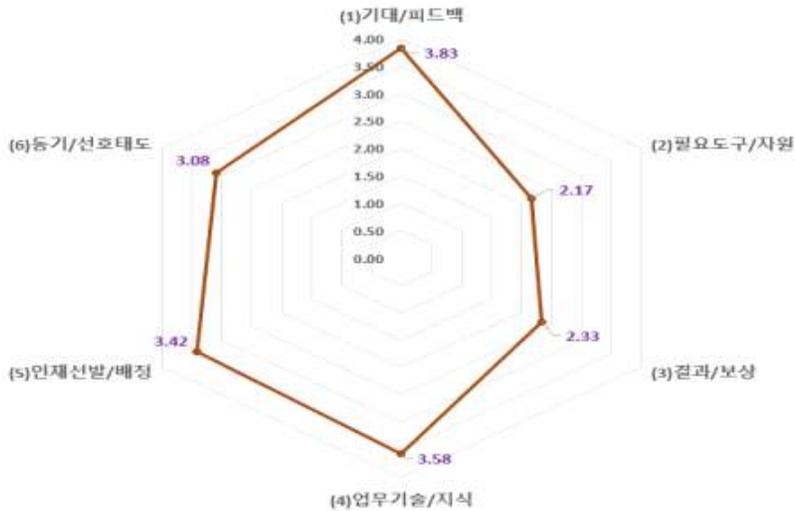
〈표 Ⅲ-11〉 Six Boxes 모델 영역별 개념 및 하위 요소 예시

구분	진단 영역	영역별 하위 요소 예시
환경 측면	(1) Expectations & Feedback 기대/피드백 :구성원의 성과 향상을 위해 역할과 수행에 대한 기대를 명확히 정의 :수행과정에 대한 관련 피드백을 자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확한 기대 (clear expectations) • 관련된 피드백 제공 (relevant feedback) • 관련된 가이드 제공 (relevant guides) • 성과 코칭 (performance coaching)
	(2) Tools & Resources 필요도구/자원 :직무 수행에 필요한 도구와 시간을 제공 :프로세스와 절차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 :작업 상황을 안전하고, 명확하고, 조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적자원, 업무도구 제공(materials/tools) • 시간 (time) • 명확한 프로세스/절차 (clear processes/procedures) • 안전/조직화된 환경 (safe/organized environment)
	(3) Consequences & Incentives 결과/보상 :성과 측정과 보상 시스템이 긍정적 업무 수행을 강화(재무 또는 비재무적 보상 제공)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적 보상 제공 (financial incentives) • 비재정적 보상 제공 (other incentives) • 충실화된 직무 (enriched jobs) • 긍정적 작업 환경 (positive work environment)
개인 측면	(4) Skills & Knowledge 업무기술/지식 :구성원이 희망하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경험, 기술을 보유한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지식 (required knowledge) • 필요한 기술 (required skills) • 배치 (placement) • 교차 훈련 (cross-trained)

구분	진단 영역	영역별 하위 요소 예시
	(5) Selection & Assignment 선발/업무배정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및 적성이 고려되어 업무가 배정되는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할 수 있는 능력 (capacity to learn) • 필요한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capacity to do what is needed) • 적절한 인재의 모집 및 선발 (recruit/select the right people)
	(6) Motives & Preferences 동기/선호태도 :구성원의 동기가 직무와 작업 환경과 일치하는 정도 :업무 수행을 선호하고 만족하는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과 환경과 일치하는 동기 (motives aligned with work) • 수행하고자 하는 구성원의 욕구 (employee desire to perform) • 기대의 현실성 (expectations are realistic)

(2) 담당자 의견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정량적 분석 결과, 개인적 측면 대비, 직무 환경 측면에서 필요 도구/자원 및 결과에 대한 보상에서 성과 장애 요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그림 III-7] 영역별 진단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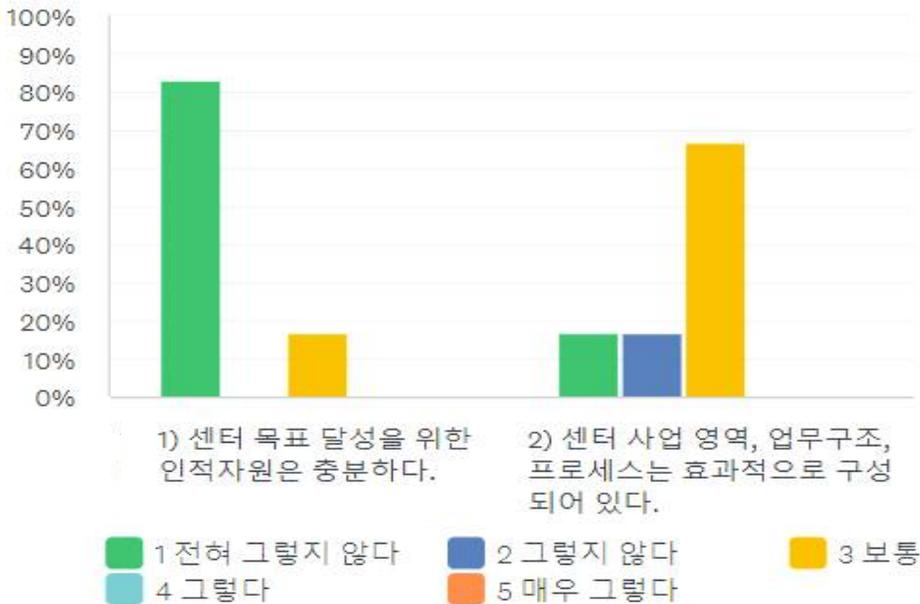
- [그림 Ⅲ-7]의 영역별 진단 점수를 살펴보면, 높은 순서로 기대/피드백 > 업무기술/지식 > 선발/업무배정 > 동기/태도 > 인정/보상 > 필요도구/자원 순으로 나타남.
 - 센터 및 개인 업무에 대한 조직 기대사항과 피드백이 명확한 편이고, 개별 구성원의 역량 수준은 충족되어 있는 반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크게 부족하고, 업무 성과에 대한 인정과 보상 역시 불명확 상태로 인식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구성원들의 업무 동기도 저하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에, 센터 사업 목표 및 공단 경영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각 영역별 구체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함.
 - 정성적 자료 분석을 통해 각 영역별 상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핵심 내용은 별도 <표 Ⅲ-12>에 요약하여 제시함.
- 영역 1) 기대/피드백 Expectations & Feedback
 - 분석 결과, 센터 내 개인 업무에 대한 기대 역할은 명확한 편으로 나타났으며, 그동안 다소 제한된 인원으로 계획된 요구사항이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또한, 센터 업무에 대한 공단의 기대와 공단 내 역할은 국제협력이라는 특수한 영역을 유일하게 수행한다는 점에서 명확한 편으로 인식되고 있음.
 - 개별 구성원은 센터의 존재 이유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다소 낮게 인식하거나, 기대 역할에 대한 모호성을 느끼고 있기도 함. 주요 원인으로 공단의 비전/경영 목표는 국내에 주요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개별 업무나 센터의 목표가 조직의 비전과 연계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결국 효과적인 사업 수행 및 업무 동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공단 차원에서 센터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공식/비공식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센터 역시 공단 경영목표와 연계된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는 방법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센터 사업 대비 수행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개인별 기대 역할 및 업무 분장이 명확한 편임에도 계획대로 업무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는 six boxes 영역 중 개선 필요성이 특히 높게 나왔던 필요도구/자원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 외부적으로 예상되는 국제협력센터 기대 역할 변화 (경영진 및 실무진 FGI)
 - 내부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산업안전 쪽에 낙후되어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안전사고, 사망 사고 등) ILO 노동기구의 직원들과 이야기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가 상당히 높음. ILO는 우리가 잘사는 나라니까 돈도 내야 하지만, 우리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여를 바라고 있음. 얼마 전에 선진국에 진입도 했기 때문에 국제협력, 특히 안전보건 분야를 통해서 국가의 이미지 관리가 필요함. 즉, 중진국에 사업의 확대를 위한 기회인 것 같음.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그리고 지금 국제적으로 ESG는 경영평가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리고 외국의 움직임 등을 봤을 때, 이쪽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함.
 - 앞으로 국격을 높이는 등 이러한 것에 관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산업안전 관련된 곳은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기대와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함. 다만, 국제협력관실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가져와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 현재,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가하면 어떡하나, 우려하는 부분은 있음.
- 특히 최근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생기면서 기존 대비 다양한 시도 및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에, 향후 이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영역 2) 필요도구/자원 Tools & Resources
 -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구/자원의 예는 시간, 예산, 인적자원, 업무 프로세스 등을 들 수 있는데, 국제협력센터의 경우,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은 대체적으로 적절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음. 특히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로 평가됨.

- 그러나 인적자원 부족 및 충분한 업무 수행 시간 부족 문제가 크게 나타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확인됨. 즉, 예산은 충분한 편이지만, 다양한 사업을 더 우수한 형태로 수행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실제 [그림 Ⅲ-8]과 같이 센터 구성원 대다수가 센터 내 충분한 인적자원 존재 여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가장 낮게 응답함.
- 이로 인해 직원 개인별 메인 업무는 정해져 있으나 인원 부족으로 메인 업무 외에 백업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증진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직원 업무몰입도 및 만족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됨.
- 특히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ODA사업의 경우, 프로젝트 1개당 적어도 1인 이상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 명이 3개의 프로젝트를 수행 예정으로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업무가 가중되는 측면이 있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로 인해 국제협력 업무가 감소했다고 여기기 쉬우나, 오히려 아래 언급과 같이 새로운 상황으로 인한 새로운 업무가 증가한 경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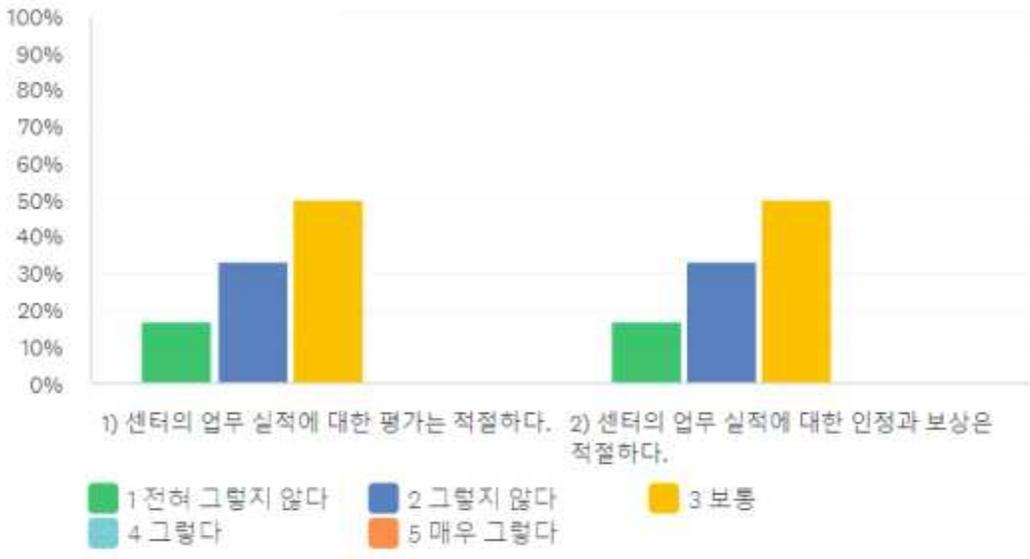
• 코로나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 및 업무의 질 우려 (실무진 FGI)

- 코로나로 비대면이면 업무 없는거 아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개도국 업무에서는 비대면 업무로 하다 보면 다 처음 해보는 업무가 되기에, 좀 더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음. 개도국 사업 관련 일일이 각각 신경써야 함. 예를 들어 최근 7개 국가에 5명 트레이니 받아서 전문화시키는 업무가 있었는데, 한 달 반 정도면 끝날 업무인데, 아이디 입력 등 메뉴얼 세세하게 제공해야 하다보니, 시간 소요가 더 많았음.
- 정보제공 사업과 관련되어, 원래 타부서 요청이 많은데(독일 출장가는데 기관섭외 요청 등), 작년부터 해외에는 코로나/언택트/텔레워킹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자료 구해달라는 등의 업무가 증가하기도
- (센터 업무는) 본인 역량에 따라 양 자체가 결정되는데, 업무 기한 맞춰서 어떻게든 하고는 있지만 조금만 더 시간이 있다면, 도와주는 손이 있다면 조금 더 내실 있게 알차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느낌.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데, 정말 개도국 안전보건 위해 내실있는 자료를 주고 있는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하는 아쉬움이 들긴 함.



[그림 III-8] 업무 필요도구/자원에 대한 인식

- 더욱이 직원들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질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함. 즉, 주어진 업무를 완수는 하지만,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면 좀 더 우수하고 창의적인 업무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믿기에 현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음.
- 또한, 사업 분야 및 업무 프로세스 상에서도 애로사항도 경험하고 있었는데, 사업의 수는 많으나, 유사하거나 반드시 국제협력센터에서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업무들이 존재하여 비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진행되기도 함. 동시에 수시로 고용부 및 타부서를 통해 들어오는 조사요청 시 해당 업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거나 수행에 어려움도 겪고 있기도 함.



[그림 Ⅲ-9] 업무 결과/보상에 대한 인식

- 따라서 현재 센터 내 인력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아래 경영진 의견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음. 그러나 인력 충원과 관련하여 그동안 당위성에 대한 대내·외 설득을 해 왔지만, 아직까지는 충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한 의견 (경영진 FGI)

• 국제적으로 ODA 사업 등의 국제센터건립과 교육 등이 필요하고, 전혀 상관없는 경우의 국가보다는 국내에 노동 유입이 가능한 국가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내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증가시켜야 하며, 지금의 조직으로는 안 되고, 인적자원이 좀 더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영역 3) 업무 결과/보상 Consequences & Incentives

- 센터 내 인적자원 부족 문제와 함께, 업무 성과에 대한 결과/보상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9]와 같이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 실적에 대한 평가, 인정, 보상 전반에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실제 직원들 인터뷰에서 성과 인정 및 보상 측면에서 잘되는 점은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센터 사업이 공단 전체의 경영 목표와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판단됨. 예를 들어, 공단의 주요 목표는 국내 산업안전 사고/사망자 감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국제협력업무는 찾아보기 어려움. 이는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의 의미나 동기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음.
- 반면 유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의 경우, 국가에 대한 기여를 미션과 비전으로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경영전략 목표 및 과제로 글로벌 인재 육성이나 국제교류와 같은 국제협력 업무를 포함하여 강조하고 있음. 이를 통해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에서 가치를 찾는 것으로 나타남 (유관기관 FGI 인터뷰, 2021)
- 더욱이 공단 내 타 부서에서도 센터 업무를 단순 해외 출장 지원 업무로 인식하고 있으며, 센터 직원들은 공단 내 센터 업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을 찾기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음.

• 공단 내 센터 업무에 대한 인정/보상 관련 인식 (경영이사, 실무진 FGI)

• 국제 협력사업에 나간다고 하면 놀러 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해외로 나가자고 해도 ‘너희가 알아서 해라’ 등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결국, 성격에 따라 사업의 주체가 역할 구분되어야 함. 고용노동부 내에서도 국제국이 있는데, 국제국에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함. 국제협력센터의 경우, 공단 조직 내부에서도 순위가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한국의 문화 정서와 같이 국내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국제는 좀 소홀한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함.

• 11월 초에 평가를 받는데, 평가보고서 관련된 저희 사업들의 콘텐츠의 경우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목표 달성에 대해서 평가가 받기가 힘든 상황임. 이유는 결국 조직의 목표인 사고/사망자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음.

• 조직 내부에서 센터를 보는 인식은 해외 출장이나 놀러다니는 사람들임. 조직에서 TO를 올려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공단 내부 직원들이 센터 업무를 희망했으면 좋겠는데, 직원들이 그들만의 리그 부서로 봄. 과거에는 그냥 의전부서로 봐서 해외 출장 안가니 일 없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사업부서와 소통할 수 있는 업무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 직원들은 센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주목을 받아야 인력도 데려오는 게 가능한데.

• 따라서 공단 및 센터 차원에서 서로 간의 목표를 연계시키는 작업을 기반으로, 센터 업무 성과에 대한 충분한 인정과 보상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 공단에서는 경영 목표 일부에 국제협력 분야를 고려하여 중요성을 전파하고, 센터 차원에서는 향후 단순한 지원 사업 외 공단 경영 목표와 더욱 연계된 고유한 사업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내부 직원들에게 국제협력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도 고려도 필요함.

▪ 영역 4) 업무기술/지식 Skills & Knowledge

• 센터의 구성원들은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과 관련해 적절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언어 구사 능력 보유로 내부적으로 소화 가능한 국제협력업무가 다양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기획화/사업화 능력이나 행정과 관련된 기획, 예산, 조직 업무 경험 인력이 부족하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역량개발에 대한 지원과 기회는 있지만, 업무로 인하여 역량개발에 투자할 시간적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정보생산 관련된 업무는 아래와 같이 최근 트렌드를 파악하고 따라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해당 분야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임.

• 업무 만족도에 대한 의견 (실무진 FGI)

- 지금부터 워드 코로나 시대에 좀 더 정보기술을 많이 활용하게 될 텐데, 기존 해오던 문서/책 등 작성하던 것들이 동적인 자료로 바뀌어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됨. 링크 하나 안에서 동영상 자료도 본다거나, 메타버스 기술 등 사람들과 직접 못 만나더라도 소통 원활하나 품은 덜 들어가는 방법들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됨.

- 따라서 효과적인 사업 수행 및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 현재 센터 내 부족한 역량을 보유한 인적자원이나 기존 구성원과 다른 다양한 배경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

▪ 영역 5) 인재확보/배정 Selection & Assignment

- 센터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업무 능력/적성을 고려한 업무 분장을 지향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개별 업무 분장도 명확하게 나타남.
- 그러나 인원부족으로 구성원 경력/적성을 모두 고려한 업무분장이 어려운 상황이며,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하기도 함. 특히 사업 규모 대비 인력이 부족한 ODA 분야의 경우, 최소한 파견으로라도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 인력 확보 및 사업 규모에 맞는 조직 확장과 함께 센터 차원에서는 조직 내 ODA 사업 기반의 국제협력 업무에 대한 홍보와 소통 노력이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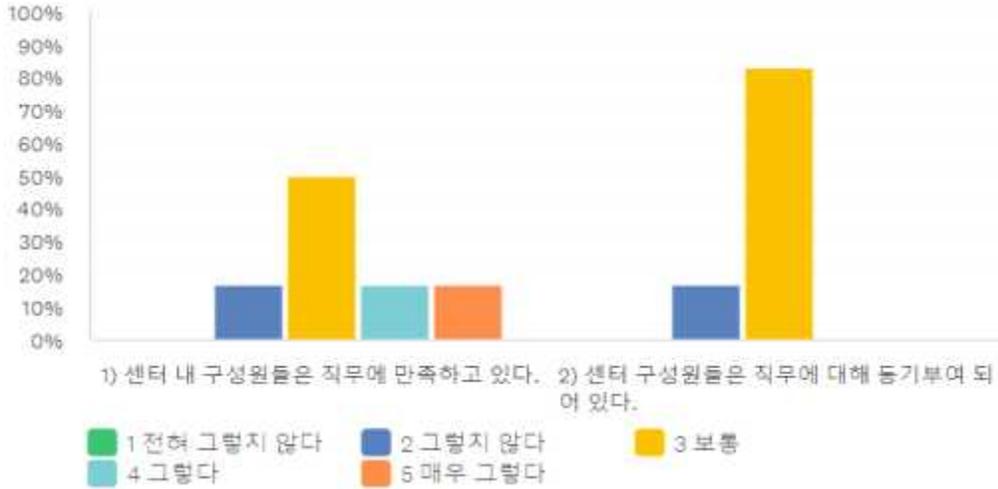
요하다고 판단됨. 예를 들어, 산업인력공단의 경우, 국제협력 관련 부서가 신입사원이 오고 싶어하는 부서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유관기관 FGI, 2021).

■ 영역 6) 업무 동기/선호태도 Motives & Preferences

- 센터 구성원의 업무 관련 동기나 태도는 긍정적인 부서 분위기 및 국제적으로 특화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오는 동기부여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관찰됨.
- 그러나 과중한 업무부담은 동기부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센터 구성원들은 직무에 대해서는 다소 만족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실제 업무 동기 수준은 더 낮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 좋아하는 업무에 몰입할 시간 및 자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이러한 상황은 직원의 적성이나 역량을 고려한 업무부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직원들은 급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자신의 기준에 만족스럽지 못한 업무 수행방식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조직 내에서 센터 업무에 대한 인정 부족으로 인한 동기 저하 및 도전적/창의적 업무 추진이 어려운 점이 관찰되기도 함.

• 업무 만족도에 대한 의견 (실무진 FGI)

- (현재 하는 일이) 좋아하는 일이라 만족도는 높는데, 일을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음. 잘하고 있는지 점수는 68점? 만족도는 85점 정도. 처 내는 일이 많다 보니 업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시간에 쫓겨서 하니까, 시간이 주어진다면 잘할 수 있는데 욕심이 생기다 보니 점수가 짠 것.



[그림 Ⅲ-10] 업무 동기/선호태도에 대한 인식

- 따라서 직원들이 지속적인 주인의식과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표 Ⅲ-12〉 주요 진단 내용 종합 요약

영역		성과 촉진 요인	성과 장애 요인
환경 측면	(1) 조직의 기대/피드백 Expectations & Feedb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내 개인의 업무는 명확한 편임. 계획된 사업목표의 이행으로 기존 사업 틀에서 업무 진행됨 • 업무의 분장 등이 체계적으로 나누어져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정관 및 공단법에서 정한 고유의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국내 재해예방 사업과의 연관성 부족으로 국제협력 업무를 부가적인 업무, 필요없는 업무로 인식하는 조직 내부의 분위기 존재로, 센터 내부 직원의 업무몰입도 및 만족도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침. • 공단 조직이 지향하는 방향과 국제협력센터가 추구하는 방향이 상이하여 조직으로부터 센터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 • 고유의 국제협력 사업 수행 외에 국내 재해예방 업무와 연관성 있는 신사업 발굴 및 추진으로 공단 내부 경영목표 달성에 부합하

영역	성과 촉진 요인	성과 장애 요인
		<p>게 하려는 노력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노동부 대응 및 기획, 예산 등 행정 업무 처리 다소 어려움. 관련 역할 수행 및 국제협력업무 수행 전문 인력 지속 확보 필요 물리적/인적 자원 부족으로, 개인 업무 역할이 문서상으로는 체계적으로 나뉘져 있으나 그대로 실행되지 못할 때가 있음.
(2) 업무 수행 필요도구/ 자원 Tools & Resour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터 인력 감축에도 직원의 노력으로 올해 목표한 성과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 적극적, 지속적인 노력을 통한 상당한 금액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확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에 필요한 예산은 적절하게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은 충분하지만, 다양한 사업을 다양한 형태로 수행하기에는 인력이 부족. 위드 코로나 시대에 기존 국제협력 업무 증가 및 전사적 목표에 정렬되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사업 개발, ODA사업 확대에 따른 조직 및 인력확보 필요 직원 개인별 메인 업무는 있으나 인원 부족으로 메인 업무 외에 백업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증진에 애로. 직원 업무몰입도 및 만족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침. 인원보강 필요 ODA사업의 경우 프로젝트 1개당 1인 이상 필요함. 고용노동부 및 타부서를 통해 들어오는 조사요청 시 수행 어려움 존재 인력증원의 당위성에 대한 대내외 설득 미흡
(3) 업무 결과/보상 Consequenc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 인정 및 보상 측면에서 잘되는 점은 찾아보기 힘들 코로나 이전 시기로 한정시 승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이 전사적 목표에 정렬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지원사업 -> 국내 외국인근로자 산재예방사업 개발, 지원성격의 사업보다는 센터 고유의 사업 개발 필요 공단 지원그룹 내에서도 센터 직원이 기울어

영역		성과 촉진 요인	성과 장애 요인
	Incentives	존재	<p>는 노력에 비해 평가나 보상은 미미한 수준이라 생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로 인해 국외출장등의 기회가 소멸되어 국제협력업무 성과를 드러내기 더 힘들.
개인 측면	(4) 업무기술/ 지식 Skills & Knowled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역량 우수함 • 센터내 모든 직원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모두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 • 언어구사능력 탁월 • 전문통역사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력, 사업화 능력 더욱 필요 • 인력구성 시 법학, 심리학, 사회학, 경영학, 공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전공자 발탁 필요 • 센터내 직원 모두가 업무역량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 • 역량개발에 대한 지원과 기회는 있지만, 업무로 인하여 역량개발에 소요할 시간이 부족함 • 기획, 예산, 조직 관련한 행정업무 경험 인력 부족 • 정보생산 등은 트렌드를 파악하고 따라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해당 분야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
	(5) 인재선발/ 배정 Selection & Assig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업무분장 명확한편 • 전문통번역사가 관련 업무에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1센터 1팀으로 업무범주별 업무분장이 안됨. 1센터 2~3팀으로 세부화하고 국제협력, 국제정보, 국제개발협력업팀 등으로 구분 필요 • 인원부족으로 메인 업무 외에 구성원의 경력, 적성, 역량을 고려한 업무부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 구성원 부족에 따른 업무량의 편차 발생 • 특히 노동집약적 사업(예: 공적개발원조 사업(ODA) 집행인력 절대적 부족하나, 공단 내에서 ODA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가외 업무로 간주) • 조직확대 및 최소 공단 내 파견 인력의 증원 필요 • 인력 충원으로 더 나은 업무 배정 가능할 것

영역	성과 촉진 요인	성과 장애 요인
(6) 동기/선호 태도 Motives & Preferen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내 센터에 특화된 업무 수행한다는 특징 • 해외 대응 업무에 대한 전문성 유지 • 부서 분위기가 업무량 등에 비해서 좋은 편이라 업무만족도 좋은 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인원부족으로 센터 내 직원의 적성이나 역량을 고려한 업무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음. •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의 장기간 수행에 따른 창의성 및 도전성 필요한 시점 • 직원들이 주인의식과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확대 필요

3) 업무량을 고려한 국제협력센터 적정 인원 방향

(1) 한국산업인력공단과의 인원 및 업무 분석 비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제협력사업은 부설기관인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 위치한 글로벌HRD협력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 글로벌HRD협력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 해외 HRD정책책임자 초청 워크숍 등 국제행사 주관
 - * 국제교류협력사업 제도 개선
 - * 국가 간 자격상호인정사업
 - *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ILO, APEC 등)
 - * 국가 간 교류협력사업
 - * 직원 해외출장 관련 통계, 제도개선 업무 총괄
 - * 국제HRD용역사업 및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 사업 수행
 - * 해외 숙련기술전수 및 전수프로그램 개발
- 글로벌HRD협력부는 부장 포함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적인 직급 및 담당업무는 다음 <표 III-13>와 같음.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글로벌HRD협력부 업무구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지원업무는 차장 1명이 담당하고 있음.

- ODA 사업은 4명이 평균 2개 정도의 가까운 국가를 맡아서 전담하고 있음.
- 국가 간 협력사업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은 3명이 각자 국가 및 국제기구별로 맡아서 전담하고 있음.
- 추가적으로 각자 평균 4~5개의 업무를 맡아서 전담하고 있는 구조임.
- 전반적으로 업무구분이 명확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전담하는 구조임.

(2)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글로벌HRD협력부 분석을 통한 시사점

지원업무를 통합하여 줄이거나 전담업무 수행하는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음.

- 국제협력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각자 본인만의 고유사업을 갖고 전담하여 사업을 진행함.
- 업무량이 공단보다 적지는 않으나 전담구조를 갖고 있어서 책임수행이 가능함.
- ODA사업은 평균 2개 국가의 사업을 맡아서 전담하는 구조로, 그 이상의 국가를 책임지는 경우에는 추가 인원이 필요함.

〈표 Ⅲ-13〉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HRD협력부 인원 및 업무

직위	성 명	담 당 업 무
부장	000	• 부서 업무 총괄
차장	000	• 정부 및 내부 경영계획·평가에 관한 사항 • 대외기관(정부, 국회 등) 요구자료 작성 등에 관한 사항 • CEO, 본부 내 타부서 등 요구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 감사 요구자료 작성 등에 관한 사항 • 규정, 규칙, 지침 등 내·외규 제개정, 검토에 관한 사항 •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직위	성 명	담 당 업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LO ICT, AIZ, UNEVOC 직원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계획 수립 등 • 국가간 자격상호인정에 관한 사항 • 한-아세안 정책공유 워크숍 추진에 관한 사항(정) • 직업능력개발 ODA자료 및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정) • 신규 사업 개발 및 제안서 작성(고용부 ODA, KOICA 등)
차장	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기능경기 역량강화(ODA) 사업에 관한 사항 (주 담당국가 :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기능경기분야 ODA사업 총괄, 기획, 운영 - 개도국 기능경기분야 ODA사업 예산 집행 및 관리 - 비대면 기능전수 신규 훈련 프로그램 개발 - 기능전수 온라인 멘토링 운영(직종별) - 과제해결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기능경기 직종별 초청연수 등 - 사업 종료평가 실시 • 국제기능올림픽 초청연수 사업에 관한 사항 • 개도국 기능경기 ODA 신규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국가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기타 지시받은 사항
과장	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간 협력사업(UAE, 중남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UAE 등 GCC 교류협력사업(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카타르) : HRD분야 교류협력 및 공동 워크숍 • 중남미 교류 협력 : ILO CINTERFOR 협력,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국제회의 개최·참석,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 • 국제기구와 협력사업(ILO, ASEAN, IDB)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LO(아태사무소) :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국제회의 개최·참석,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 - ASEAN : CLMV NQF 지원사업(협력기금사업) - IDB : 포럼 개최, 관련 회의 개최·참석 등 • 베트남 기술자격정보망(SQ-net) 구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정) • 동반성장과제 관리 및 보고서 작성 • 개도국 정책자문사업(페루) 추진에 관한 사항

직위	성 명	담 당 업 무
과장	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간 협력사업(독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독(GIZ) 개도국 지원사업 : 컨퍼런스, 초청연수 등 공동 프로젝트 -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과의 교류협력 사업 • 국제기구와 협력사업(WB, ADB, UNESCO-UNEVOC)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B: ASEAN+3포럼 개최, 웨비나(Webinar) 개최, 공동 프로젝트 수행, 국제회의 참석 등 - UNESCO-UNEVOC : 공동 프로젝트 수행 지원 - ADB: 공동 포럼개최, 국제회의 참석, 신규사업 발굴 • 개도국 정책자문사업(미얀마) 추진에 관한 사항 • 우즈베키스탄 국가자격체계 구축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KOICA) • KOICA, EDCF 신규사업 개발 및 제안서 작성 • 부서 예산 확보, 편성, 운용, 결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부서 혁신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정)
과장	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기능경기 역량강화(ODA) 사업에 관한 사항 (주 담당국가 : 미얀마, 아제르바이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협약 체결 - 기능전수 훈련 동영상 개발 - 기능전수 온라인 멘토링 운영(직종별) - 기능경기 시스템 구축 컨설팅 워크숍 운영(총괄) - 과제해결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기능경기 직종별 초청연수 등 • 기능경기 ODA사업 및 국제기능올림픽 초청연수 지원 • 아세안 TVET 협력강화 사업(학위과정) 운영 • 이라크 직업훈련컨설팅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KOICA) • 아제르바이잔 직업훈련원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사항(EDCF) • 전용 화상 회의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지시받은 사항
대리	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기능경기 역량강화(ODA) 사업에 관한 사항 (주 담당국가 : 나미비아, 잠비아, 몽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전수 온라인 멘토링 운영(기존국가 총괄)

직위	성명	담당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경기 시스템 구축 컨설팅 워크숍 지원 - 기능경기 직종별 초청연수 등 • 개도국 기능경기 ODA 신규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국가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베트남 기술자격정보망(SQ-net) 구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부) • 내·외부 고객만족도 평가 및 제고 등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리스트 관리, 레터발송, 제도개선 등 • 해외 홍보(영문 홍보 브로슈어, 영문사보 및 E-Newsletter 제작 등)에 관한 사항 • 해외고객 방문 및 지식공유 워크숍에 관한 사항 • 국제협력사업 영문자료 작성 및 검수
대리	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기능경기 역량강화(ODA) 사업에 관한 사항 (주 담당국가 : 필리핀, 라오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협약 체결 - 기능전수 온라인 멘토링 운영(신규 국가 총괄) - 기능경기 시스템 구축 컨설팅 워크숍 지원 - 과제해결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기능경기 직종별 초청연수 등 • 기능경기 ODA사업 및 국제기능올림픽 초청연수 지원 • 국제기구와 협력사업(APEC)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EC : APEC HRDWG 회의 참석 및 사업 발굴 등 • 국제개발협력사업 연구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 • 부서 Cop 및 학습 운영

IV. 국제협력 해외사례 조사



IV. 국제협력 해외사례 조사

1. 코로나19 이후 안전보건 관련 국제협력 이슈 탐색

ILO는²⁾ 최근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으며, 향후 발생할 위기에서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더욱 광범위한 공중 보건 시스템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궁극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작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활동이 위기 대응에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하였음.

-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현재의 팬데믹에 대응하고 추가 감염을 방지하여 더 빨리 회복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 수 있는 미래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회복력을 창출할 것이라 주장함. 또한, 국가가 비상 대응을 위해서는 그 계획에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국가별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에 대한 고민과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함.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적 연대 및 공적개발원조(ODA)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코로나19가 전세계적인 위기를 불러일으켰으나, 대부분의 예상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경제적 여파에 더욱 취약한 지역이 존재함.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개도국이나 최빈국 등 취약 국가의 사회 재건에 있어 국제적 연대와 지원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위원들은 특히 ODA가 촉매적 역할을 할 것이며 ODA 예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³⁾

2) ILO, 2021. Anticipate, prepare and respond to crises: Invest now in resilient OSH Systems - World Da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3) OECD, 2021. Development co-oper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예를 들어 라오스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 보장에 추가 투자를 고려할 경우, 공정개발원조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상되기도 함.⁴⁾ 결국 코로나19 이후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있어 개도국에 대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음. 이에 향후 산업안전보건 분야 국제협력에 참고할 주요 이슈를 탐색하고자 ILO를 중심으로 한 최근 논의와 한국과 유사하게 아시아 개도국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 국제협력을 꾀하는 일본의 국제협력 사례를 통해 살펴보하고자 함.

2. ILO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논의

1) ILO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 코로나19 이후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 증대로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증가함. UN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실업 등의 일자리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전례 없는 고용 위기에 대응하여 많은 국가 및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 보장 조치를 발표하였는데, 특히 일자리 및 포용적 성장에 대한 문제 해결과 관련된 사회 보장 조치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정책이 함께 협력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즉, 산업안전보건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 노동시장이나 고용 정책을 포함한 기타 경제 및 사회 정책과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연계한 국제협력 및 개도국 지원을 강조함.
- G20에서는 2020년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네트워크(G20 OSH Experts Network)와 ILO와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산업안전보건에

An analysis of 2020 figures and 2021 trends to watch

4) United Nations, 2020. Financing for Development in the Era of COVID-19 and Beyond Menu of Options for the Consideration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Part II

미치는 영향과 팬데믹에 대응하는 국가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의 역할을 조사함. 이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개선을 위한 영역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개선 사항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산업안전보건 영역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특히 ILO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이 회복력 있는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라 평가하며, 산업안전보건 영역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이슈들을 검토하여 제시함.
-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우리가 직면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고유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재발할 수 있는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국가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기존의 많은 산업안전보건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계속 보호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코로나19 이후 산업안전보건 분야 주요 이슈 중, 국제협력과 관련되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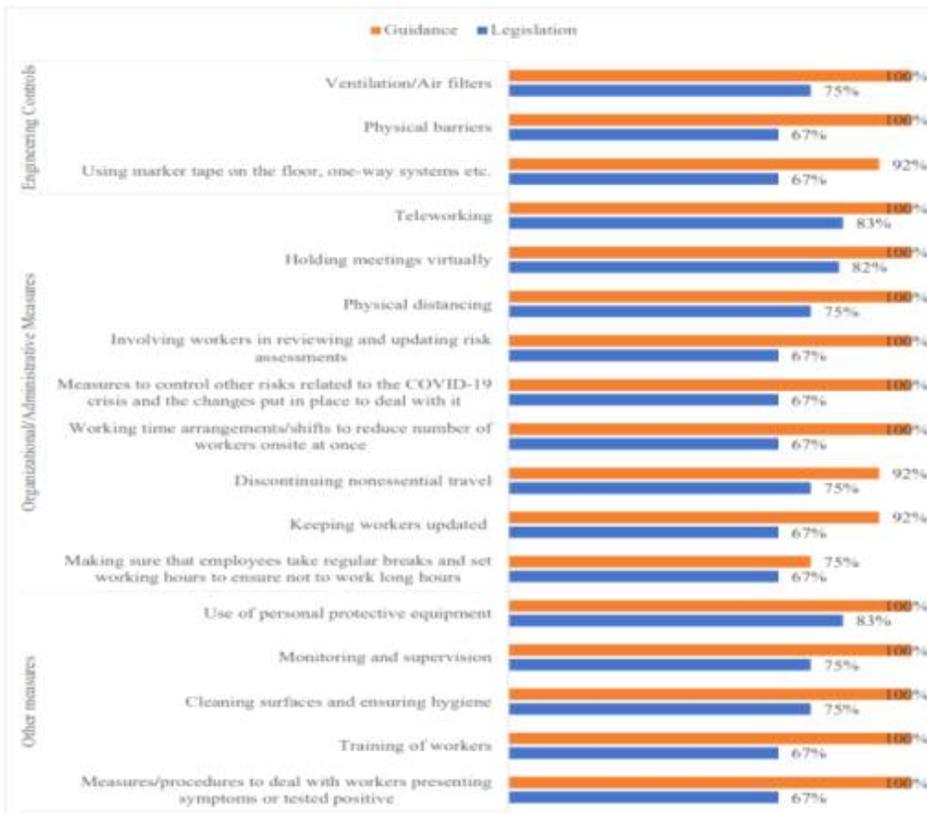
2) ILO의 산업안전보건 주요 이슈들

(1) 이슈 1: 효과적인 국가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규제 프레임워크

- 코로나19로 작업장에서의 전파 등 관련 위험은 기존 및 새로운 산업안전보건 위험 요소를 악화시켰으며(예: 심리·사회적 위험, 열악한 인체 공학,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 작업장 사고 등), 이러한 상황에서는 강력한 국가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
- 위기 상황에 따른 새로운 규정, 실행 규범 및 단체 협약을 개발하고 적절하게 채택해야 하며, 새로운 법적 요건도 고려가 필요함. 즉, 국가 산업안전보건 입법 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새로운 상황에서도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됨. [그림 IV-1]은 실제 코로나19 이후 G20 각 국가별 코로나19 및 산업안전보건 관

런 정책을 지침 또는 법률로 적용한 사례임.

- 또한, 위험 상황을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자세한 절차와 프로토콜 마련도 필요할 수 있음. 실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물리적 장벽, 시차 교대, 한 번에 근무할 수 있는 특정 근로자의 비율과 같은 지침을 5)마련 함.



[그림 IV-1] 주요 정책에 대한 지침과 법률 지원 현황

5) G20 OSH EXPERTS NETWORK, 2021, Mitigating the Impacts of COVID-19

(2) 이슈 2: 거버넌스 측면에서 국가 산업안전보건의 제도적 틀

- 코로나19 대응은 다양한 정부 부처와 거의 모든 부문 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었으며,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보장하고 고용상 재해, 사회 보장 및 공중 보건을 다루는 기관을 포함하여 모든 수준(국가, 지역 및 지방)에서 조정 메커니즘이 필요함.
- 먼저 산업안전보건을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위기 시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을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유능한 산업안전보건 당국을 보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또한, 산업안전보건 문제와 코로나19 영향을 다루는 국가 자문기구도 고민해볼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에 대한 근로자 및 사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개발한 가장 일반적인 메커니즘은 관련된 부처, 기관 및 사회적 파트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대표되는 산업안전보건 국가 삼자 자문기구(평의회 또는 위원회라고도 함)인데, 그 역할과 기능은 국가마다 상당히 다름.
- 한편 업무상 부상 및 질병을 다루는 관련 보험 또는 사회 보장 제도의 협력도 필요한데, 국가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은 산업재해, 질병 및 사망 예방 뿐만 아니라, 사고와 질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

(3) 이슈 3: 취약계층에 대한 검토 및 보호

- 코로나19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은 집단 중, 이주 노동자, 계약 노동자, 일용 노동자와 같은 특정 노동자 그룹은 직업의 특성으로 인해 특별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고, 그 영향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는 불안정하거나 공동숙소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특수고용 노동자는 고용상태로 인해 안전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고령자 등 연령이나 병력으로 인해 더 취약할

수도 있음.

- 또한, 지역적으로 더욱 취약한 지역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최빈국, 기업 규모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이슈에 취약할 수 있음. 실제 최빈국의 경우, ODA가 다른 어떤 그룹보다 더 중요하다고 평가됨.⁶⁾

(4) 이슈 4: 위기 상황이 반영된 산업안전보건 교육

- 코로나19 이후 산업안전보건 교육 계획이 코로나19 관련된 새로운 위험을 다루는 내용을 포함해 수정되기도 함. 특히 기존 산업안전보건 교육에 이미 위기 상황 진단, 비상 상황 예방/대응 방법, 비즈니스 지속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과 적응이 더 빠르게 진행되었음.
- 많은 국가에서 락다운이나 재택근무 후 직장으로 돌아가는 직원들에게 코로나19와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음. 예를 들어, 기존 산업안전보건 교육 외 바이러스 전파 방지 방안,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한 통제 시행 관련 내용, 근무 방식 변경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부정적 영향 방지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직장으로 복귀하는 모든 근로자가 코로나19 및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도록 함. 또한 ILO와 아프리카 연합 개발청(AUDA-NEPAD)은 코로나19 및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가상 교육 12개 모듈을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함⁷⁾.
-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특화된 산업별/부문별 교육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건설 부문 근로자를 위한 의무

6) COVID-19, jobs and the future of work in the LDCs: A (disheartening) preliminary account Authors / Aurelio Parisotto, Adam Elsheikh

7) AUDA-NEPAD, 2020, COVID-19: The Future of African Development Systems,

적인 온라인 코로나 안전 교육을 만들어서 이러한 근로자에게 특화된 위험에 중점을 두었음.

(5) 이슈 5: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 협력 및 정보 교환 중요성

- 코로나19를 통해 한 국가에서 배운 경험과 교훈이 같은 문제에 직면한 다른 국가에 빠르게 참고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국제 기술 협력이 필요함.
- 모범 사례 및 혁신적인 접근 방식, 작업장에서 새로 발생하는 위험 및 위험 식별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국가 정책, 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교환을 촉진할 필요 있음.
- 또한, 위기 상황에서 다른 국가에서 수행된 연구 및 연구에 대한 국제 정보 원천은 매우 유용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달성하기 위한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6) 이슈 6: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를 활용

- 디지털화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다 가속화되어 산업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음. 또한, 주요 국제기구들은 취약국에서 코로나19의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연구, 데이터 수집, 정보관리 등에 집중해 왔음.
- 예를 들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디지털 솔루션 마련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온라인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기도 하였음.
-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기관 수준의 데이터 전략이 필요하며, 이는 향후 산업안전보건 국제협력에 있어서 지원 영역으로 중요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함.

(7) 이슈 7: 근로자 정신 건강과 웰빙

- 산업 현장의 직원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새로운 작업 관행 및 절차로 인해 새로운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함. 공학적 통제, 재택 근무, 개인 보호구 사용 증가 및 소독 등을 포함한 전략이 빠르게 채택되어 코로나 19 확산을 저지하는 역할도 했지만, 화학적, 인체 공학적 위험을 포함한 심리 사회적 위험 등 새로운 산업안전보건 위험을 생성할 수 있음.
- 직원들은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는데, 업무량 증가, 근무 시간 연장, 휴식 시간 단축 등으로 직장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위험이 증가하고, 정신적 웰빙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됨.
- 특히 재택근무가 활발하게 채택되었는데, 직원들에게 자율성을 제공하는 반면, 많은 경우 "프레젠티즘"(일과 사생활의 경계가 흐려짐)이나, 컴퓨터 앞에서 고정된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장애, 자녀나 부모를 돌보는 책임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함. 나아가 업무, 사무실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고립감도 높아짐.
- 향후 이러한 추세는 완화되더라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됨. 따라서 근로자들의 물리적 안전은 물론, 정신적 안전과 건강에 대한 고려가 지속 필요할 것임.

3. 일본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국제협력 조사

1) 국제협력 중심기관

- 일본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국제협력은 다음의 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따라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일본 정부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 ※ 주요 관리 조직인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 주요 실행 조직으로 다수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협력
- 일본 정부는 개도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어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중요한 영역으로 보고, 다음의 국제협력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음.

〈표 IV-1〉 일본의 산업안전보건 국제협력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정책의 개선 및 시행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법률, 규정 및 지침을 개발하고 행정 절차를 개선 지원 - 산업재해의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하고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을 제공함으로써 구체적인 조언과 솔루션을 제공 • 건설현장 안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현장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위해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교육을 지원 -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분석 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연구, 정보수집 및 홍보를 수행하고 기술 서비스 및 교육을 제공하는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을 지원 • 안전보건 인재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안전 보건 훈련 및 교육을 촉진하고 확장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주, 전문가 및 강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모델 과정을 수립 • 자발적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국가의 산업체와 기업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자발적인 행동 지원 • 직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무재해 캠페인 또는 위험 예측 교육(KYT)활동 도입 - 이러한 활동을 직장에서 수행하는 방법을 교육하여 실제 교육을 지원

8) 후생노동성 웹사이트 (<https://www.mhlw.go.jp>)

2) 일본 산업안전보건 주요 국제협력유형

- 정부 합의에 따른 공적개발원조(ODA)는 일본 정부와 요청국 간의 합의에 기반하여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련 진단, 대책, 해결방법 전수 및 법제도 도입/시행방법 등 노하우 전수, 재정 지원도 가능함. 주로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각국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형태로 시행하나, 세 가지 유형을 모두 결합하여 진행하기도 함.

〈표 IV-2〉 일본 산업안전보건 ODA 주요 형태

형태	주요 특징 ⁹⁾
전문가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에서 전문가를 대상 국가에 파견. • 전문가가 현지 환경/필요에 따라 조언을 제공
초청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국가의 연수생을 수용하여 일본에서 연수 실시 • 일본 산업안전보건의 핵심 기관인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 산업보건병원, 일본 생물검정연구센터, 산업환경보건대학 등의 기관을 방문할 수 있음
장비 등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이전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 • 장비에는 유해 물질 측정/분석 장비, 호흡기를 포함한 개인 보호 장비, 안전 벨트 및 헬멧이 포함

- 일본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 지원을 받는 정부, 공공부문, 민간부문 협력은 일본 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이나 일본 연구원의 고급기술지원 가능

3) 주요 관리 및 실행 조직

(1)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 일본의 정부 간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기구이자 공적개발원조

9) 후생노동성 웹사이트 (<https://www.mhlw.go.jp>)

(ODA)를 관리하는 집행기관으로 1980년대부터 동남아시아와 남미를 중심으로 10여 개국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해 왔음. 최근에는 이라크, 요르단 등 중동에 대한 협력 사업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표 IV-3〉 최근 10년간 JICA의 산업안전보건 부문 주요 국제협력 사례

사업명	주요 활동 ¹⁰⁾
말레이시아 산업안전보건부 산업안전보건행정 개선사업 (2007~2012)	산업 안전 보건 관리 방법 및 절차 개선, 안전 보건 감독관 교육 프로그램 개선, 산업 안전 보건부(DOSH) 기업 워크숍 개최
중국 산업보건 역량강화 프로젝트 (2011 ~ 2016)	업무상 질병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상 질병 관련 감독관리, 기술서비스, 정보수집 및 분석기준 개선, 산업보건 의식 향상 및 기업 및 근로자의 관리능력 향상을 지원
이라크 산업안전보건 역량강화사업 (2016 ~ 2020)	이라크 국립산업안전보건센터(NCOHS) 및 관련 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능을 강화하여 산업재해 기록 및 보고 시스템, 산업안전보건 위험 관리 시스템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지원
요르단 산업안전보건 분야 직업훈련공단 역량개발사업 (2017 ~ 2021)	요르단직업훈련원에 대한 공기업 국제기준에 따른 훈련기능 강화, 조사 및 기술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보급촉진 기능 강화, 6개 지역센터 설립을 지원

- 코로나19 이후,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된 현지 사업을 추진하기도 함. 2020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JICA는 효과적인 경제, 사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재난 상황의 예방 및 통제를 위해 인도 정부 경제부와 공동으로 웨비나를 실시함.
- 인도의 CMRL(Chennai Metro Rail Limited) 직원에게 코로나19에 대한 표준 운영 절차(SOP) 및 지침을 지원하고, 온라인 교육 및 코로나 19 통제 모니터링, 의무적으로 얼굴 마스크 착용과 같은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여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함. 여기에 여러 일본 민간 회사

10) 후생노동성 웹사이트 (<https://www.mhlw.go.jp>)

가 물자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DMRC(Delhi Metro Rail Corporation)에도 의사의 정기 검진, Covid-19에 대한 상담, 노동자 수용소의 보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및 장갑 제공, 근로자에게 식품 및 기타 필수 품목 공급, 근로자를 현장으로 안전하게 운송, 시차 교대 근무 등 산업안전보건 지원을 실시함.

(2) Japan Industrial Safety & Health Association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JISHA)

- JISHA는 1964년에 후생노동성의 인가에 의해 설립된 공익 목적의 법인으로 고용주의 자발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추진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을 향상시키고 일본의 산업재해 및 질병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관임.
- JISHA의 국제협력사업은 기술지원부 소속 국제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 사업 영역은 1) 해외에 진출하는 일본 기업 등의 산업안전보건 개선, 2)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협력, 3) 해외 산업안전보건 기구/단체 등과의 국제교류 활동으로 이루어짐.
- 영역 1: 해외에 진출하는 일본 기업 등의 산업안전보건 개선
 - JISHA의 국제부는 해외에 진출하는 일본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개선을 중점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음. 주요사업은 해외정보 제공 및 해외진출 일본기업 지원임.
 - 사업 1 - 산업안전보건 분야 해외 정보 제공: 기본적으로 웹사이트에서 해외 산업안전보건 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주로 일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함.

〈표 IV-4〉 산업안전보건 관련 해외 정보 제공

연차 정보제공 정보 명	연차 관련 내용 정보	작성일	연차분(종류)
2021년 11월 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회회 해외 진출 안전 유관 정보 교류회를 2004년 2월 4일(금)에 온라인으로 최합시다(참가자 무료). 중화인민공화국의 노동안전보건제도에 대해 경신하였습니다. Occupational Diseases in each industry in Japan in 2014-2020년 	2016/05/23	2021/10/25(간행) 업종 2020/09/24(간행) 경영 2016/12/29(간행) 경영
2021년 10월 29일	Industrial accidents in each industry in Japan in 2012-2020년		
2021년 10월 2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국의 노동안전보건제도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 대가진 「OSH-PAN 종합」(개022802) 인도의 노동안전보건제도 	2016/10/29	
2021년 10월 19일	국제 표준 산업 분류 구조		
2021년 10월 1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O 데이터에 의한 태국의 업종별 노동재해 발생 상황(2019-2019년) LO 데이터에 의한 이스라엘의 업종별 노동재해 발생 상황(2012-2019년) LO 데이터에 의한 멕시코의 업종별 노동재해 발생 상황(2009-2017년) LO 데이터에 의한 미국 중동별 노동재해 발생 상황(2009-2016년) LO 데이터에 의한 미국 서부의 업종별 노동재해 발생 상황(2016년) LO 데이터에 의한 미국의 업종별 노동재해 발생 상황(2011-2017년) LO 데이터에 의한 스페인의 업종별 노동재해 발생 상황(2014-2020년) 	2016/11/30	2021/11/30(재해) 총재 2020/04/15(재해) 총재 2018/05/21(재해) 경영 2018/04/10(간행) 경영
2021년 10월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O 데이터에 의한 스페인 업종별 노동재해 발생 상황(2009-2019년) LO 데이터에 의한 이탈리아의 업종별 노동재해 발생 상황(2009-2019년) LO 데이터에 의한 프랑스의 업종별 노동재해 발생 상황(2009-2019년) LO 데이터에 의한 네덜란드의 업종별 노동재해 발생 상황(2009-2019년) 	2016/05/17	2021/04/27(간행) 경영 2020/04/17(재해) 경영 2018/04/11(재해) 총재 2017/06/29(간행) 경영
2021년 10월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O 데이터에 의한 독일의 업종별 노동재해 발생 상황(2009-2019년) LO 데이터에 의한 세계 각국의 사업 재해 피해자(업종별 집계)(2009-2020) LO 데이터에 의한 세계 각국의 사업 재해 피해자(업종별 집계)(2009-2020) LO 데이터에 의한 세계 각국의 사업 재해 발생률(업종별 노동자 10만명당)(2009-2020년) LO 데이터에 의한 세계 각국의 사업 재해 발생률(업종별 노동자 10만명당)(2009-2020년) 	2016/1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O 데이터에 의한 세계 각국의 사업 재해 피해자(업종별 집계)(2009-2020) LO 데이터에 의한 세계 각국의 사업 재해 발생률(업종별 노동자 10만명당)(2009-2020년) 	2016/07/12	2020/04/10(간행) 경영 2017/11/13(노출) 경영
	대한국의 노동안전보건제도	2017/05/08	2021/06/14(총재) 업종 2020/03/25(재해) 총재 2018/06/09(재해) 총재

11)

- 사업 2 - 해외 진출 일본 기업 지원 (OSH Workshop 중심): JISHA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성공 사례와 함께 현지 법률, 규정, 문화 및 관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기업의 안전 및 보건 활동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함.
- 이에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일본 기업이나 단체를 지원하고, 함께 현지 사정에 적절한 안전보건 체계를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관련 정보교류회(워크숍)를 실시하고 있음.
- 이를 통해 해외 사업을 하는 일본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담당자를 대상으로 참가자 간의 네트워킹과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자 하며, 주로 해외 진출 일본 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워크숍(일본)과 일본 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워크숍(해외)이 주로 개최되고 있음.

11) JISHA 웹사이트: <https://www.jisha.or.jp>

<표 IV-5> 해외 진출 일본 기업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

사업명 ¹²⁾	주요 내용	일정 / 장소
해외 진출 안전보건 정보교류회	해외 현지 산업안전보건 직원과 네트워크 구축 방안, 해외(아시아) 일본 기업의 안전활동 추진/정착 사례, 참가자 정보교류회 등	연 2-3회 일본에서 개최 (코로나로 온라인)
해외 일본 기업 안전보건 담당자 정보교류회	산업재해 감소와 안전보건 활동 활성화, 재해 운동의 도입과 정착의 포인트 정보제공, 참가자 정보교류 등	연 1회 해외 일본계 기업에서 개최 (인도네시아, 중국 등)
전국산업안전보건대회 정보교류	해외안전보건분과회 연구/발표 -해외·외국인 관련 안전보건 이슈 -해외 진출시에 있어서의 안전 위생 활동의 진행 방법	연 1회 일본에서 개최

- 영역 2: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협력
 - ISHA의 개발도상국 관련 국제협력은 크게 JISHA의 독자적인 협력사업 및 일본 정부의 ODA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JISHA의 독자적인 협력사업: 주로 개도국의 산업안전보건 단체나 기업의 안전보건 담당자 등에 관련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의 정부 기관, 기업 등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교육 및 기술 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사업 1 - JISHA 파트너십 연수(OSH Partnership Training Programs): JISHA 자체적으로 개도국에서의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독자적 사업으로 시작함.
 - 개도국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나 기업의 담당자 등을 일본으로 초빙해서 산업안전보건분야에 관련된 실무적인 연수를 실시함(2015년까지 연간 1팀 초청). 2016년도부터는 아시아 국가의 산

12) JISHA 웹사이트: <https://www.jisha.or.jp>

업안전보건 사업 관련 단체와 제휴하여, JISHA의 직원을 현지에 파견해 산업안전보건 단체나 기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JISHA 파트너십 연수를 실시하기 시작함. (2016년부터 연간 1팀, 태국에서 시작)

- 사업 2 - 아시아 산업안전보건 SAKURA 프로젝트: SAKURA 프로젝트는 일본 기업이 축적한 산업안전보건 경험을 해외 일본 기업의 안전보건 활동에 통합하여 현지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시작됨.
- JISHA는 아시아 해당 국가 작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직원을 대상으로 먼저 일본에서 안전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그 후속으로 해당 국가에 전문가를 파견해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평가, 조언, 지도를 실시함. 2018년 태국 사업장, 2019년에는 아래와 같이 베트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0년에는 베트남에 전문가 파견,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온라인 등 활용해 태국 대상자에게 진행되고 있음.
- 사업 3 - 기타 연수 사업(해외 요청에 의한 연수, 기술 지도 활동): 이외 해외의 노동안전위생단체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별 단체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거나, 강사를 의뢰처 국가에 파견하여 현지에서 연수를 진행하기도 함. 무재해 캠페인, KYT(위험예측훈련) 실시체제, 인재육성 등을 지원하며,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ISO 45001) 인증을 받거나 표준 도입을 위한 교육 실시, 작업 환경의 유해 물질 측정 및 석면 및 기타 물질 분석에 대한 기술 지침을 제공하기도 함.
- 기타 정보 제공 사업: 국제 협력의 범위를 동남아시아의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웹사이트 및 기타 매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일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일본 산업재해 통계, 해외 산업안전보건 정보 등. 국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서, 책, 교육 영상 등 자료 제공함.

- JICA를 통한 협력사업: 정부 OD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협력. JISHA는 독자적 활동 외에도 일본 정부의 ODA(공적 개발 지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JICA를 통해 몇 가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사업 1 - JICA 기술협력사업 지원: JICA로부터의 위탁을 받아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술협력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개도국의 산업안전보건 활동 및 기타 기술 협력에 관여하는 행정 공무원에게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JICA가 위탁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프로그램에는 2016년부터 진행된 "산업안전보건 역량 강화 프로젝트"(이라크 노동사회부)와 2017년부터 진행된 "산업안전보건 분야 직업훈련공사 역량개발사업"(요르단 직업훈련공사)이 포함됨. 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JISHA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를 요르단에 파견하고 장비 및 자재 공급에 관한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있음.
- 사업 2 - JICA 국가별 연수 프로젝트: JISHA는 JICA의 국가별 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라크와 요르단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JICA로부터 위임받아 실행중. 이 프로젝트를 통해 JISHA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기획 및 수립에 관여하거나 자국에서 이를 소개하는 위치에 있는 행정 공무원을 일본으로 초청하고 관련 분야의 훈련을 제공하고 있음.
- 사업 3 - JICA 과제별 연수(산업안전보건분야, 교육 및 대화 프로그램): 개발도상국에서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기획, 입안 및 실시, 기업 지원 등을 담당하는 행정관 등을 일본에 초빙하여 일본의 경험, 노하우 등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캄보디아, 요르단, 케냐, 스리랑카, 부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요르단, 몰디브, 몽골, 사모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참여하고 있음. 거의 매년 10월 전체에 걸쳐 일본국제협력단(JICA)의 위탁을 받음. JISHA는 5개국에서 각각 1~2명의 정부 관료 또는 준정부기구의 산업안전보건 전문가가 참석하는 산업안전보건정책 그룹교육과정을 실시

- 최근 JISHA는 아시아 및 중동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공무원을 위해 JICA의 지식 공동 창출 프로그램인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을 주최함.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행정 시스템, 기업을 지원하는 방법 및 사례를 소개하고 공무원들과 공유하며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계획 및 공식화 또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안내하고 지원함.
- 영역 3: 해외 산업안전보건 기구/단체 등과의 국제교류 활동 촉진
 - JISHA는 ILO나 아시아태평양 산업안전보건기구(APOSHO) 등 여러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의 안전보건기관/단체 등과의 교류 및 정보 교환을 실시하고 있음.
 - 국제기구 외에 각 국가별 유관 단체들과 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2019년 한 해 동안 중국 안전생산과학연구원의 의뢰로 중국에서 개최된 중국 국제도시안전발전 및 긴급관리포럼에 강사 파견, 태국 산업안전보건촉진협회(SHAWPAT)의 의뢰 교육(비만과 고령화로 인한 건강해제조 방안), 대만 정부의 의뢰에 따라 대만에서 개최된 국제 심포지엄의 강사 파견, 대만 연례대회에 초청되어 임직원을 파견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됨.

(3) 기타 국제협력 기관

- Japan Constructi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ssociation (일본건설산업안전보건협회, JCOSHA): JCOSHA는 1964년 「산업재해예방조직법」에 의거하여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건설업에 특화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JCOSHA의 국제협력은 JICA의 ODA 요청을 통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본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각국 정부, 안전보건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를 파견하여 건설업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Japan Organization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일본산업안전보건기구): 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JNIOOSH), 로사이 병원, Universi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Japan (산업환경보건대학, UOEH) 등 다양한 하부 기관 조직을 운영하며, 모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일반 의료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 의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함.

〈표 IV-7〉 일본산업안전보건기구 하부 기관별 주요 국제협력 사례

기관명	기관 개요	대표 국제협력 사례 ¹³⁾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JNIOOSH)	JNIOOSH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물리 과학, 공학, 의학 및 보건 과학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2016 말레이시아 산업안전보건부 전문가 파견 • 2016- 연구자 접수(한국재난안전연구원) 재해조사, 산업안전연구 전반에 대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 수용(중국안전과학기술원) 용접 및 도장 작업의 유해물질 보호 교육 : 훈련생 수용(인도네시아 등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교육 및 정보 교환
로사이 병원	작업 의학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예방부터 치료, 재활, 업무복귀 지원까지 선진적이고 전문화된 의료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2015 석면 관련 질병 진단 워크숍(몽골) • 2012-2015 한의사 양성(중국 산업보건 역량 강화사업) • 2014 태국 의사 대상 강의(태국 보건부 의료부) • 2015 전문가 파견(중국 산업보건 역량강화 프로젝트)
산업 환경 보건 대학 (UOEH)	근로자 건강 보호 위한 산업 보건 의사 및 전문가 양성을 주요 목표로 하는 일본 유일의 의과 대학. 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공적개발원조(ODA) 기반 교육: 산업 보건 및 안전을 위한 이라크 국립 센터 교육 과정 시행 • 2016 전문가 파견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직업위생독점연구소 주최 직업 스트레스 및

	<p>병 예방, 근로자의 심신 건강 증진, 작업 환경 및 방식 개선을 목표로 연구 수행.</p>	<p>나노물질 독성평가 워크숍 강사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2016 전문가 파견: 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 주최 산업보건회의 및 방사선 보건 과학 워크숍 • 2015 WHO 협력센터 전문가 파견: 베트남 석면관련 질병퇴치 국가행동계획 워크숍에 WHO 전문가로 전문가 파견
--	---	---

13) 후생노동성 웹사이트 (<https://www.mhlw.go.jp>)

V. 국제교류협력 사업 및 조직을 위한 시사점



V. 국제교류협력 사업 및 조직을 위한 시사점

1.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시사점

1)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시사점

최근 4년간 시행된 만족도 조사와 디자인 개선 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만족도와 자료의 신뢰성은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자료의 전문성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음.

국내외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보제공 기관 및 기업은 전무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을 고도화 하여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선도적 국가로 발돋움 하는 데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즉, 최신의 산업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여 국내 산재예방에 도움을 주며, 해외에서는 산업안전 선도국가로서 위상확립과 다양한 국제협력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

이를 위해서 2016년부터 2020년(2019년 제외)까지 조사된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의 만족도 분석결과를 통해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즉,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만족도 점수가 상승한 반면, 2020년 대부분 점수가 하락한 것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내용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체계적인 구성과 카테고리 분류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 주제를 보다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31.0%)’, ‘개요중심으로 깊이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22.3%)’, ‘각 국가별 및 대륙별로 정보가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12.5%)’의 의견이 있었음. 건의사항으로는 ‘업종별 하나의 주제를 추가 및 홍보, 동향을 분야별로 찾아볼 수 있게 주제를 보다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31.0%)’ 등이 있음.

추가 내용과 관련된 의견으로는 산업안전관련 트렌드 및 각국의 법, 제도 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재해사례 및 대책 방안에 관한 건의사항이 많았음. 자

세히 보면, ‘법규, 정책수립 및 제도 동향(48.5%)’, ‘각종 산재예방 신기술, 연구성과(45.6%)’, ‘최신의 안전보건 연구동향(33.1%)’, ‘재해사례(26.4%)’, ‘홍보 및 안전의식 향상활동(19.2%)’, ‘산업재해(10.3%)’로 나타남. 국가별 법, 제도 변경사항, 국가별 안전관련 트렌드, 재해사례에 대한 다양한 대책 및 방안 등이 필요함. 더욱이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안전보건 동향 및 기술, 재해사례, 안전보건 교육 등 관련 사업부서들과 정보 공유 프로세스 및 협업 기반의 체계적 구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국외기관과의 기술협력협정 분석을 통한 시사점

안전보건 관련 국외 기술협력협정의 경우, 안전인증 규격·상호인정 사업은 전문성을 이유로 인증원 주관의 협정 진행이 맞을 수 있으나, 기술·지식·정보 교류 사업은 기관 간 업무의 중복 및 효율화를 위해서 국제협력센터가 주관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개도국 안전보건협력 체결현황의 경우, 주로 아시아에 편중되어 있어서 타 대륙으로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베트남과 몽골 이외의 국가들은 1개씩 협정되어 있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정도 확대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기술·지식·정보교류 사업 및 안전인증 공동규격 상호인정사업의 경우, 체결기간이 정해져 있어 체결 종료되는 경우의 사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21년도 국외협정 운영계획 -

[잘된 점]

- **신신규** 협정체결을 통한 협력기관 확대(오스트리아, 프랑스, 몽골)
- 협정체결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직원 전문역량 강화
-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 해외 학술지 논문 및 포스터 발표
- 유럽재단(Eurofound) : 한국-유럽 국가간 근로환경 비교 공동연구 수행
- 글로벌 예방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연구
독일(DGUV):예방문화 선행지표 개발 공동연구 수행, 국내 학술지 게재
- 상호인정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외 기업 인증취득 지원
시험성적서 상호 인정을 통한 S마크 취득 및 국내 방폭 안전인증서 발급(약 320건), 전문가 그룹회의 및 교육실시 등

[미흡한 점]

- 일부 협정 교류실적 저조

[향후 계획]

- 신규 협정 확대
 - 베이징 시립노동보호연구원(BMILP) 등 신규협정 체결을 통한 협력 기관 지속 확대
- 협정연장 추진
 - 금년도 연장대상 협정은 공단 사업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협정연장 추진
- 교류실적 저조 협정종료
 - 지속적으로 교류·협력 실적이 저조한 협정은 기간만료 후 협정연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여부 결정

3) 유관기관 사업내용 분석을 통한 시사점

(1)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석을 통한 시사점

산업인력공단의 국제협력사업부는 국가간 교류에 의한 협력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사업을 국제교류협력(국가간, 국제기구간, 자격상호인정간)과 국제개발협력(위탁사업, 외국인초청연수)로 분류하며, 외국인 초청연수의 경우도 기술분야와 행정·정책분야로 분류되는 등 사업의 분류체계가 쉽게 구분되어 운영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또한, 국가간 자격상호인정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국내 기업 또는 인력과 개발도상국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공단에서 도입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됨.

(2) KDI 국제협력사업 분석을 통한 시사점

KDI국제협력센터는 총 62명의 조직구성원으로 안전보건 국제협력센터 7명과 비교하여 9배 이상의 인력으로 구성됨. 4가지 중점사업의 경우, KSP사업을 기반으로 국제개발협력연구, 글로벌파트너십, 컨서런스/세미나가 연관사업으로써 유기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판단됨.

KSP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주관부처가 되고 KDI, 한국수출입은행, KOTRA가 수행부서가 되어 독립된 기관의 전문성이 융합된 유기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강화함. 또한, 국제개발협력연구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협력 정책의 질적 제고를 추구하고, 공동사업을 통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음.

(3) KOTRA 분석을 통한 시사점

KOTRA는 KDI와 마찬가지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중요한 국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실행하고 있으며, 몽골, 베트남, 쿠바, 케냐, 벨라루스 등 다양

한 국가에서 사업을 실행해 왔음. 글로벌 CSR+ESG사업은 전세계적으로 CSR과 ESG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업의 내용과 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안전보건 공단에서 참고할만한 사례가 될 수 있음. 한국-베트남 통상연계경제협력사업은 양국 간에 다양한 측면에서 포괄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루는 상생협력 사업으로 특정 국가와 매우 밀접한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4) KOICA 분석을 통한 시사점

KOICA의 국제협력사업 예산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5개 분야 중 보건의료 및 공공행정분야와 공단 사업과의 유사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국제협력분야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 KOICA의 국제협력방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위탁사업제안을 시도해 볼 수 있음. 또한, KOICA의 아시아(34.4%), 아프리카(25.7%), 중남미(12.3%)의 지역별 예산 현황과 같이 아시아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5) 유관기관 사업내용 분석 종합

〈표 V-1〉 유관기관 국제협력사업 비교표

구분	한국산업인력 공단	KDI	KOTRA	KOICA	안전보건공단
사업 개요	국내 HRD분야 우수 제도 및 정 보 교류를 통한 우리나라 인적자 원 개발분야의발 전 도모 및 교 류협력을 통한 국가간 우호 증 진 및 공단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제고	개발도상국, 체 제전환국 등 각국 과 경제발전 경험 을 공유하고 이들 에 대해 정책설계 및 집행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함으 로써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에 기여	협력국의 경제, 사회 개발지원과 협력국과 상생발 전 및 협력 파트 너십 구축을 통해 서 우리기업 및 제품의 해외진 출 확대를 목적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기술환 경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국제 협력사업, 글로 벌 프로그램 해 외긴급 구호 등 우리나라의 국 제 협력 사업 의 효율적 관리 및 추진을 목적	국외 안전보건 지 식과 정보의 국내 보급을 통한 산재 예방활동 기여와 국내 산업안전보 건 정보와 활동사 례를 국외에 전파
조직 인원	9명	62명	12명	512명	7명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HRD위탁 사업 • 외국인 초청연 수 • 국가간 교류협 력 • 국제기구와의 협력 • 국가간 자격상 호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발전 공유 사업 (KSP) • 국제개발협력 연구 • 글로벌 파트너 십 • 컨퍼런스 및 세 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발전 공유 사업 (KSP) • 한국-베트남 통상연계경제 협력사업 • 글 로 벌 CSR+ESG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대 중점 분 야와 3대 범 분야 • ABC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안전보건 지식·정보제공 • 개발도상국 안 전 보건 협력 • 안전인증 등 상 호 인 정 • 기술·지식·정 보 교 류 • 초청연수 등
시사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사업 분류로 안정적 인 사업운영이 이루어지는 것 으로 판단 • 사업의 비대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P관련 개 별 홈페이지 구축 및 소비 자 중심의 UI 로 사업의 브 랜드 신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 로 벌 CSR+ESG사 업의 경우, 타 기관의 예산없 이 국내 기업과 개발도상국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대 중점분야 중 교육, 보건 의료, 공공행정 과 관련하여 공 단사업과의 유 사 또는 적합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국제협 력사업을 진행 하고 있지만 외 부 홍보 및 정 보 접근성이 낮 은 것으로 판단

구분	한국산업인력 공단	KDI	KOTRA	KOICA	안전보건공단
	<p>사업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판단됨(지속적 사업운영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단의 특성상 국가간 자격 상호 인정은 출천할 만한 사업으로 판단됨. 	<p>측면에서 출천할 만한 사업으로 판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KSP의 경우, KOTRA, 산업은행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점에서 공단과 타 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p>의 중계역할을 하는 국제협력 사업으로 벤치마킹의 시사점을 제시함.</p>	<p>사업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C 프로그램과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보건영역의 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공단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p>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또한, 업무의 분류체계가 타 유관기관 대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즉, 체계적인 업무 분류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화를 높이고 KDI의 KSP와 같은 정보제공 플랫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유관기관 국제협력사업은 위의 <표>과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사업의 시사점을 도출함. 유관기관의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안전보건공단은 국제협력부문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KOICA와 같은 조직은 조직 전체가 국제교류협력사업을 한다는 측면에서 예외적이라 볼 수는 있지만, 그 외 다른 기관에서도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9명에서 62명에 이르러, 공단의 7명보다 인력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 최근 사회적·국가적으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단의 국제협력업무 강화를 위해서는 인적규모의 성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안전보건공단의 국제협력사업 확장을 위해 위탁사업의 활성화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산업인력공단은 국제 HRD 위탁사업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KOICA, EDCF, 고용노동부 등의 사업을 위탁받아 다양한 국가에 인적자원개발에 관련된 기술, 지식, 인프라를 전수하고 있음.
- 위탁사업의 활성화는 기존의 자체예산과 노동부 예산 이외의 재원을 발굴하여, 국제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음.

안전보건공단은 유관기관의 사례에서 코로나 위기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산업인력공단의 경우에는 코로나 위기 시에도 지속적인 국제협력사업을 시행해 온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2020년도 산업인력공단 외국인 초청연수는 총 4개 과정이 시행되었으며, 159명이 온라인연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KOICA의 경우에는 개발 도상국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ABC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 19 회복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였는데, 이는 보건 의료 취약국 지원, 개도국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한국 경험활용 글로벌 연대강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짐. With 코로나 체제에서는 위의 사례와 같이 보다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국제협력을 유지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공단의 국제교류협력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KDI의 국제협력 연구, KOTRA의 CSR+ESG사업을 참고해 볼 수 있음.

- KDI는 협력국가와 함께 발전경험을 체계화함으로써, 지식공유를 위한 실증적인 지식콘텐츠를 창출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 연구원과 함께 국제협력 공동연구 시행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KOTRA의 CSR+ESG사업은 전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환경, 사회적 책임 등과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으며, 안전보건분야도 이를 참고하여, CSR과 ESG를 통한 국제협력사업 활성화를 추구할 수 있음.

공단의 국제협력센터 내부의 업무체계와 국제협정체결 체계를 보다 명확하

고 체계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산업인력공단의 글로벌 HRD협력부는 두 개의 분야(국제교류협력사업, 국제개발협력사업)로 구분되어 있어 업무의 체계가 간단명료하고 과업 정체성이 비교적 높다는 특징이 있음.
- 공단의 경우 현재 수행되고 있는 업무의 성격(공단 내 위상 등)이 다소 모호해서 업무수행체계가 더욱 명확히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국제협정체결에 있어, 국가수준의 협정과 기관수준의 협정이 효과적으로 구분되어 고용노동부와의 효과적인 업무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국제협력센터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시사점

1) 국제협력센터 조직구조 개편 필요성

(1) 국제협력센터 조직구조 개편

국제협력센터의 업무가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되고, 각각의 영역에서 앞으로 강화되거나 추가될 업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의 1센터 1팀 구조에서 개편이 필요함. 단기적으로는 업무영역 구분에 따라서 국내사업팀(협력사업팀)과 국외사업팀으로 구분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음. 장기적으로는 국제협력사업을 총괄하는 독립적인 위치로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음.

(2) 정기적인 뉴스레터 및 발간물 업무 조정

국제협력센터의 업무가 다양한 방향으로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에, 정기적인 뉴스레터 및 발간물 업무는 산재예방소통실의 홍보사업부의 업무와 일정하게 중복됨. 홍보사업부와 정기적인 뉴스레터 및 발간물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3) 지원업무에 대한 통합 고려

센터의 인원 중 2명 이상이 지원업무에 배정될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제협력업무에 인원 부족이 가중되고 있음. 지원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거나 관리 지원업무 담당을 추가로 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2) 업무량 고려한 조직 인원 및 업무 분석 시사점

전반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앞으로도 업무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적인 인력 충원이 필요함. 인원충원의 필요성을 상, 중, 하로 나누어서 제시함. 가장 시급하게 인원충원이 필요한 영역은 ODA사업으로 2022년부터 3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최소 1명에서 2명의 충원이 필요함. 인원충원의 필요성 상(上)이며, 국가별로 배정하면 1명 추가 충원(베트남과 캄보디아로 구분)이 적절하고, 사업별로 배정하면 2명 추가 충원(ODA 사업별로 구분)

다음으로 신규사업이 추가되는 영역에 신규인력의 배치를 고려할 수 있음. 인원충원의 필요성 상(上)이며, 현재 센터의 인력은 최소 5개부터 최대 10개까지의 주요 업무영역을 담당하고 있어서 신규사업을 수행할 여력이 부족함. 국내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망 지원 혹은 해외 진출 기업 해외국가 산업안전 컨설팅 제공 등 신규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담당자의 충원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다음으로 인원충원이 필요한 영역은 국제협력업무 중 국외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사업 전담인력의 충원을 고려할 수 있음. 인원충원의 필요성 중(中)이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타 사업부서의 요청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고, 신규인력을 충원하는 방법과 현재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거 업무 담당자를 배정하고 지원업무를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다음으로 인원충원이 필요한 영역은 지원업무 영역으로 국제협력업무 담당자로 현재 지원업무 담당자가 자리를 옮길 경우 추가 배정을 고려할 수 있음. 인원충원의 필요성 하(下)이며, 인원 충원 이외에도 업무조정이나 업무통합 등을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이상의 인원충원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V-2〉 국제협력센터 인원충원 필요성

담당업무	충원 필요성	충원필요 인력 숫자	충원 필요성 근거
ODA 사업	上(최상)	최소 1명~2명	국가별, 사업별 전담자 필요
신규사업 담당	上	1명	현원들은 평균 7~8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신규사업을 담당할 여력이 없음.
국제협력업무 (국외안전보건정보제공 담당)	中	1명 (지원업무 인력 전환 가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타 사업부서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대응
지원업무 담당	下	1명	현재 지원업무 담당자가 타업무로 전환될 경우 필요 업무조정이나 통합으로 해결 가능
종합	총 4명~5명	상: 최소 2명~3명 중: 1명 하: 1명	-

3. 국제교류협력사업 발전방향

1) 국내 산업안전보건 관련 유일한 국제협력 기간으로서 센터의 역할 강화

일본의 경우, 다수의 기관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경우 공단이 유일한 기관임을 알 수 있음. 따라서 공단은 우선적으로 국가 차원의 국제협력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적절한 인적, 물적 및 재정적 자원을 갖추고 있어야 함. 수행 과정에 있어서는 자체적인 수행 외에도 국내/외 유관기관은 물론, 산업안전보건 분야 외에 타 분야 다른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ODA 수행 가능 기관을 개발하는 등 함께 업무를 계획

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음. 특히 코로나19 이후 국제적 논의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 영역은 다른 분야(예: 사회 보장)와 함께 고려되어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판단되기에, ODA 포함 국제협력 과정에서 다른 부처와 협력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강력하고 효과적인 국가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이 해당 국가의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국제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2)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취약계층 초점, 특화된 수요 발굴

국제적 논의를 통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취약성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향후 개도국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에 있어서 해당 취약성이나 지원 필요성을 고려한 지역 및 사업 방향을 구상해볼 수 있음.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가장 화두가 되는 취약 대상이기에, 국외는 물론 국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할 가능성을 탐색해볼 수 있을 것.

3)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반영된 산업안전보건 연수 및 제도 지원 제공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한 가운데, 기존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이나 법 제정 지원 등의 사업 내용에도 변화가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함. 특히,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다루는 표준이나 정책, 지침, 교육 내용 등에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또한, 코로나19 시기를 통해 국내 근로자를 위한 공단의 관련 교육 콘텐츠 역시 온라인이나 VR 등의 형태로 전환되었으며, 오프라인은 물론 이러한 자료를 적극 활용한 온라인이나 원격 교육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갈 필요가 있음.

더욱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을 고려하여, 국제협력의 한 방법으로 해당 국가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데이터 관리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검토해볼 수 있음. 이를 통해 해당 국가가 향후 정기적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정보에 입각한 증거 기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며, 비상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 정보에 입각한 정책, 법률 및 규정, 전략 및 대안을 개발해가는데 도움 될 수 있음.

4) KOICA 협력 및 특화 프로그램 개발로 외연 확장 및 공단 비전과 연계

일본의 경우, 국제부의 주요 역할의 하나로 해외 일본 기업 및 해외 진출 예정의 일본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돕고 있음. 이를 통해 현지 국가의 근로자는 물론, 일본 기업 내의 산업안전보건의 개선을 이루고 있기에 양 국가에 동시에 공헌할 수 있다는 특징을 보임.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국제협력 수행 국가의 한국 기업들의 산업안전보건 영역을 지원하는 등을 고려해 본다면, 공단의 사망사고 감소라는 경영 목표와의 연계성을 높일 가능성을 탐색해볼 수 있다고 판단됨. 일본의 JISHA의 경우 자체 국제협력 사업은 아시아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JIC를 통해서도 중동 국가와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음. 따라서 자체 및 위탁 프로그램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자체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거나 새롭게 경험이 필요한 국가로의 확장을 꾀해볼 수 있을 것.

참고문헌

ILO, 2021. Anticipate, prepare and respond to crises: Invest now in resilient OSH Systems - World Da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OECD, 2021. Development co-oper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 analysis of 2020 figures and 2021 trends to watch

United Nations, 2020. Financing for Development in the Era of COVID-19 and Beyond Menu of Options for the Consideration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Part II

G20 OSH EXPERTS NETWORK, 2021, Mitigating the Impacts of COVID-19

COVID-19, jobs and the future of work in the LDCs: A (disheartening) preliminary account Authors / Aurelio Parisotto, Adam Elsheikh

AUDA-NEPAD, 2020, COVID-19: The Future of African Development Systems,

코이카 웹사이트 (<https://www.koica.go.kr>)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KSP (<https://www.kdi.re.kr/>)

KSP 경제발전공유사업 (<https://www.ksp.go.kr/index>)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s://www.hrdkorea.or.kr/>)

코트라 (<https://www.kotra.or.kr/biz/>)

후생노동성 웹사이트 (<https://www.mhlw.go.jp>)

JISHA 웹사이트 (<https://www.jisha.or.jp>)

Abstract

A Diagnosis on Business and Organization for the Roadmap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afety and Health

Objectives : There is an increasing need for the government to share accumulated knowledge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and develop international networks in the field of safety and health. The corporation needs high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effectively pursue cooperative governance with developing countries, spread domestic and foreign preventive culture, reduce accident deaths using foreign knowledge and information, and spread the Kore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OSH) model.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business direction and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roadmap for organizational redesign to carry out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Method : Research methods include existing literature review, business satisfaction survey analysis, contents analysis, employee interviews, and related agency interviews.

Results : Through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the programs so far have received high overall satisfaction but low data expertise. In addition, through the analysis of related agencies, it was confirmed that the size of the industrial complex's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was relatively small. We recommend that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center be divided into domestic and foreign business teams in the short term and have an independent structure in the long term. The areas where employee recruitment is urgent are ODA projects and information provision personnel. The center should increase the linkage with the corporation goals and expand the business area.

Conclusion : This report derives measures to improve the center's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sets strategic directions, and presents opinions on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structure.

Key words :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Business and Organization Diagnosis, Roadmap

연구진

연구기관 :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최우재 (교수, 청주대학교)

연구원 : 양재완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원 : 류성민 (교수, 경기대학교)

연구원 : 이정원 (교수, 경기대학교)

연구보조원 : 김영준 (박사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상대역 : 김정섭 (차장,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기간

2021. 08. 24. ~ 2021. 11. 20.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21년도 위탁연구 용역사업에 의한 것임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연구제목

(2021-산업안전보건연구원-793)

발 행 일 : 2021년 11월 20일

발 행 인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김은아

연구책임자 : 청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최우재

발 행 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 소 :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전 화 : 052-703-0812

팩 스 : 052-703-0331

Homepage : <http://oshri.kosha.or.kr>

I S B N : 979-11-92138-22-0